

국가지정유산(사적)으로의 승격을 위한

# 금산 백령성의 가치와 위상

## 학술세미나

2024년 6월 18일(화) 오후 1시

금산 청산회관 8층

주최



주관





##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이종관입니다.

금산 백령성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논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박범인 금산군수님, 김기운 금산군의회 의장님과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더불어 학술토론의 좌장을 맡으신 충북대학교 성정용 교수님을 비롯한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금산 백령성은 삼국시대 백제와 신라의 접경지에 위치한 산성으로 국경방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성곽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그간의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구와 유물은 백령성의 역사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서 학계의 많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2003년 정밀지표조사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약 20년의 기간동안 각각 3차례의 시굴조사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서 확인된 성벽을 비롯한 다양한 유구와 유물들은 고대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성 내부에서 확인된 백제시대 목곽고와 당초 신라성벽의 특징으로 여겨졌던 현문식 문지 구조의 확인은 백령성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유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금산 백령성의 가치와 위상’이라는 주제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그간의 조사, 연구성과와 함께 백령성의 축조시기와 운영주체, 백령성에 반영된 백제 성곽의 축조기술을 살펴보고 나아가 백령성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재검토하는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디 발표자 여러분들의 훌륭한 연구성과 발표와 함께 치열한 토론을 통해 백령성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재정립 되고, 나아가 국가사적 승격이라는 결실을 맺어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신 박범인 군수님과 금산군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더불어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6.

(재)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이 종 관



## 환영사



안녕하세요 금산군수 박범인입니다.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시어, 1,500여년 전 우리지역의 백제시대 대표 산성인 ‘금산 백령성 가치와 위상 학술세미나’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금산 백령성 가치와 위상 학술세미나’ 개최에 도움을 주신 백제역사문화연구원 이종관 원장님, 종합토론 좌장을 맡아주신 충북대학교 성정용 교수님을 비롯한 발표자와 토론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금산은 삼국시대 백제와 신라의 접경지로서 국경에 대한 방어와 전략적 요충지로 그 중요성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세미나의 주제가 되는 백령성은 우리 지역에서 백제를 대표하는 산성으로 작은 규모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여러 유물들을 통해 그 가치가 높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 간 백령성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곽의 잔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백제산성의 구조와 더불어 축조시점과 그 시기를 파악하는데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유물로는 명문와, 인장과, 목곽고 등이 발굴되어 백제시대의 산성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어 백제산성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수강산의 본고장이고, 세계인을 건강을 지키고 키워주는 인삼의 고장 금산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백령성을 통해 역사적 방향과 이를 통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06.

금 산 군 수 박 범 인

## 축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산군의회 의장 김기윤입니다.

금산 백령성의 가치와 위상을 재조명할 수 있는 학술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과거의 흔적을 발굴한다는 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과거와 연결되어 현재의 우리 모습을 새롭게 알게 해 주고, 좀 더 나은 미래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우리의 과거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함께,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역사적 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일은 그 자체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금산 백령성의 가치를 기리며, 역사와 문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우리 지역에 흠어져 있는 산성들의 역할과 존재감을 확실히 깨닫고, 앞으로 발굴, 보존하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의 연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참석자 여러분들께 존경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계속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06.

금산군의회 의장 김 기 윤



국가지정유산(사적)으로의 승격을 위한

# 금산 백령성의 가치와 위상 학술세미나

•행사일정

시간	일 정	진 행
13:00~13:30	등록	최희균 (백제역사 문화연구원)
13:30~13:40	개 회 식	
	개 회 사 이종관 (재)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환 영 사 박범인 금산군수	
	축 사 김기윤 금산군의회 의장	
	주제발표(1부)	
13:40~14:05 (25분)	제 1 주 제 금산 백령성 관련 조사·연구 성과 발표자 : 이호경(충남역사문화연구원) 토론자 : 이 훈(공주대학교 역사박물관)	
14:05~14:30 (25분)	제 2 주 제 금산 백령성의 축조시기와 운영주체 발표자 : 강종원(한밭대학교) 토론자 : 이병호(동국대학교)	
14:30~14:40	장내정리 및 휴식	
	주제발표(2부)	
14:40~15:05 (25분)	제 3 주 제 금산 백령성에 반영된 백제 성곽의 축조기술 발표자 : 최병화(백제역사문화연구원) 토론자 : 정해준(가경고고학연구소)	
15:05~15:30 (25분)	제 4 주 제 금산 백령성의 축성술과 문화유산적 가치 발표자 : 백종오(한국교통대학교) 토론자 : 이종수(단국대학교)	
15:30~15:40	장내정리 및 휴식	
15:40~17:00 (80분)	지정토론	
	좌 장 성정용(충북대학교) 발표자 및 토론자(8인)	



국가지정유산(사적)으로의 승격을 위한

## 금산 백령성의 가치와 위상 학술세미나

### 목 차

#### 개회사, 환영사, 축사

#### 11 제1주제 금산 백령성 관련 조사연구 성과

발표: 이호경(충남역사문화연구원)

토론: 이 훈(공주대학교역사박물관)

#### 33 제2주제 금산 백령산성의 축조 시기와 운영 주체

발표: 강종원(국립한밭대학교)

토론: 이병호(동국대학교)

#### 57 제3주제 금산 백령성에 반영된 백제 성곽의 축조기술

발표: 최병화(백제역사문화연구원)

토론: 정해준 (가경고고학연구소)

#### 113 제4주제 금산 백령성의 축성술과 문화유산적 가치

발표: 백종오(한국교통대학교)

토론: 이종수(단국대학교)



제1주제

# 금산 백령성 관련 조사·연구 성과



이 호 경  
(충남역사문화연구원)

I. 머리말

II. 백령성 조사성과

III. 백령성과 주변지역의 성곽현황

IV. 맺음말



## 금산 백령성 관련 조사·연구 성과

이 호 경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I. 머리말

금산 백령성은 충남기념물 제83호로 지정된 충남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와 역평리 사이 栢嶺(갯고개)의 정상부 자리하고 있는 둘레 207m의 소규모 산성이다. 산성은 표고 430m의 산 정상부를 둘러싼 테피식 석축 산성이다.

산성이 자리한 지역은 침식계곡을 따라 사방으로 형성된 교통로와 접하고 있어 주변에 위치한 논산·무주·대전·영동 등지와 연결되는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660년 김유신이 백제 정벌을 위해 금산지역을 관통하면서 거쳐간 ‘탄현’으로 비정될 만큼, 주변 산성들과 함께 백제와 신라의 전황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백령성에 대한 조사는 지표 및 시굴조사가 2003년에 시작되었으며, 2004~2005년에 1·2차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성의 구조와 내부시설이 확인되었다. 2020년에는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굴조사<sup>1)</sup>가 진행되었으며, 최근 국가유산으로 승격지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문지 및 서쪽 성벽 기저부에 대한 시굴조사와 백령성 주변의 성곽유적과의 연계를 살피기위한 심화연구가 진행되었다<sup>2)</sup>.

1)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금산 백령산성 -1·2차 발굴조사 보고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22, 『금산 백령산성 II』.

2)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23, 『금산 백령성 유적(3차) 시굴조사 개략보고서』

3차례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남문지를 비롯하여 성의 내부 석축시설, 저수용 목곽고, 배수시설, 주거지의 온돌시설, 대지조성, 차수벽, 수혈유구 등이 함께 조사되었다. 특히 남문은 懸門式으로 축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백제시대 저수용 木槲庫를 비롯해 다수의 銘文瓦가 출토됨으로써 정확한 축성연대, 기와의 제작처, 백제시대의 지명 등 다양한 백제사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 유물 역시 백제시대로 한정되는 것만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산성의 시대적 성격을 구명하고, 시기를 편년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남문의 구조가 현문식으로 신라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과연 백제시대 백령성에 최초로 사용되었는지의 의문점, 성내에서 출토되고 있는 기와의 시기적인 문제, 교통로로서의 중요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탄현’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등 해결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2021~2022년 사적 지정 재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문지 구조의 명확한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부결’되었다.

최근 진행된 3차 시굴조사와 심화연구는 논란이 된 ‘백제 사비기 현문의 구조를 지닌 성곽 유적’이라는 부분을 보완하고, 주변 백제 성곽과의 연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II. 백령성 조사성과

백령성에 대한 조사는 기존에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남문지 전면 기저부 및 남서측벽에 대한 시굴조사로 진행하였다. 전체조사 대상지역의 면적은 1지점(남문지 하단부) 34㎡와 2지점(남서측 체성 하단부) 2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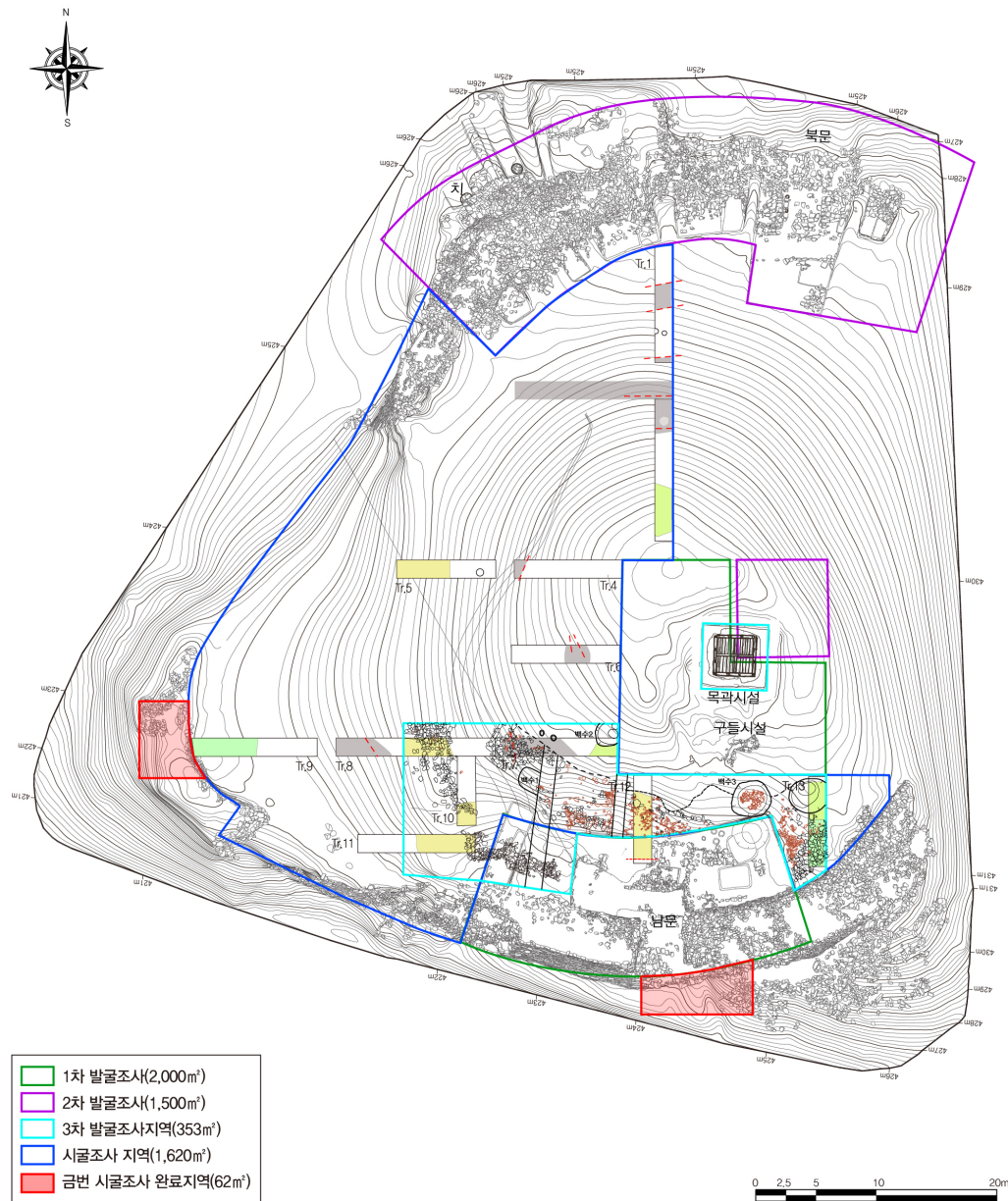
#### 1. 1지점

1지점은 남문지의 외벽 전면부에 해당된다. 금산 백령성 남문지는 2004년 1차 발굴조사에서 남문지 주변 및 정상부에서 현문식문지 구조 및 성내 진입시설, 보도시설, 구들시설, 목곽시설 등이 확인된 바 있다.

조사전 현황을 살펴보면, 주변 대부분의 지역이 임야지로 우거진 숲과 심한 경사도를 보이



고 있다. 문지는 육축부 측단면 및 체성 외벽이 모두 노출된 상태로 잔존상태는 양호하다. 먼저 축조 방법을 살펴보면, 표토면 약 30cm 하단부에서 암반으로 이루어진 기반토가 확인된다. 지대석은 이러한 암반토를 굴착한 후 설치하였고, 약 15cm정도 들여쌓아 면석을 축조하였다.



【도면 1】백령성 발굴조사 현황도(S=1:500)



【사진 1】1지점 조사 후 모습

면석은 허튼층과 바른층쌓기를 혼용하였고, 암반 및 지대석 전면에는 잡석을 섞은 갈색 사질점토의 다짐층이 확인된다.

문지 개구부의 측벽 선단부는 호선으로 이어지는 곡면으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백제의 문구부 처리의 특징 중 하나로 부여 가림성, 논산 노성산성, 대전 보문산성 등에서 확인된 예가 있다. 신라 산성의 경우 개구부의 측벽 선단부는 대부분 수직으로 축조하는데, 삼년산성 및 고모산성 등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성벽에서 남문지 하단부로 지대석 및 면석(잔존 최대 5단)이 문지를 연결하여 이어지고 있다. 또한 면석 및 뒤채움석축 역시 연결되며, 문지 상면 약 2m지점에 1단 석축 및 내부에 흙다짐이 조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성벽과 남문지는 동시에 축조되었고, 문지의 구조는 현문식으로 축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문지 정면 모습



남문지 측면 모습

【사진 2】남문지 개구부 전경



하단부 면석 연결 모습



중단부1단 측면 채움석모습



하단부 층위 모습



하단부 암반층 모습

【사진 3】남문지 기저부 세부모습

## 2. 2지점

2지점은 남서측 체성 외벽 전면부에 해당된다. 조사전 현황을 살펴보면, 주변 대부분의 지역이 임야지로 우거진 숲과 심한 경사도를 보이고 있다. 연결한 남쪽 및 북쪽 체성부는 대부분의 성벽이 무너진 상태이고 조사지역 역시 붕괴 직전의 상황이었다.

먼저 축조 방법을 살펴보면, 표토면 약 30cm 하단부에서 암반으로 이루어진 기반토가를 굴착한 후 내부에 잡석이 혼합된 갈색 사질점토의 다짐층을 조성하였다. 지대석은 이러한 잡석이 혼합된 갈색 사질점토 상면에 놓여져 있고, 약 15cm정도 들여쌓아 면석을 축조하였다. 면석은 허튼층과 바른층쌓기를 혼용하였고, 지대석 전면에는 잡석을 섞은 갈색 사질점토의 다짐층이 확인된다. 다짐층은 2020년 3차 발굴조사 당시 성안에 대한 1·2차 대지 조성 과정에서 확인된 바 있다.



【사진 4】2지점 조사 후 모습

2지점의 지대석의 경우 1지점의 암반 위에 축조된 것과는 달리 다짐층 상면에 놓여져 있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지대석 하단의 다짐층에 대한 조사결과 지대석 하단 후면에 1단의 석



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후면 석재는 육안상으로 별개의 지대석(암반토 상면에 위치)으로 보이나, 백령성의 축조 방법이 면석 후면에 비교적 면을 이루는 석재를 축조하여 뒤 채움이 조성된 점을 미루어, 뒤채움석의 석재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금번 조사지점이 성벽붕괴 위험에 더해 급경사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조사결과 도출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개·보수와 연관성에 대한 명확한 양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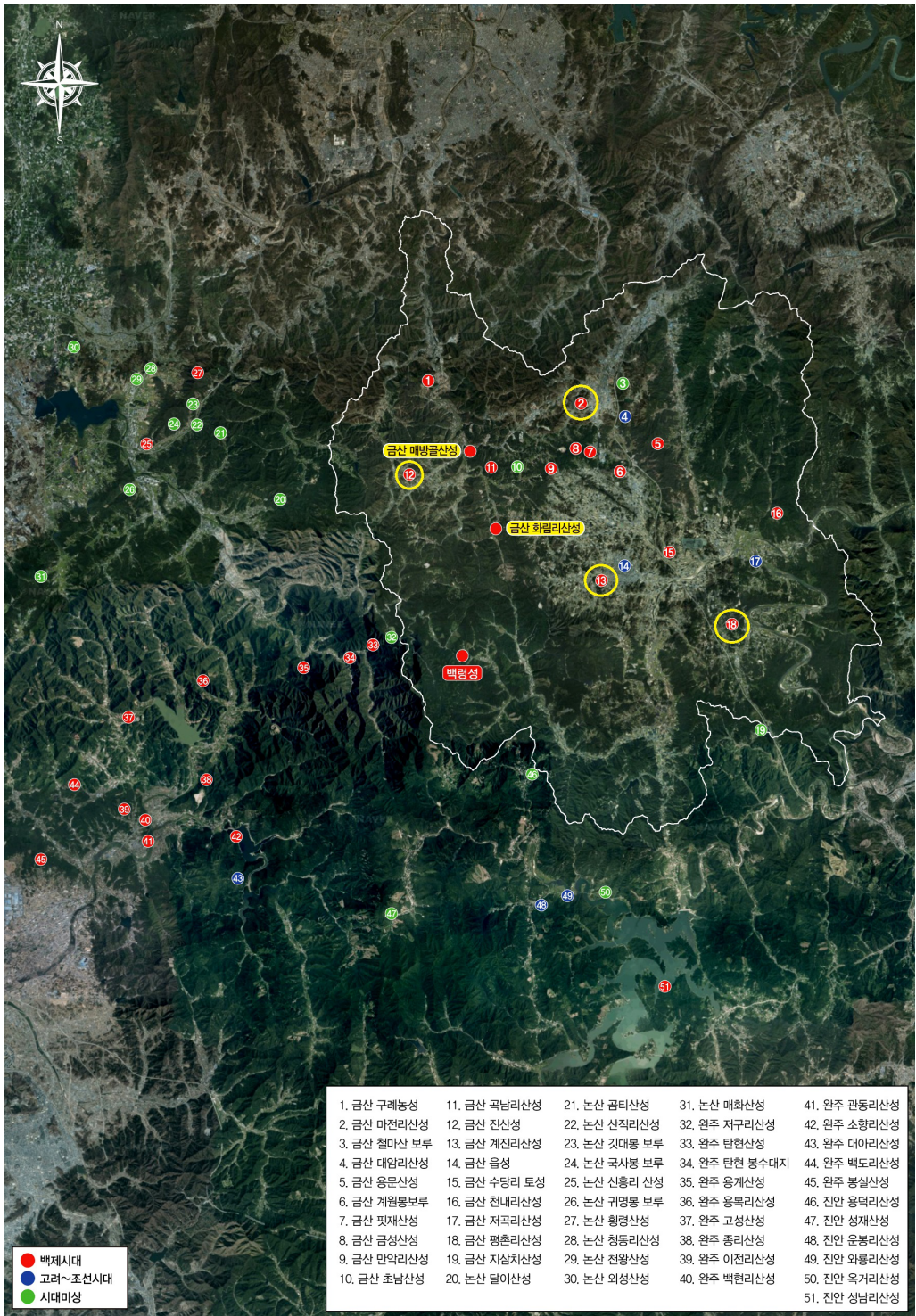
【사진 5】2지점 조사 후 전면 및 하단부 모습

### Ⅲ. 백령성과 주변지역의 성곽현황

‘백령성 심화연구’는 금산군 내 위치한 산지 지형에 대한 고지형분석을 기초로 알려지지 않은 성곽의 잔존유무를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백령성을 중심으로 한 관방체계를 살펴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금산군의 서쪽에 위치하는 산지 지형을 중심으로 진행된 고지형분석에서는 모두 7개소의 의심지형을 도출하였다. 의심지형은 산 정상부에 평탄면이 있거나 성곽으로 추정되는 지형이 산 정상부를 감싸거나 능선을 따라 흐르는 지형 등으로 기존의 성곽에서 보이는 지형적 특성이 도출되는 지점을 뜻한다.

고지형분석을 통해 확인된 의심지형은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 성곽의 존재유무를 확인하였으며 조사결과 2개의 신규 미보고 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머지 5개소 중 2개소는 성곽의 흔적이 찾아지지 않았으며, 나머지 3개소는 기존에 보고된 산성 또는 봉수 유적으로서 문화재청 GIS와 위치가 약간 차이가 발생하나 기 유적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면 2】금산지역 및 주변 성곽 분포 현황



신규로 확인된 2개의 산성은 금산군 진산면 만악리와 곡남리 경계에 위치한 지점과 진산면 엄전리와 화림리 경계 지점에서 각각 1개소의 성곽이 확인되었다.

## 1. 신규 확인 산성

### 1) 매방골산성

● 시 대	백제시대
● 성 격	성곽 산성 석축(테외식)
● 건립시기/연도	백제시대
● 성의 규모	둘레 317m
● 소 재 지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곡남리 산28-4

금산군 복수면 곡남리와 금성면 만악리의 경계를 이루는 산 정상부에서 미보고 산성 1기를 확인하였다. 성곽의 명칭은 잠정적으로 동일한 능선상에 곡남리산성이 위치하고 있어 매방골



【사진 6】매방골산성 위성사진



【사진 7】매방골산성 남쪽 성벽 세부



【사진 8】성내 집수지 내부 모습



【사진 9】서쪽 성벽 붕괴 모습



【사진 10】동쪽 성벽 외벽 잔존모습



【사진 11】동쪽 성벽 붕괴 모습



산성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산성이 위치한 산맥은 복수면 복수초등학교가 위치한 지점에서 남동쪽에 위치한 산맥에 해당한다. 곡남리산성을 중앙에 두고 신규로 확인된 매방골산성이 서쪽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초남산성이 위치하고 있다. 매방골산성-곡남리산성-초남산성이 동서방향으로 산맥을 따라 배치되어 있는데 대체로 약 700m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다.

매방골산성은 산 정상부를 감싸는 형태이나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지형을 이루는 삼태기형 산성이다. 산정상부와 가장 낮은 북쪽 저지대에 약간의 평탄지가 확인되며 산 정상부에서 백제시대로 편년되는 경질토기편이 일부 수습되는 현황이다.

매방골산성의 성벽은 석성으로 절벽을 이루는 남쪽에 성벽현황이 잘 남아있으며 나머지 성벽은 대부분 붕괴되어 있는 현황이다. 남쪽의 잔존성벽은 약 2m 이상 남아 있고, 북서쪽의 성벽 붕괴지점에는 무너진 성돌이 사면부에 약 20m이상 넓게 분포되어 있다.

성의 정상부 평탄지의 서쪽으로는 원형의 집수지가 지표상에 노출되어 있다. 직경은 약 13m 내외로 판단되는 석축 집수지로 성의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 2) 화림리산성

● 시 대	백제시대
● 성 격	성곽 산성 석축(테괴식)
● 건립시기/연도	백제시대
● 성의 규모	둘레 197m
● 소 재 지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화림리 534-18

미보고 신규산성2는 금산군 진산면 엄정리와 진산면 화림리의 경계를 이루는 산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산성의 명칭은 성의 잔존부가 많이 포함되는 화림리 경계를 따라 화림리산성으로 명기하고자 한다.

화림리산성이 위치하는 지역은 군청이 위치하는 금산군 금산읍 서북쪽에 위치하며 복수면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금산 시내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진산면 화엄로 411에 위치하는 평화사의 남쪽 봉우리 정상부에 해당한다.

산성은 전형적인 산정식, 또는 퇴괴식으로 명칭하는 산성의 형태를 띠고 있다. 다만 특이한 점은 동벽과 서벽은 전형적인 토성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남쪽과 북쪽 일부는 석성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토성으로 잔존하는 동벽과 서벽구간은 자연지형상 절벽으로 이어져 있



【사진 12】 화림리산성 위성사진

나, 남쪽과 북쪽으로 능선이 이어지고 있어 접근이 수월한 남쪽과 북쪽 성벽을 석축을 축조하였거나 후대 개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성의 둘레는 197m로 작은 규모를 이루고 있다. 북쪽의 석축성벽은 약 18m 구간을 이루고 있으며, 남쪽은 65m구간이 석축성벽으로 존재한다. 남쪽 석축성벽 중 남서쪽 모서리에서는 문지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된다.

성내에는 건물지의 흔적이 비교적 뚜렷이 확인된다. 성내 약 1m 내외의 단을 두어 성내 평탄지를 구성하였는데 부분적으로 석축을 쌓은 흔적이 확인되고 있다. 성내에서 정상 중앙부에서 건물지 현황이 확인되는 것 이외의 유구나 또다른 문지의 현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화림리산성과 관련하여 남쪽으로 이어지는 능선 또는 길을 건너 북쪽으로 이어지는 능선 상에 또다른 산성의 현황이 확인되지 않아 연계되는 관방라인의 현황은 파악하기 어렵다.





【사진 13】남쪽 성벽 붕괴모습



【사진 14】남쪽 성벽 잔존모습



【사진 15】서쪽 토성 및 회곽로 모습



【사진 16】화림리산성 남문지 세부(성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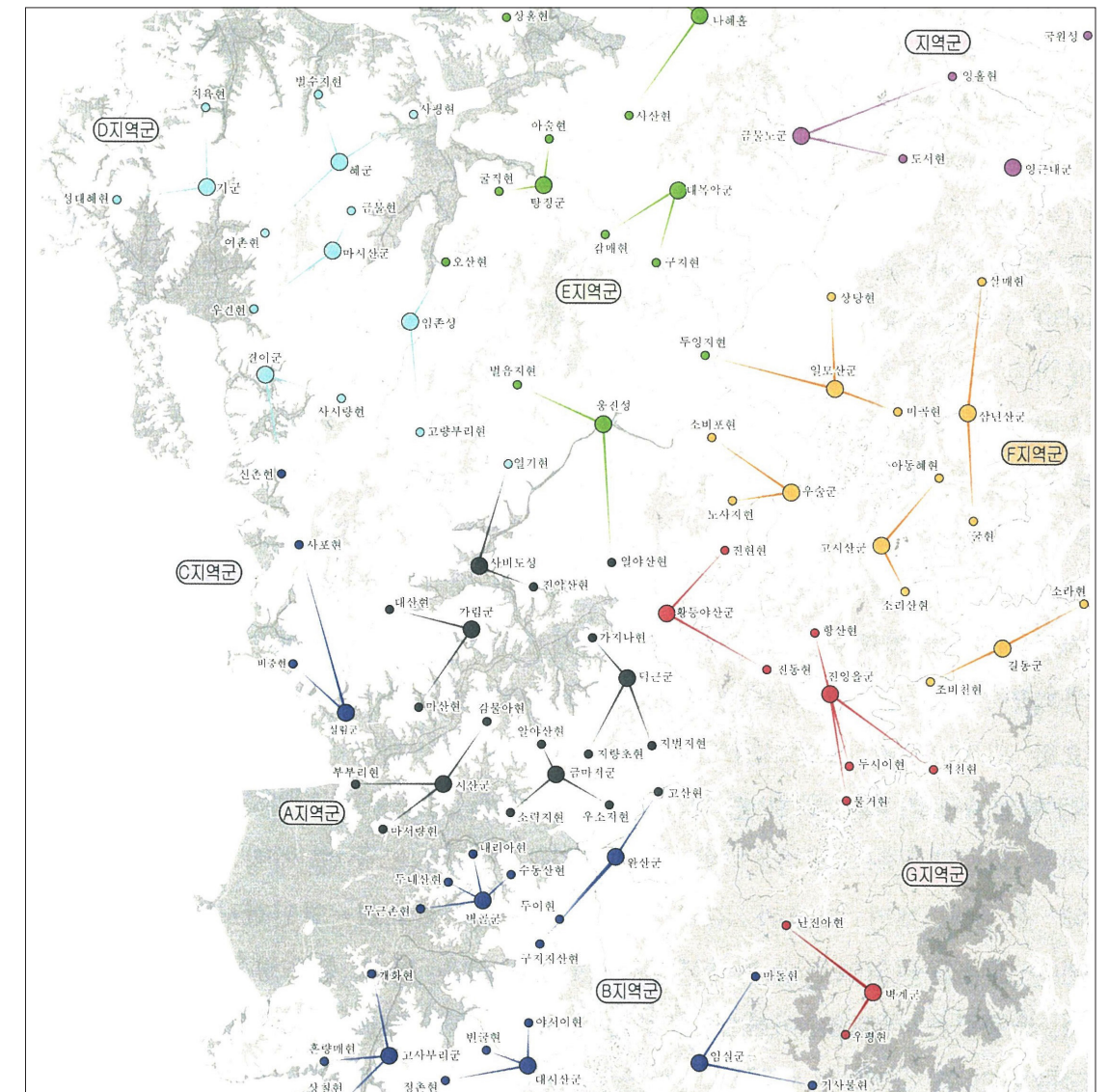


【사진 17】성내 건물지 외곽 단시설

## 2. 주변지역 성곽 현황

### 1) 금산군 일대 고대 교통로 현황

백제시대 금산은 진잉을군을 중심으로 북쪽에 향산현, 북서쪽으로 진동현, 남쪽에 두시이현과 물거현, 남동쪽에 적천현을 두었다. 인접하여 황등야산군에 속한 진동현이 북동쪽에 위치해 있다. 금산의 주 군현인 진잉을군에서 백제 5방 중 하나인 동방성(논산 은진)과 황등야산



【도면 3】백제 사비시기 군현간 영현관계<sup>3)</sup>



군이 위치한 논산지역을 거쳐 백제 중앙지역(웅진·사비)으로 이동하는 루트가 가장 빠른 길로 보여진다.

[도면 4]에서와 같이 금산의 진잉을군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고대 교통로<sup>4)</sup>는 모두 6개로 구분된다. ①번 교통로는 대전에서 진동현을 거쳐 금산의 진잉을군으로 향하는 루트다. ②번 교통로는 옥천 관산성에서 금산으로 들어오는 길로 향산현과 진동현·진잉을군으로 연계하여 이동할 수 있다. ③번 교통로는 금산 진잉을군에서 영동으로 넘어가는 루트로 금산의 동쪽에 배치된 성곽들과 연계된다. ④번 교통로는 진잉을군에서 두시이현을 거쳐 장수로 내려가는 길이며, ⑤번 교통로는 진잉을군에서 진안으로 남하하는 길이다. 마지막 ⑥번 교통로는 금산 진잉을군에서 백령산성과 탄현산성을 거쳐 모촌리산성(신흥리산성)을 통과하면 금산과 논산(동방성) 사이의 산악지대를 손쉽게 통과하게 되고 백제 중앙으로 바로 연결된다. 금산과 동방성-백제중앙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주 교통로는 ⑥번 교통로라고 할 수 있다.

## 2) 교통로와 관방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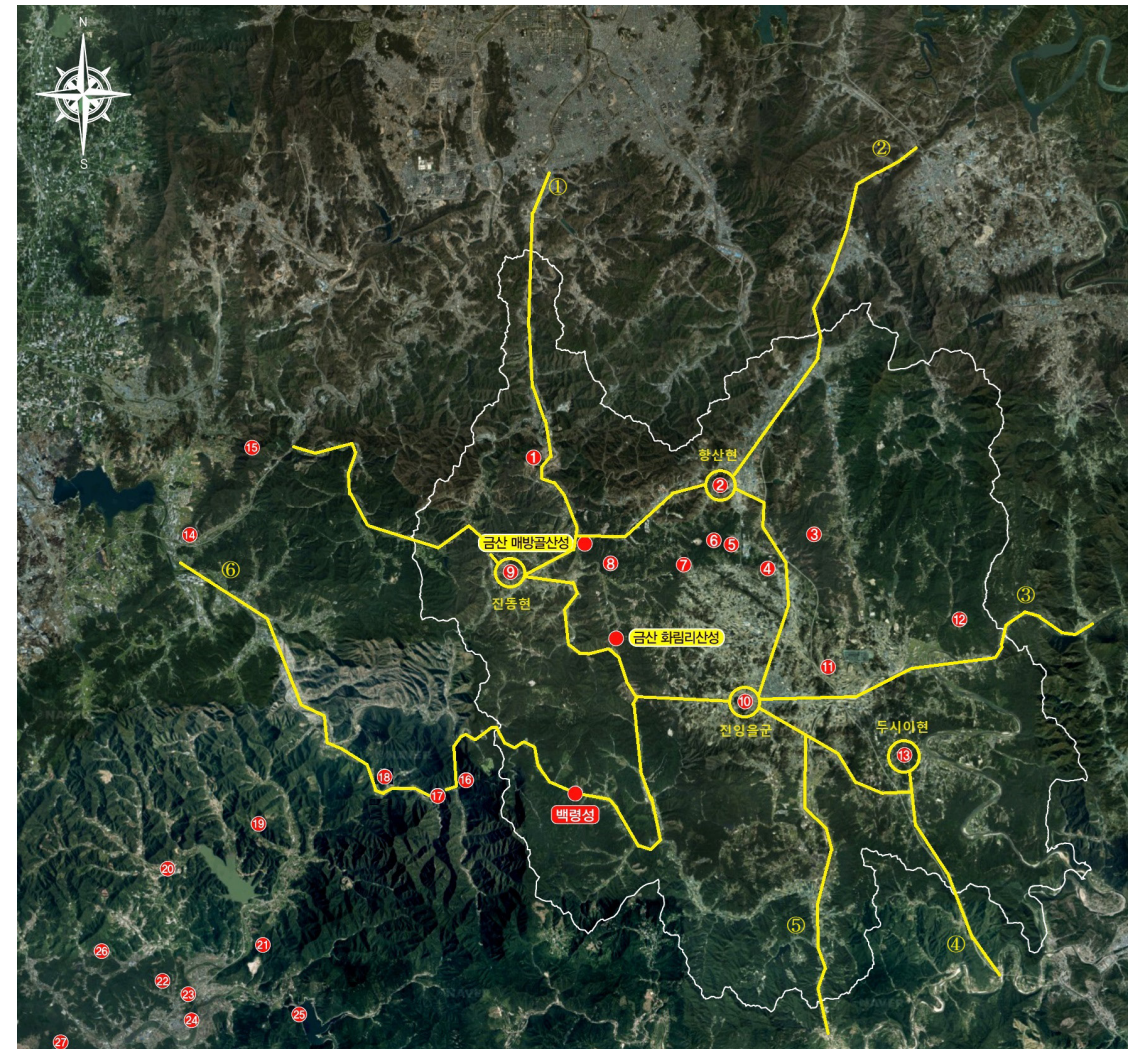
금산 지역은 마한에서 백제에 복속되기 이전 지역에 기반을 둔 가야가 성장하였던 지역으로 전북 장수, 남원, 진안 등으로 연결되는 길목에 해당한다. 웅진기 백제와 가야의 교통로는 <백제 중앙-은진(동방성)-금산(진잉을군)-진안-가야>로 연결되고 있다.

금산은 신라와의 접경지역으로 동북쪽으로 관산성을 지나 <추부면-금산읍-백령성-탄현-은진-향산별-사비성>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상에 위치하고 있고 신라와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진 장소이다. 특히 금산 백령성이 위치하고 있는 탄현(炭峴)은 신라 김유신 5만군의 침공으로 비정되는 지역이다.

백제산성은 규모 600m를 기준으로 대형과 소형으로 구분된다. 대형 산성은 마전리산성, 진산성, 계진리산성, 평촌리산성으로 4개소이며, 모두 비고 150m 이내의 나지막한 야산 정상부를 둘러싼 석축산성이다. 성곽 둘레 600m 미만의 산성들은 모두 높은 산의 봉우리에 축성된 테피식 산성으로 확인되며, 급경사를 이루는 산간의 협곡 통로를 따라 배치되어 있는 현황이다.

3) 이판섭, 2015, 『百濟 交通路의 考古學的 研究』, 충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4) 최병화, 2004, 「금산지역 백제산성에 관한 고찰」, 『백제연구』3,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도면 4】 금산지역 성곽 및 고대 교통로

[도면 2]에서와 같이 진동현과 향산현 사이의 지형에는 금산군의 대부분의 산성이 집중되고 있고 북쪽의 대전지역과 동북쪽의 관산성 방향에서 접근하는 신라군을 방비하기 위한 산성 배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심화연구에서 새로이 확인된 매방골산성은 곡남리산성과 초남산성을 연결하여 진동현에서 진잉을군으로 넘어오는 루트를 방어하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여진다. 신규로 확인된 또 하나의 산성인 화림리산성은 곡남리 일대의 산성 방어선 남쪽에 배치되어 최종적으로 금산 진잉을군으로 들어가는 길목과 진동현에서 논산방향으로 향하는 교통로를 방어하는 위치에서



확인되었다.

앞서 [도면 4]의 교통로 중 ①번 교통로와 ②번 교통로를 방어하는 루트상에 배치되어 매방골 산성-곡남리산성-초남산성이 약 700m 간격으로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면 4]의 ⑥번 교통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금산(진잉을현)에서 논산(동방성)으로 이동하여 백제 중양(사비·웅진)으로 넘어가는 핵심 루트이다. 이곳의 성곽 배치는 금산 북쪽의 성곽 배치와는 상이한 형태를 보인다.

금산 북쪽의 성곽배치는 동일 능선상에 일정 간격으로 성을 배치하거나 성과 성 사이의 간격이 멀면 중간에 보루를 배치하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⑥번 교통로에서 확인되는 산성은 넓은 간격을 유지하고 교통로상의 중요지점에 하나씩 배치되는 형태로 관찰된다. 백령성에서 탄현성까지는 약 7km, 탄현성에서 용계산성까지는 약 5km 거리에 배치되어 있다. 산성에서 다음 산성까지의 교통로는 깊은 계곡부를 따라 이동하게 되고 양쪽으로 높은 산 사면이 자리하고 있는 지형이다.

금산 북쪽의 산성군은 촘촘한 성곽배치와 보루를 활용한 방어진을 구축하는 현황과 달리 금산 서쪽의 ⑥번 교통로는 3개의 성곽을 긴 간격에 배치하고 주변에 연계할 수 있는 보루 및 추가적인 산성의 현황은 고지형분석이나 현장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백령산성은 둘레 207m로 성내 목곽고가 확인되었고 탄현산성은 둘레가 약 350m로 보고되었다. 용계산성은 둘레가 493m이고 발굴조사를 통해 집수시설 2기, 건물지 1기가 확인되었다.

⑥번 교통로 상에 배치된 3기의 산성은 큰 규모는 아니나 집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구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한 기본 시설을 배치되었다. 또한 금산 북쪽의 산성과 달리 연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산성과 보루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금산 서쪽에 배치된 산성은 주요 지점에 1개의 산성으로 거점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축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 IV. 맺음말

2023년부터 진행된 시굴조사와 심화연구는 백령성 국가유산 지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문지 구조의 명확한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연구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남문지와 남서측 성벽구간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해 현재의 남문지는 초축시기의 성벽으로

최초 축성시 현문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백령성과 주변성곽에 대한 심화연구에서는 금산의 북쪽지역과 서쪽지역의 성곽배치와 교통로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금산 북쪽지역은 거점성으로 판단되는 둘레 600m이상의 4개 성곽을 중심으로 교통로가 이어지고 있고, 이 교통로를 따라 성곽이 배치되어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각각의 성곽이 일정 간격을 이루고 있어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향산현에서 진동현을 거쳐 논산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길목에는 금산의 대다수의 성곽이 밀집되어 있는 현황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백령성이 배치되어있는 진잉을군에서 남쪽으로 돌아내려가 백령성을 거치는 교통로상에는 백령성-탄현성-용계산성이 배치되어 있고 협곡을 벗어나 논산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모촌리산성(신흥리산성)이 배치되어 있는 현황이다. 금산 북쪽의 성곽 밀집지역에 추가적인 산성의 현황은 확인되고 있지 않으나 백령성과 용계산성에서 목곽고 및 집수지 다수의 수혈 등이 확인되고 있고 문지를 개설한 독립적인 성곽임과 동시에 다량의 기와편 등의 사례로 볼 때 자구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한 성곽으로 축조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백령성은 성왕 사후 위덕왕 6세기 후반 대신라 방어와 진출에 필요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축성된 성곽으로 판단된다. 또한 여타의 백제성에 비하여 잔존상태가 매우 우수하고 ‘탄현’이라는 역사적 사건 한 가운데 위치한 유적이다. 백제 단일시기에 축성과 폐성이 이루어졌으며 성곽 축조기술의 전파와 발전계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고고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



## “금산 백령성 관련 조사·연구 성과”에 대한 토론문

이 훈 (공주대학교역사박물관)

금산 백령성은 충남 금산군 남이면 栢嶺(잣고개)에 위치한 표고 430m의 산 정상부를 둘러싼 둘레 207m의 테피식 석축 산성이다.

백령성에 대한 조사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주관 아래 지표 및 시굴조사가 2003년에 시작되었으며, 2004~2005년에 1·2차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성의 구조와 내부시설이 확인되었다.

2020년에는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충남기념물 제83호로 지정되어 있는 백령성을 국가유산으로 승격지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뿐만 아니라 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진행된 3차 시굴조사와 심화연구는 그동안 논란이 된 ‘백제 사비기 현문의 구조를 지닌 성곽 유적’이라는 부분을 보완하고, 주변 백제 성곽과의 연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조사 연구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을 중심으로 진행해 왔으며, 백령성과 관련하여 많은 자료의 축적과 연구성과를 보여 백제사연구에 기여한 바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이 발표문에 대해서는 초기 백령성의 발굴조사에 참여하여 함께 고민하고 연구했던 연구자로서 원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산성은 주변에 위치한 논산·무주·대전·영동 등지와 연결되는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660년 김유신이 백제 정벌을 위해 금산지역을 관통하면서 거쳐간 ‘탄현’으로 비정될 만큼”(12쪽)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둘째, 3차 시굴조사 결과 “현재의 남문지는 초축시기의 성벽이며 최초 축성시 현문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28~29쪽) 그를 통해 “성곽 축조기술의 전파와 발전계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고고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29쪽)고 하였는데 백령성의 현문식 구조가 백제 성곽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

셋째, 백령성을 국가유산으로 지정하고 문화유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 연구자들의 학술적 논의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관심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도 필요하다. 금산 백령성의 전반적인 조사 연구를 주관하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입장에서는 향후 어떤 노력과 계획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제2주제

# 금산 백령산성의 축조 시기와 운영 주체



강 종 원  
(국립한밭대학교)

I. 머리말

II. 백령산성의 축조 시기

III. 백령산성의 운영 주체

IV. 맺음말



## 금산 백령산성의 축조 시기와 운영 주체

강 종 원 (국립한밭대학교)

### I. 머리말

백령산성은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 栢嶺(잣고개)에 위치한 백제시대 산성이다. 백령산성은 둘레 207m의 소규모 산성이지만 발굴조사를 통해 성곽의 축조방식과 내부시설에 대한 구조적 특징이 파악되고, 다양한 내용이 새겨진 銘文瓦를 비롯해 많은 기와·토기 등이 출토되어 축성 주체와 축조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산성이다. 특히 명문와는 간지와 지명, 기와의 생산과 공급 관계를 보여주는 내용 등이 새겨져 있어 백제산성 연구뿐만 아니라 사비기 지방통치체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고고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백령산성의 발굴성과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검토가 이루어졌다. 축조 시기와 명문의 성격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연구 내용은 백령산성의 구조와 축조시기(강종원 2004a ; 최병화 2004 : 2007 : 2021 ; 김병희 2021), 명문의 내용과 간지의 연대에 대한 비정(강종원 2004b : 2009 ; 손환일 2009 ; 문동석 2010 ; 이병호 2013 ; 최인선 2013 ; 이재철 2014 : 2015 ; 강종원 2021 ; 이진식 2023)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부분적으로는 금산지역의 역사 지리적 성격(장창은 2017 ; 전덕재 2018)이나 백제 지방통치체제(김영심 2007a : 2007b ; 이병호 2013, 김수태 2022) 등에 관한 검토도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축성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며, 축성의 주체와 백제 군사조직체계 속에서 백령산성 진수병의 성격과 지휘체계 등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백령산성의 축조 시기를 재검토해 보고, 산성의 운영 주체 문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명문와의 간지명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각 간지가 나타내는 시기의 정국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백령산성의 축조 시기를 비정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백제 지방통치체제와 사비기 군사운용에 관한 검토를 통해 축성 주체와 군사 운용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백령산성의 축조 시기

금산 백령산성은 성곽의 구조와 목곽시설, 출토유물 등을 통해 축조 및 운영 시기를 비교적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백제시대 산성이라는 점에서 학술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백령산성의 역사적 성격을 명확하게 밝히는데 있어서 축조 시기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성의 축조 시기는 성곽의 축조방식과 구조, 그리고 출토유물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백령산성은 발굴조사 결과 성벽의 축성 구조, 문지의 구조와 입지, 내부시설(목곽고 등), 그리고 토기와 기와(명문와) 등을 통해 백제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지만 성곽의 구조는 삼국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이 많아 축성 주체와 시기를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축성 주체와 시기는 출토유물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백령산성에서는 토기편을 비롯해 다수의 기와, 철기류, 목간자료 등이 출토되었다. 그런데 출토유물의 편년적 범위가 특정시기에 한정되어 있고 간지명 인명와가 다수 출토되어 축성 주체와 축조 시기를 파악하기에 용이하다는 특성이 있다.

먼저, 토기류의 경우 완형은 적고 대부분 파편으로 확인되어 편년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토기류의 경우 모두 백제시대 토기만 확인되고 있으며, 주변지역에서 조사된 현황으로 볼 때 7세기로 추정되고 있다(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금산군 2007, 303~308쪽).

출토유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와는 등문양, 분할방식, 통쪽와통의 사용 등 백제고지에서 출토되는 기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다만 기와의 제작기법만으로는 제작 시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백령산성에서는 3종류의 간지명 인명와가 출토되어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간지명 인명와를 중심으로 산성의 축조 시기를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백령산성에서 출토된 간지명 인명와는 모두 3종류이다. ‘丙辰瓦 栗峴’, ‘耳淳辛 戊午瓦’, ‘丁巳瓦 耳淳辛’ 등이다. ‘丙辰瓦 栗峴’명 인명와는 대부분 목곽고 안에서 출토되었다. 좌서로 3자, 2자가 종서되어 있는데, ‘栗峴’ 다음에 ‘丿’와 같은 삐침 형태의 자획이 보이는 것도 확인된다. 이를 등호로 보아 ‘栗峴峴’(이병호 2013, 73쪽) 또는 행정단위인 ‘栗峴縣’(손환일 2009, 137쪽)으로 비정하기도 한다. 그런데 삐침 ‘丿’의 경우 인위적으로 각인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도 1]의 우측 인명와에서는 삐침 형태의 자획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등호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丙辰瓦 栗峴’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도 1】‘丙辰瓦 栗峴’명와

‘耳淳辛 戊午瓦’는 세로로 3자씩 2행으로 종서했으며, 일부는 명문이 모두 지워져 보이지 않는다. 1점은 세로 2행의 명문내용 사이에 세로로 시계침과 같은 형태의 문양이 찍혀있는 것도 있다. 첫 글자 ‘耳’는 가운데 가로획 하나가 불분명하지만 ‘丁巳瓦 耳淳辛’의 경우 ‘耳’자가 분명하게 확인되므로 ‘耳’로 볼 수 있다. 그리고 2번째 글자의 경우 ‘淳’·‘停’·‘淳’·‘傳’ 등으로 읽힐 가능성이 있는데, [도 2]의 좌측 인명와를 보면 앞의 부수를 ‘丿’으로 볼 수 있어 ‘淳’으로 읽는 것이 보다 가깝다. 3번째의 글자는 ‘辛’자이다.



【도 2】‘耳淳辛 戊午瓦’명와

‘丁巳瓦 耳淳辛’은 세로로 3자씩 2행으로 종서하였다. 이 명문와는 ‘耳淳辛 戊午瓦’와는 간지의 위치가 다르다. ‘耳’자는 명확하지만 ‘淳’자의 부수는 ‘丿’에 가까워 ‘停’자로 읽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도 2]의 ‘耳淳辛 戊午瓦’의 경우 ‘丿’에 가깝기 때문에 ‘丁巳瓦 耳淳辛’의 경우에도 ‘淳’으로 보는데 문제는 없다. ‘辛’자는 하단부에 가로획이 3개이지만 ‘辛’자로 파악된다(손환일 2009, 139쪽).



【도 3】‘丁巳瓦 耳淳辛’명와(右 : 3차 발굴조사)

백령산성에서 출토된 명문와의 간지는 ‘丙辰’·‘丁巳’·‘戊午’로 각 1년씩 차이가 있어 3년간에 걸쳐 기와를 제작해 공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개의 간지를 통해 기와의 제작 시기를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백령산성의 구조와 공반유물로 볼 때 산성의 축조 시기는 백제 사비기로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사비기를 전후하여 이와 같은 간지명이 확인되는 연대로는 536년(성왕 14년)·537년(성왕 15년)·538년(성왕 16년), 596년(위덕왕 43년)·597년(위덕왕 44년)·598년(위덕왕 45년), 그리고 656년(의자왕 16년)·657년(의자왕 17년)·658년(의자왕 18년) 등이 있다.

[표 1] 백령산성 인명와 간지와 비정연대

간지명	비 정 연 대		
丙辰	536년(성왕 14)	596년(위덕왕 43)	656년(의자왕 16)
丁巳	537년(성왕 15)	597년(위덕왕 44)	657년(의자왕 17)
戊午	538년(성왕 16)	598년(위덕왕 45)	658년(의자왕 18)

산성의 구조와 출토유물을 통해 백령산성이 축조되어 운영된 시기는 사비기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축조 시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해서는 백령산성이 축조될 당시의



역사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금산 백령고개는 험준하고 협소하여 일상적인 교통로로서는 적합하지 않아 특정한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축성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백령산성은 지리적 위치로 보아 신라와의 관계 속에서 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시의 제라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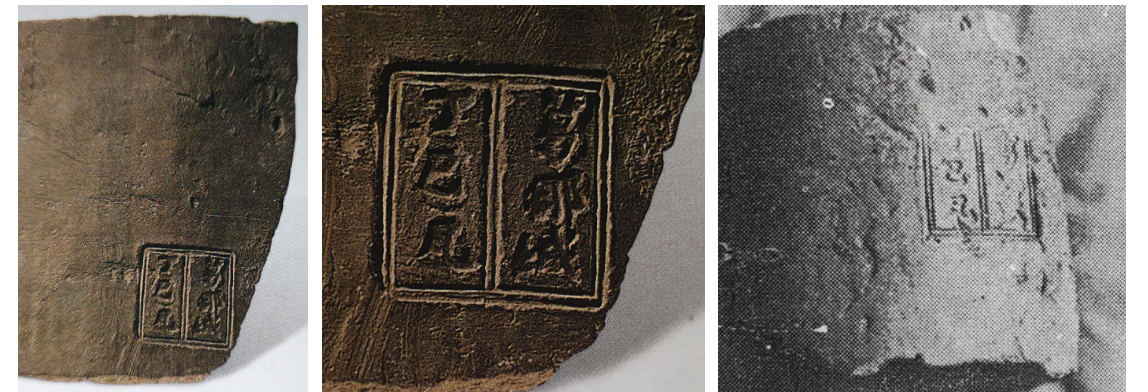
먼저, 536·537·538년은 성왕 14·15·16년에 해당된다. 이 시기는 성왕의 사비천도 시기와 중첩된다. 성왕은 재위 16년인 538년 봄에 사비로 천도하였다.<sup>1)</sup> 사비도성의 조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부소산성에서 출토된 ‘대통’명 인장와를 통해 527~529년경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삼국사기』백제본기 성왕조를 보면, 성왕 14·15년의 기록은 보이지 않아 사비로 천도하는 과정이나 당시의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성왕 16년 봄에 천도한 사실로 볼 때 성왕 14·15년은 천도를 위한 준비로 변경지역에 대한 축성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성왕대는 고구려와 대립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신라와는 동성왕대 맺어진 우호관계가 표면적으로는 지속되고 있었다.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성왕 3년(525)과 26년(548년)의 기록이다.<sup>2)</sup> 백제는 성왕 3년에 신라와 서로 사신을 교환하였으며, 26년에는 고구려가 한강 북쪽의 독산성을 공략하자 신라에 원병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에 신라는 3천의 군사를 보내 백제를 도와주었다.

백령산성이 위치한 곳은 지리적으로 신라로 진출할 수 있는 교통로에 해당되므로, 성의 축조도 신라를 방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신라와 군사적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상황에서 주요 교통로에서도 벗어난 외진지역에 백령산성을 축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물론 신라와 혼인 및 군사적 교류관계에 있었던 동성왕대의 경우에도 사정성을 축조하고 탄현에 목책을 세웠으며, 성왕 4년에는 사정책을 세우는 등 신라에 대한 방비를 한 사실이 있다.<sup>3)</sup> 그렇지만 무오년은 성왕이 사비로 천도하는 해(538년)이기도 해서 당시의 신왕도를 정비하기에 여념이 없었을 것이다. 논산 황화산성과 부여 쌍북리에서도 ‘葛那城 丁巳瓦’명 인명와가 확인되었는데, ‘丁巳’년을 성왕대로 추정한 사례가 있지만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연대를 특정하는데 한계가 있다(홍재선 1983, 43~45쪽 ; 국립부여박물관 2002, 70쪽).

1) 『삼국사기』 권26, 성왕 16년, 「移都於泗沘[一名所夫里]國號南扶餘」.

2) 『삼국사기』 권26, 성왕 3년·26년조.

3) 『삼국사기』 권26, 동성왕 20년·23년조, 성왕 4년조.



【도 4】 부여 쌍북리(左,中)와 논산 황화산성(右) 출토 인명와(‘葛那城 丁巳瓦’)

다음은 596·597·598년으로 위덕왕 43·44·45년이다. 위덕왕은 관산성전투에서 전사한 성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특히 관산성전투는 위덕왕 자신이 태자의 신분으로 직접 군사를 이끌고 수행하였지만 성왕의 전사와 3만에 이르는 대군의 죽음 등 참패하였다.<sup>4)</sup> 관산성전투 이후 신라는 대전-금산의 일부지역까지 진출하였다. 대전 주산동고분군과 계족산성에서 출토된 토기의 편년이 6세기 중후반에 비정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계족산성의 경우 조영주체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박순발 1998 ; 심정보 2004), 일시적으로 신라에 의해 점유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김종만 2019, 368~371쪽). 그리고 금산 추부면 장대리에서 신라계 토기를 반출하는 고분군이 확인되었다. 장대리고분군은 6세기 후반 경부터 7세기 전반까지 조성된 것으로 편년된다. 장대리고분에서는 단각의 유개고배와 인화문이 있는 뚜껑·부가구연장 경호 등의 신라토기가 출토되었다. 따라서 554년 관산성 패전 이후 대전-금산 일대에 신라의 영향력이 미쳤던 사실을 알 수 있다(성정용 2002, 71쪽). 그런데 위덕왕이 재위 24년(577)에 신라의 서변을 공략하자 신라군은 백제군을 일선 북쪽에서 쳐서 3,700명을 참획하고 내리서성을 쌓아 방비하였다.<sup>5)</sup> 전투에서 백제군 3,700명이 죽거나 사로잡혔다는 것으로 보아 위덕왕이 대규모의 군사를 동원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전쟁에서 패배하였으며, 백제는 위덕왕 26년(579)에 웅현성과 송술성을 쌓아 신라의 산산성·마지현성·내리서성의 길을 차단하고자 하였다.<sup>6)</sup> 신라가 백제군을 격파한 일선은 구미시 선산으로 비정되는데, 당시 신라가

4) 『삼국사기』 권4, 진흥왕 15년조.

5) 『삼국사기』 권4, 진지왕 2년조 및 권27, 위덕왕 24년조.

6) 『삼국사기』 권4, 진지왕 4년조.



옥천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볼 때 백제는 금산-영동에서 추풍령로 방면을 통해 공략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백제는 추풍령로 방면을 방비할 수 있는 위치에 웅현성과 송술성을 축조하였을 것이다.<sup>7)</sup>

관산성전투와 일선전투 등에서 패함으로써 금산지역은 신라와의 국경지대로서 전략적으로 중요해지게 되었을 것이다. 백령산성은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와 역평리의 경계에 위치하는데, 서북쪽과 남동쪽으로 이어지는 하천을 따라 형성된 교통로를 조망할 수 있다. 백령산성이 위치한 지역은 탄현의 남쪽으로 매우 궁벽진 곳인데, 이곳에 보루성 산성을 축조하였다는 것은 당시 신라의 군사적 압력이 금산지역에 매우 강하게 미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신라가 금산지역을 통해 사비왕도의 동남부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을 감시하고 백제가 영동 방면으로 진출하는데 필요한 전초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백령산성을 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8)</sup>

사비기에 이들 간지명이 확인되는 마지막 시기는 656·657·658년으로 의자왕 16·17·18년이다. 의자왕 말기는 충신 성충의 죽음과 왕서자 41인의 좌평 임명, 그리고 도성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괴변 등으로 백제 멸망의 징조가 포착되고 있는 등 정치적·사회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다.<sup>9)</sup> 특히 의자왕 16년에는 성충이 외침시 침현(탄현)의 중요성을 충언하였지만 이를 무시하였다. 탄현의 위치는 대전 식장산 또는 마도령, 금산 진산, 금산·고산계의 탄치 등에 비정되는데(강종원 2017, 95쪽), 신라 5만군과 백제군의 최초 전투가 황산벌에서 벌어진 사실로 볼 때 금산 진산으로 비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의자왕은 성충의 충언에도 불구하고 탄현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의 침략을 방비하기 위해 금산지역에 백령산성을 축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또한 의자왕대 신라와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을 보면 매우 광범위하며, 공략 방식도 대부분 신라의 영역 내부로 침투해 주요 거점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의자왕이 공략한 성의 위치를 보면, 미후성 등 40여 성은 낙동강 이서지역에 비정되며, 대야성은 합천, 당항성은 경기도 남양, 무산성은 무주군 무풍면, 감물성은 김천, 동잠성은 구미 등에 비정되고 있다(충청남도역사

7) 위덕왕 26년에 쌓은 2성 가운데 웅현성의 위치는 보은군 관내(김창석 2009, 82쪽) 또는 옥천군 청산에서 상주 방향(장창은 2017, 119~120쪽) 등에 비정되는데, 추풍령로를 감시할 수 있는 후자의 위치에 축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김정호의 <청구도>와 <대동여지도>에 보면 청산에서 상주로 가는 중간지점에 熊峴의 명칭이 확인된다.  
8) 백령산성은 6세기 중반 이후 신라의 추부-진산 방면 진출이 답보상태에 빠짐에 따라 새로운 공격 경로를 개척하는 상황을 대비할 목적에서 쌓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장창은 2017, 128쪽).  
9) 『삼국사기』 권28, 의자왕 16년·17년·19년·20년조.

문화연구원 2008, 231~236쪽). 그리고 요거성은 상주, 옥문곡은 상주와 합천 사이, 석토성은 진천(?), 도살성은 증평(양기석 1999, 371쪽), 독산성은 성주 등에 비정된다.<sup>10)</sup> 그 외에 의자왕 4년 김유신이 빼앗은 7성은 김유신전(상)에 보이는 가혜성, 성열성, 동화성 등 7성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가혜성은 거창 등에 비정된다. 이와 같이 의자왕은 낙동강 이서지역과 김천·구미·성주·합천 등 보다 신라 내륙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가 다방면에 걸쳐 주요 거점성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신라와 전쟁을 벌였다. 또한 의자왕대는 15년에 마천성에 대한 중수기록<sup>11)</sup> 이외에는 축성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않으며, 당시 대신라전의 양상으로 볼 때 백령산성과 같이 소규모의 보루성 산성을 주요 교통로가 아닌 지역에 축조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하겠다.

따라서 인명와의 간지명 ‘丙辰’·‘丁巳’·‘戊午’가 나타내는 연도는 596·597·598년으로 위덕왕 43·44·45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강종원 2004b, 180~181쪽). 명문와의 서체가 북조 필법이 사용되었던 6세기 필적이라는 점(손환일 2009, 143쪽)도 참고된다. 사비기의 지방통치 문제, 문자기와의 형태와 확산과정을 근거로 이들 간지의 연대를 의자왕대로 보는 견해도 있다(김영심 2007b, 248~249쪽). 그런데 공반된 ‘丙’자명 인장과나 ‘上卩’명과 등으로 볼 때 기와 생산에 중앙의 공인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중앙에서 나타나는 제작 요소가 동시기에 지방에서도 확인될 수 있으며, 동일 요소에 대한 중앙과의 시기차를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리고 인장과의 명문은 글자가 많은 것에서 적은 것으로 간략화 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김환희 2014, 95~96쪽).

최근에 흑석동산성에서 백령산성 출토 명문와와 같은 형식의 인명와가 출토되어 간지의 연대를 추정하는데 참고된다. 흑석동산성은 대전 봉곡동 고무래봉(해발 197m) 정상에 위치하며, 둘레 479m의 테뢰식 석축산성이다. 2022년과 2023년 발굴조사 결과 추정동문지(동벽)와 남동문지가 확인되었으며, 유물은 다량의 기와류와 소량의 경질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인명와의 내용은 ‘丙辰瓦 存丈(文)’명이다(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22). 흑석동산성은 백제시대 진현성 혹은 정현성으로 비정되는데, 신라가 옥천에서 대전의 동남부 지역을 거쳐 황등야산군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다. 또한 흑석동산성은 백제부흥운동기에는 부흥군의 거점으로도 활용되었으며,<sup>12)</sup> 신라가 웅진으로 진출하는데 있어 중요한 교통로였다. 흑석

10) 가혜성을 고려, 그리고 나머지 6성의 위치를 합천·거창·의령 일대로 보기도 한다(이문기 2016, 216~217쪽).  
11) 『삼국사기』 권28, 의자왕 15년조.  
12) 『구당서』 권199, 열전149 등이 백제조.



동산성에 백령산성과 동일한 형식의 인명와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백제가 금산과 대전 일대의 관방체계를 같은 시기에 정비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지역에 신라의 군사적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미쳤던 시기는 관산성 패전 이후였다. 따라서 흑석동산성 출토 인명와는 백령산성의 축조 시기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sup>13)</sup> 다만 산성의 체성부 축조 시기는 인명와에 표기된 간지의 시기 보다는 빠르다고 볼 수 있다. 금산지역에 신라의 군사적 압력이 강하게 미쳤던 시기는 554년 관산성 패전 이후였기 때문에 산성 자체는 554년 이후에서 멀지않은 시점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위덕왕 말기에 성 내부 시설물 등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도 5】 흑석동산성 출토 인명와(‘丙辰瓦 存文(文)’)

13) 흑석동산성의 체성부는 토축과 석축으로 조성되었는데, 토성벽과 석성벽의 차이는 축조 시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22, 35~36쪽). 인명와는 동벽의 토축성벽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간지명의 연대는 흑석동산성의 초축 시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중수 시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III. 백령산성의 운영 주체

#### 1. 축성 주체 문제

백령산성은 백제가 신라를 방비하기 위해 축조한 산성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면 백령산성은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축조되었을까? 백령산성의 운영 주체 문제는 산성이 위치한 행정구역과 축조를 위한 역역 동원체계를 통해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비기 지방통치체제는 방군성제였다. 방군성제는 전국을 5方으로 구획한 후 방 아래 郡을 두고, 다시 군 아래에 城을 편제시키는 제도였다. 5방성의 위치는 동방은 得安城으로 은진, 남방은 久知下城으로 구례 또는 남원·광주, 북방은 熊津城으로 공주, 중방은 古沙城으로 고부, 서방은 刀先城으로 서산·당진 또는 대흥에 비정된다(박현숙 1996, 127쪽). 군은 37군이 있었는데, 기본 성격은 방과 유사하나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방령의 지휘를 받았던 것으로 생각되며, 각 군에는 다시 5~6개의 성이 편제되어 있었다. 지방통치조직의 최하위 단위는 성이었으며, 200성이 있었다고 한다.<sup>14)</sup> 성은 縣으로도 표기되고 있으며, 성에 파견된 지방관은 道使 또는 城主라고 하였다.

그럼 백령산성이 위치한 지역은 행정구역상 어디에 편제되어 있었을까. 사비시대 금산지역의 행정구역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매우 소략하여 그 변화상을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삼국사기』지리지에 기록된 행정조직은 사비기에 정비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A-1. 進禮郡은 본래 백제 進仍乙郡으로,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는데, 지금도 그대로 쓴다. 영현이 셋이다. 伊城縣은 본래 백제 豆尸伊縣으로,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는데, 지금의 富利縣이다. 淸渠縣은 본래 백제 勿居縣으로,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는데, 지금도 그대로 쓴다. 丹川縣은 본래 백제 赤川縣으로,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는데, 지금의 朱溪縣이다.(『삼국사기』권36, 잡지5 지리3)

2. 黃山郡은 본래 黃等也山郡으로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는데, 지금의 連山縣이다. 영현이 둘이다. 鎭嶺縣은 본래 백제 眞峴縣[眞은 貞이라고도 썼다]으로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는데, 지금의 鎭岑縣이다. 珍同縣은 본래 백제의 현이었는데, 경덕왕이 州郡의 이름을 고치면서 지금까지도 모두 그대로 쓴다.(『삼국사기』권36, 잡지5 지리3)

14) 『삼국사기』 권28, 의자왕 20년조.



백제시대 금산지역의 행정구역은 진잉을군과 황등야산군 소속의 진동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진잉을군은 금산읍, 진동현은 진산면 등에 해당한다. 그리고 진잉을군의 영현이었던 두시이현은 고려시대 부리현으로 개칭하였는데, 이를 무주군 부남면에 비정하기도 하지만(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8, 436쪽) 금산의 부리면으로 보는 견해(지원구 2022, 86~87쪽)도 있지만 분명하지 않다. 물거현은 진안군 용담면, 적천현은 무주군 무주읍에 비정된다. 현재의 금산군 영역은 백제시대에는 금산읍을 중심으로 진잉을군, 진산면을 중심으로 황등야산군 영현인 진동현 등 2개의 행정구역으로 편제되어 있었으며, 동방성의 관할이었을 것이다.

백령산성이 위치한 지역은 지리적으로 금산읍·남일면 일대와 진산면 등에서 진출입이 가능하지만 역평천과 봉황천을 따라 남일면 일대로의 이동이 보다 용이하다. 따라서 백령산성 일대는 행정구역상으로는 황등야산군 소속의 진동현 보다는 진잉을군에 편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백령산성에서 출토된 명문와를 통해 나노성과 울현, 이순신 등의 명칭이 확인된다. 나노성은 성(현) 단위의 행정단위였을 가능성, 울현과 이순신은 그 예하의 자연촌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이병호 2013, 83~84쪽).<sup>15)</sup>

다만 진잉을군이나 다른 군의 예하에 나노성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나노성이 성(현) 단위의 행정단위가 아니었거나 또는 금산지역이 변경지역이었기 때문에 국적의 변동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성(현) 단위 아래의 보다 작은 성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경우 나노성은 진잉을군 또는 그 예하의 성(현)에 예속되었을 것이다. 나노성이 역역동원의 행정주체였다고 볼 경우 나노성이 진잉을군의 치소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백령산성도 나노성의 행정권역에 편제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청구도>와 <대동여지도>를 보면 상주 서쪽에 위치한 봉황산 남쪽에 栗峴, 울현 남쪽에 熊峴의 지명이 확인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8 상주목 역원조에 「栗院(在州西三十三里)」라고 하여 울원이 州의 서쪽 33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백제가 위덕왕 26년에 쌓은 웅현성의 위치를 웅현에 비정할 수 있다면 백령산성 인명와에서 확인된 지명 ‘栗峴’을 상주 서쪽에 표기된 ‘栗峴’에 비정하는 것은 무리일까? 위덕왕이 579년에 웅현성과 송술성을 쌓아 일정 기간 동안 그 주변지역에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울현을 은진현의 栗嶺川에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이건식 2023, 30~31쪽).

15) 울현과 이순신을 행정촌으로 이해하는 견해(김수태 2022, 152~155쪽)도 있지만 나노성이 중심이 되어 주변 지역의 촌락에 대한 인력동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그럼 백령산성을 축조한 주체는 누구였을까? 백제에서 산성의 축조는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 경우 대부분 지역주민이 동원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삼국사기』백제본기의 축성기록 가운데 지역주민을 동원하여 축성한 사례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B-1. 봄에 나라 안 사람으로 나이 15세 이상을 징발하여 국경을 지키는 관방을 설치하였는데, 청목령에서부터 북쪽으로는 팔곤성에 닿았고 서쪽으로는 바다에 이르렀다.(『삼국사기』권23, 진사왕 2년)

2. 가을 7월에 동부와 북부 두 부의 사람으로 나이 15세 이상을 징발하여 사구성을 쌓았는데, 병관좌평 해구에게 공사를 감독하게 하였다.(『삼국사기』권23, 전지왕 13년)

3. 가을 7월에 북부 사람으로 나이 15세 이상을 징발하여 사현성과 이산성 두 성을 쌓았다.(『삼국사기』권26, 동성왕 12년)

4. 봄 2월에 왕이 한성으로 행차하여 좌평 인우와 달솔 사오 등에게 명령을 내려 한강 북쪽의 주·군의 백성으로서 나이 15세 이상을 징발하여 쌍현성을 쌓게 하였다.(『삼국사기』권26, 무령왕 23년)

축성 기록은 백제본기에서 다수 확인되지만 사료 B는 지역민을 동원한 사례만을 제시한 것이다. 진사왕 2년(386) 15세 이상을 징발하여 관방을 설치하였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전지왕 13년(417) 사구성 축조, 동성왕 12년(490) 사현성과 이산성의 축조, 무령왕 23년(523) 쌍현성의 축조 등이 확인된다. 전지왕 13년 사구성 축조시에는 병관좌평 해구로 하여금 공사를 감독하게 하였으며, 무령왕은 직접 한성으로 행차하여 좌평과 달솔로 하여금 지역민을 동원하여 산성을 축조하였다. 축성에 중앙정부가 직접 관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명문와가 대부분 부여와 익산 등에서 출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당시 국경지대였던 백령산성에서 다양한 유형의 명문와가 출토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된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백령산성이 위치한 지역의 행정관서에 공인을 파견하여 축성에 필요한 기와를 생산하여 공급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백령산성에서 출토된 명문와 가운데 ‘上水瓦作…’명와의 내용을 통해 기와가 나노성에서 제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복수의 지명이 확인되고 있어 이들 지역민들이 기와 생산에 참여하여 백령산성에 공급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최인선



2016, 56쪽). 그런데 ‘栗峴’·‘耳淳辛’명의 경우 도장으로 찍었으며, 제작시기를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3지역에서 각기 따로 기와를 생산하여 백령산성에 공급하였을 가능성과 상급 행정기관인 나노성에서 율현과 이순신 지역의 인력을 동원해서 기와를 생산하여 공급했을 가능성이 있다.

기와의 생산이나 축성 등의 경우 역역의 부과는 군 단위로 이루어졌으며, 그 산하의 각 성을 통해 시행되었을 것으로 파악된다(김영심 2005, 32쪽). 그 경우 나노성이 기와 생산과 공급의 행정 주체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촌이 국가의 각종 수취를 부담하는 말단 단위였으므로 나노성에서 율현과 이순신 지역민들을 시기를 달리하여 동원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율현에서는 병진년에, 이순신에서는 무오년과 정사년에 각각 지역민을 동원하여 백령산성에 공급할 기와를 생산하였다고 볼 수 있다(강종원 2021, 80~81쪽). 특히 명문와의 경우 국가가 관여하는 형태로 축성된 성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龜田修一 2013, 95~96쪽). 이러한 사실은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국경지대에 대한 축성이 단행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명문와가 백제-신라간 국경지대라고 할 수 있는 변경지역을 중심으로 출토되고 있는 점(심상욱 2010, 44쪽)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대전 흑석동산성과 논산 황화산성에서 같은 형태의 인명와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도 국경지대의 관방에 대한 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진 양상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백령산성에서 조사된 목곽고와 대전 월평동산성(국립공주박물관·충남대박물관 1999), 위례산성(천안시·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8) 등에서 조사된 목곽고의 규모와 구조 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 목곽고는 크기와 건축방법 등에 있어서 서로 유사성을 보이는데, 이는 목곽고의 건축에 일정한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즉, 국가차원에서 공인을 파견하여 건축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백령산성도 중앙의 관리 하에 지역민을 동원하여 축조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축성작업은 적어도 성 단위를 뛰어넘는 ‘군’단위 정도에서 행해졌을 것이라는 점(김영심 2007a, 78쪽)에서 볼 때 백령산성은 진잉을군에 편제된 백성들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율현을 〈청구도〉와 〈대동여지도〉 등에 표기된 상주 서쪽의 율현과 같은 지역으로 볼 경우 일시적으로 백제의 영향력이 미치는 변방 지역의 백성들까지 동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령왕 23년 한강 북쪽의 주군 백성들을 동원하여 쌍현성을 축조한 사례가 참고된다.

## 2. 운용 주체 문제

백령산성은 중앙의 관리 감독 아래 지역민을 동원하여 축조하였을 것으로 파악된다. 백령산성은 군사적 목적으로 축성되었기 때문에 일정한 수의 군사가 주둔하였을 것이다. 그럼, 산성에 주둔한 군사들의 소속과 지휘체계는 어떠했을까? 백제는 지방의 행정구역이 각각 軍管區로 기능하였고, 왕도 5부의 달솔이나 지방관인 方領·郡將이 군사지휘관적 성격을 겸비한 병영국가적 성격을 띠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이문기 1998 : 2007, 293쪽 ; 박현숙 1996, 153~154쪽 : 1998). 사비기 군사체계와 관련된 자료는 거의 없지만 방군성의 지방통치제도와 관련된 중국측 자료를 통해서 조직과 병력 관계를 일부나마 파악해 볼 수 있다.

C-1. 도읍에는 만 家가 있으며 나누어 5部를 만들었으니 上部·前部·中部·下部·後部라고 하며, 군사 500명을 거느린다. 5方에는 각각 方領 1명이 있는데, 달솔로 삼았다. 군에는 將이 3명 있는데, 덕솔로 삼았다. 방은 군사 1,200명 이하 700명 이상을 거느린다. 성 내외의 백성과 여러 작은 성들은 모두 나뉘어 이에 예속되었다(『周書』권49 열전41 이역(상) 백제)

2. 도성의 인구는 1만 호이고, 5부로 나누어 上部·前部·中部·下部·後部라 한다. 部마다 巷이 5개씩 있어서 土人과 庶人이 함께 거주한다. 부 하나에 5백 명의 병사를 거느린다. 5方에는 각기 方領을 한 사람씩 두는데 달솔이 이를 맡고, 方佐가 보좌한다. 방마다 10개의 郡이 있고, 군에는 3명의 장수가 있는데 덕솔이 이를 맡아 1200명 이하 700명 이상의 병사를 거느린다. 城 안팎에 사는 평민들과 여러 작은 성들은 모두 이에 분속된다.(『北史』권94 열전 제82 백제)

즉, 백제의 지방통치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중앙군과 지방군의 존재와 병력의 수, 지휘계통 등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된다. 이들 내용은 그 구체성으로 볼 때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전해졌을 것으로 파악되며, 위덕왕대의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자료 C를 통해 백제 군사조직과 군사력의 전체적인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왕도 5부의 각 部에 500명씩 모두 2,500명, 각 方에는 700~1,200명씩 모두 3,500~6,000명 정도의 상비병의 존재가 확인된다. 그리고 각 郡에 장군 3인이 배속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郡이 갖는 군사조직으로서의 성격을 보여주는데, 郡에도 700~1,200명의 병력이 소속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김주성 1992, 43쪽). 또한 작은 성들도 이에 분속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방-군-성으로의 지휘계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백제 군사체계는 지방 행정구역과 지방관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며, 지방군은 지역 주민들의 군역을 통해 유지되었을 것으로 파악된다(이문기 2007, 338~340쪽). 그렇지만 지방의 주요 거점에는 상비병인 진수병을 두고 지방관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존재를 파견하여 이들을 지휘했을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특정한 산성의 경우에는 축성 후 중앙에서 직접 지휘관을 파견한 사례가 확인된다. 동성왕 23년 사정성을 축조하고 한솔 비타를 보내 지키게 하였으며, 23년에는 가림성을 축조하고 위사 좌평 백가를 파견하기도 하였다.<sup>16)</sup> 다만 이 경우에는 산성이 특별한 목적 하에서 지리적 요충지에 상당한 규모로 축조되었다는 점에서 모든 산성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백령산성은 207m의 소규모 보루성 산성으로 매우 궁벽진 곳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중앙에서 직접 지휘관과 군사를 파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관방체계상 금산지역이 동방성의 관할에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지휘체통의 최고위 책임자는 동방의 방령이었다고 볼 수 있다.<sup>17)</sup> 그리고 금산지역은 백제시대에는 금산읍을 중심으로 진잉을군, 진산면을 중심으로 진동현 등 2개의 행정구역으로 편제되어 있었는데, 백령산성은 진잉을군의 권역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백령산성에는 진잉을군 소속의 군사가 진수해야만 한다. 지방 행정구역이 군관구로서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554년 관산성 패전 이후 금산지역 일부에는 신라의 영향력이 미치고 국경지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동원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당시 금산지역과 관련하여 제라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기록으로 다음의 내용이 참고된다.

D-1. 마침내 승세를 몰아 백제의 경내로 쳐들어가 악성 등 12성을 함락하고 2만여 명의 목을 베고 9,000명을 사로잡았다. 공을 논하여 官秩 이찬을 더하고 상주행군대총관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또 적 경내로 들어가 진례 등 9성을 쳐서 9,000여 명의 목을 베고 600명을 사로잡았다.(『三國史記』권41, 열전1 김유신 상)

2. 영휘 6년 을묘 9월에 유신이 백제로 들어가 도비천성을 쳐서 이겼다.(『三國史記』권42, 열전2 김유신 중)

16) 『삼국사기』 권26, 동성왕 20년·23년조.

17)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동방령이 방의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에 참여한 사례가 확인되는데(『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5년 12월조), 이때 동원된 군사력은 동방의 직속 군사 이외에 각 군과 성에 편제된 군사들이 대부분 포함되었을 것이다.

앞의 사료 D-1은 김유신전에 보이는 내용으로 648년에 김유신이 의자왕 2년에 빼앗겼던 대야성을 회복하고, 이어 악성 등 12성을 비롯해 진례 등 9성을 빼앗은 사실을 보여준다. 악성의 위치는 알 수 없지만 그 공로로 상주행군대총관에 임명되었다. 그런데 악성 등 12성에 대한 공략시 백제의 경내로 쳐들어갔다고 한 점으로 보아 이 성들이 당시 백제의 통제 하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백제의 경내로 들어가 금산에 비정되는 진례 등 9성을 빼앗았다고 한다.<sup>18)</sup> 당시 김유신이 빼앗은 20여 개의 성이 위치한 지역은 상주를 포함하여 옥천·영동·금산 일대를 포괄하는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김흠운이 조천성을 공격하려고 양산에 군영을 설치했다가 백제군의 공격을 받아 전사한 사실<sup>19)</sup> 등을 근거로 660년에도 조천성을 중심으로 백제와 신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김영관 2010, 131쪽). 그렇지만 김유신이 655년 조천성에 비정되는 도비천성(성주탁 1973, 106~108쪽)을 빼앗은 사실 등으로 보아 영동 양산지역은 신라의 통제 하에 놓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554년 관산성 패전 이후 대전과 금산의 일부지역은 신라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에 노출되었으며, 백제 말기에 금산의 주변지역은 백제와 신라간의 전쟁과정에서 뺏고 빼앗기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따라서 금산지역의 행정체계나 관방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에 대전의 진현현과 금산의 진동현은 황등야산군의 영현이었으므로 군사체계도 황등야산군의 통제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백령산성의 축조와 흑석동산성의 정비가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면 백령산성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동방 소속인 황등야산군의 지휘체계에 편제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논산 황화산성과 대전 흑석동산성에서 같은 형태의 인명와가 확인되고 있는 점도 참고된다. 그렇다면 백령산성에 진수하였던 군사도 황등야산군 소속의 병력으로 동방령의 휘하에 편제된 상비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18) 진례성을 김해 등에 비정하는 견해도 있지만(김병남 2005, 297~298쪽) 당시 김유신의 군사활동으로 볼 때 648년 김유신이 빼앗은 진례성은 금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19) 『삼국사기』 권47, 열전7 김흠운전.



## Ⅳ. 맺음말

금산 백령산성은 백제 사비기에 축조되어 백제 멸망과 함께 폐기되어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백제산성을 연구하는데 표본이 된다. 특히 백령산성은 간지명 인명와를 통해 축조 시기를 비교적 분명하게 비정할 수 있으며, 지역명과 기와의 제작에 관한 명문을 통해 기와의 제작과 공급 관계를 일부나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백령산성에서 출토된 명문와의 간지는 ‘丙辰’·‘丁巳’·‘戊午’로 각 1년씩 차이가 있어 3년간에 걸쳐 기와를 제작해 공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인명와의 간지명 ‘丙辰’·‘丁巳’·‘戊午’가 나타내는 연도는 사비기의 정국상황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볼 때 위덕왕 43·44·45년 즉, 596·597·598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백령산성의 운영 주체 문제는 산성이 위치한 행정구역과 축조를 위한 역역 동원체계를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다. 백제시대에 금산은 금산읍을 중심으로 진잉을군, 진산면을 중심으로 황등야산군 영현인 진동현 등 2개의 행정구역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백령산성은 축성사업이 성 단위를 뛰어넘는 ‘군’단위 정도에서 관리되었을 것이라는 점과 지리적인 접근성으로 볼 때 중앙의 관리 하에 진잉을군과 그 주변지역 백성들을 동원하여 축조하였을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백제의 군사체계는 지방 행정구역과 지방관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그런데 사비기 금산지역은 신라와의 국경지대를 형성하고 있어 군사동원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반면에 대전의 진현현과 금산의 진동현은 황등야산군의 영현이었으므로 군사체계도 황등야산군의 통제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백령산성의 축조와 흑석동산성의 정비가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면 백령산성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동방 소속인 황등야산군의 지휘체계에 편제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면 백령산성에 진수하였던 군사도 황등야산군 소속의 병력으로 동방령의 휘하에 편제된 상비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강종원, 2004a, 「금산 백령산성의 구조와 축조배경」, 『충청학과 충청문화』 3.  
강종원, 2004b, 「금산 백령산성 출토 명문와 검토」, 『백제연구』 39.  
강종원, 2009, 「부여 동남리와 금산 백령산성 출토 문자자료」, 『목간과 문자』 3.  
강종원, 2017, 「백제 사비기 군사 운용체계의 변화와 황산벌전투」, 『백제학보』 22.  
강종원, 2021, 「명문와(銘文瓦)를 통해 본 백령산성」, 『충청학과 충청문화』 30.  
龜田修一, 2013, 「백제 산성과 인각와의 계층성(예찰)」, 『성곽과 기와』, 한국기와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김병남, 2005, 「백제 의자왕 초·중기의 영역 변화」, 『충청학과 충청문화』 4.  
김병희, 2021, 「백제 사비도읍기 금산 백령성의 위상」, 『충청학과 충청문화』 30.  
김수태, 2022, 「사비시대 백제의 자연촌」, 『목간과 문자』 29.  
김영관, 2010, 「660년 신라와 백제의 국경선에 대한 고찰」, 『신라사학보』 20.  
김영심, 2005, 「백제 5방제 하의 수취체제」, 『역사학보』 185.  
김영심, 2007a, 「신출 문자자료로 본 백제의 5부·5방제」, 『한국목간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목간학회.  
김영심, 2007b, 「백제의 지방통치에 관한 몇 가지 재검토-목간·명문와 등의 문자자료를 통하여」, 『한국고대사연구』 48.  
김종만, 2019, 「계족산성 출토유물의 의미」, 『대전역사의 쟁점과 사실(상권)』,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김창석, 2009, 「6세기 후반~7세기 전반 백제·신라의 전쟁과 대야성」, 『신라문화』 34.  
김환희, 2014, 「백제 사비기 인장와의 변천과 제작공정 체계화」,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동석, 2010, 「2000년대 백제의 신발견 문자자료와 연구동향」, 『한국고대사연구』 57.  
박순발, 1998, 「계족산성에 대한 신지견」, 『대전문화』 7.  
박현숙, 1996, 「백제 지방통치체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현숙, 1998, 「백제 군사조직의 정비와 그 성격」, 『사총』 47.  
성정용, 2002, 「금산지역 삼국시대 토기편년」, 『호남고고학보』 16.  
성주탁, 1973, 「조천성의 위치에 대하여」, 『백제연구』 4.  
손환일, 2009, 「백제 백령산성 출토 명문기와와 목간의 서체」, 『구결연구』 22.  
심상욱, 2010, 「백제 인각와에 대하여」, 『목간과 문자』 5.  
심정보, 2004, 「대전관내 산성의 축조와 성격」, 『대전문화』 13.



양기석, 1999, 「신라의 청주지역 진출」, 『문화사학』 11·12·13호.

이건식, 2023, 「백제 지역 출토 기와 명문에 대한 몇 가지 검토와 논산 황화산성 출토 명문과 지명 표기 ‘葛那城’, 𪛗乃, 立乃’의 국어사적 의의」, 한국목간학회 제40회 정기발표회 자료집.

이문기, 1998, 「사비시대 백제의 군사조직과 그 운용」, 『백제연구』 28.

이문기, 2007, 「군사조직과 그 운용」, 『백제의 정치제도와 군사』,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8.

이문기, 2016, 「648·649년 신라의 대백제전 승리와 그 의미」, 『신라문화』 47.

이병호, 2013, 「금산 백령산성 출토 문자기와의 명문에 대하여-백제 지방통치체제의 한 측면-」, 『백제문화』 49.

이재철, 2014, 「금산 백령산성 유적 출토 문자 자료와 현안」, 『목간과 문자』 13.

이재철, 2015, 「금산 백령산성 출토 문자 자료」, 『한국고대 문자자료연구』 백제(상)-지역별, 주류성.

장창은, 2017, 「6세기 중·후반 신라·백제의 각축과 국경선 변천」, 『한국사학보』 67.

전덕재, 2018, 「4~7세기 백제의 경계와 그 변화-경기와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백제문화』 58.

지원구, 2022, 「백제 5방성의 연구」, 고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병화, 2004, 「금산지역 백제산성에 관한 고찰」, 『백제문화』 33.

최병화, 2007, 「금산 백령산성의 구조와 성격」, 『호서고고학보』 17.

최병화, 2021, 「발굴조사를 통해 본 백령산성의 구조와 기능」, 『충청학과 충청문화』 30.

최인선, 2013, 「백제 성곽출토 문자기와」, 『성곽과 기와』, 한국기와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홍재선, 1983, 「논산 황화산성고」, 『고문화』 23.

국립부여박물관, 2002, 『백제의 문자』.

금산군·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22, 『금산 백령산성 II』.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22, 「흑석동산성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시굴·정밀발굴조사」.

충청남도역사문화원·금산군, 2007, 『금산 백령산성-1·2차 발굴조사보고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8, 『백제사자료역주집-한국편 I -』.

## 「금산 백령산성의 축조 시기와 운영 주체」에 대한 토론문

이 병 호 (동국대학교)

오늘 강종원 교수의 발표에서는 금산 백령산성에 대한 발굴에서 출토된 간지명 문자기와를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근거할 때 6세기 말(596~598년)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성곽 축조에 동원된 역역 동원 체계는 진잉을군과 그 주변 지역 백성들을 동원하여 축조하였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백령산성은 신라와의 접경지대에 위치하는 입지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5방성 중 동방성 방령 휘하에 편제된 상비군이 운영의 주체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금산 백령산성과 출토 자료가 갖는 역사성과 학술적인 성격에 대한 매우 중요한 발표라고 할 수 있고, 백령산성이 백제사 연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문을 공부하면서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백령산성의 축조시기를 추정하면서 활용한 간지가 찍힌 문자자료의 연대 추정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발표문 첫머리에서는 백령산성이 성곽의 구조와 목곽시설, 출토유물 등에 근거할 때 축조 시기를 비교적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백제 산성이라는데 학술적인 중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자가 생각하기에는 백령산성이 백제 사비기에 축조된 것은 분명하기만 초축 시기가 6세기 말인지 7세기 중엽인지는 그다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기와와 철기류, 목간, 토기류가 출토되었지만 성곽의 축조 연대를 단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확보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발표자께서는 백령산성에서 출토된 ‘丙辰’·‘丁巳’·‘戊午’ 간지에 대해 596년에서 598년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추정의 근거는 기와 자체나 문자에 관한 고고학적 분석이 아니라 당시 백제사의 전개 과정, 특히 신라와의 전쟁 관련 기록이나 금산지역에서 발굴된 고분과 출토 토기 등 간접적인 자료에 근거하고 있고, 나아가 성곽의 축조 시기와 내부에서 출토된 기와류



의 연대를 동일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백제 문자기와의 변천에 관해서는 공주 반죽동 출토 ‘大通’명 문자기와를 제외하면, 소위 인장와나 인각와로 불리는 사비기 문자기와 가운데 연대를 확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료는 부여 구아리나 관북리 일대에서 확인된 ‘丁巳’명 기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때의 ‘정사’는 597년이나 657년으로 추정되는데, 구아리유적의 우물지에서 출토된 수막새와 비교할 때 597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이러한 문자기와는 수도인 사비도성과 그 인근 가마터에서 처음 제작되었을 것이고, ‘정사’라는 연대를 감안하면 사비기 중에서도 6세기 말 이후에야 나올 수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백제 사비기에 이러한 인장와가 다수 생산된 배경에는 기와의 대량생산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품질 관리나 생산량, 생산자(집단)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도인 사비도성에서 정립된 이러한 문자 기재 방식이 점차 지방으로 확산되었을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토론자의 경우 백령산성이나 논산 황화산성 등지에서 출토된 ‘정사’년명 문자기와는 597년보다는 한 갑자 더 늦은 7세기 중엽으로 판단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발표자께서 백령산성 문자기와를 6세기 말로 추정하시는데 내부 발굴에서 6세기 말까지 소급되는 다른 물질 자료가 나온 보완 자료가 있는지, 나아가 백령산성에서 출토된 문자기와가 날인된 이유, 또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간지명 문자기와의 연대 추정 문제와 더불어 한 가지 더 문제시 되는 것은 문자기와의 연대와 성곽 축조 연대를 동일시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백령산성에서 출토된 기와의 대부분은 성문의 기와지붕에 사용된 기와일 가능성, 또는 성문 지붕의 보수나 수리에 한정시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면 기와의 연대와 성곽 축조 연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명 비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발표자는 ‘울현’을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조선 후기 기록에 보이는 상주 서쪽에 있는 울현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峴자는 행정 단위의 縣자가 아니고, 峴으로 ‘고갯길’을 가리키는 지명에 불과합니다. 과거 제가 쓴 논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울현현’, 또는 ‘이순신’을 지명으로 파악하는 것은 『삼국사기』 지리지4의 有名未詳地名條에는 「○○峴」, 「○○柵」과 같이 자연 지형에서 따온 행정지명들이 등장하고, ‘得爾辛’과 같은 백제 행정지명의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주 지역의 고갯길을 가리키는 울현과 행정구역으로서의 백령산성 출토 자료에 보이는 울현현을 동일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만약 상주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

기와를 어떻게 이동, 또는 운송했을까 라는 문제에 관해서도 설명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백령산성을 축조한 주체와 관련하여 또다른 명문기와에 등장하는 ‘나노성’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나노성에서 울현이나 이순신 지역 사람들을 동원했을 가능성, 또 백제 중앙 관리의 파견 가능성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백령산성에서 ‘上 卍’명 문자기와가 출토된 점이 간과된 것 같습니다. 고부 구읍성의 ‘上部上巷’ 문자기와 사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백제는 지방 산성의 축조나 관리에서 사비도성의 5부나 5향과 모종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나노성과 울현현, 이순신 지역에서 각기 따로 기와를 생산하여 공급했을 가능성과 해당 지역에서 인력을 동원해서 기와를 생산했을 가능성 가운데 3년 동안 각기 다른 지역민을 동원해서 백령산성에 공급할 기와를 생산하였다고 추정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발표문에 제시한 문자기와들은 지역마다 태토와 타날문이 전혀 다른 기와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한 곳에서 기와를 생산한 것이 아니라 기와를 생산한 공방지나 공인이 달랐음을 알려줍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기와를 생산한 다음 백령산성으로 공급하였고, 그로 인해 물품의 꼬리표 같은 ‘上水瓦~~’명 기와에 누가 얼마의 기와를 만들어 보냈다고 같은 수량을 기록한 문자기와를 남기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병진년, 무오년, 정산년 3년에 걸쳐 기와를 공급받았고, 그것이 성곽의 축조 시기와 관련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백령산성 성곽의 축조에 최소 3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보은 삼년산성의 경우 3년이라는 공사 기간의 이례적인 사례로 인해 붙여진 성곽 명칭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운용 주체의 문제와 관해서도 과연 기와를 공급한 지역의 사람들과 성곽을 방어한 사람들을 동일시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저는 백령산성에 출토된 기와의 명문 내용은 어디까지나 백령산성 주변 지역에 대해 일정한 세금, 租庸調 가운데 貢納과 같은 성격의 調를 부담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지, 庸과 같은 力役 동원이나 軍役의 문제까지 결부시켜 파악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발표문을 공부하면서 들었던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오독이나 오해가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주제

# 금산 백령성에 반영된 백제 성곽의 축조기술



최 병 화

(백제역사문화연구원)

I. 머리말

II. 성벽시설의 조사현황

III. 성벽의 축조 공정과 기법

IV. 문지와 치의 구조와 기능

V. 백제 성곽 축조 기술상의 백령성 위치

VI. 맺음말



## 금산 백령성에 반영된 백제 성곽의 축조기술

최 병 화 (백제역사문화연구원)

### I. 머리말

충남 금산에 위치한 백령성은 2003년 지표조사<sup>1)</sup> 이후, 2004~5년 1~2차 발굴조사<sup>2)</sup>를 통해 대표적인 백제산성으로 알려졌고, 현재는 2020년 3차 발굴조사<sup>3)</sup>까지 진행되었다. 백령성은 둘레 207m의 소규모 석축산성이다. 하지만 1~2차 발굴에서 목곽시설, 현문식 문지, 치 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유물은 목간과 다양한 백제 명문과 등이 다수 확인되어 백제 산성과 고대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주목 받았다.<sup>4)</sup>

일반적으로 고대산성은 중세를 거쳐 구한말까지 오랜동안 수·개축되어 초축시 원형을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백령성은 수·개축 없이 백제시대 단기간 사용·폐기되어 백제의 단일 문화층만이 확인되고, 1~3차 조사에서도 모두 백제시설과 유물이 확인되었다. 이 같은 사례는 보기 힘든 것으로 백령성은 대표적인 백제 석축산성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유적이 되었다.

이 같은 중요 성과와 연구에도 불구하고, 발굴 당시 2005년대는 백제산성에서 보이지 않던

현문식 문지와 치의 존재를 통해 신라산성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sup>5)</sup> 당시 신라산성 논의는 백령성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아닌 삼국시대 산성 비교연구의 일환에서 가능성 일부만 제기된 것이었다. 이 같은 의견은 당시 활발한 경기도 일원 고구려와 신라 석축산성 연구 속에서 기인한 것으로 의외로 일부 연구자들에게는 백령성이 신라의 것으로 저평가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에 비해 정작 백령성을 대상으로 한 현재(~2024)까지의 연구에서 신라일 가능성은 전혀 제기된 바 없었다. 연구는 오히려 명실상부한 백제 산성이며, 백제 동계의 戰況과 지방통치 및 사회상을 반영하는 중요 유적으로 파악되고 있다.<sup>6)</sup> 이 같은 연구속에 신라 가능성 제기된 현문식 문지와 겹성벽 역시 신라와는 전혀 다른 백제만의 현문식 구조와 성벽의 축성 구조가 밝혀진 바 있다.<sup>7)</sup>

그리고, 최근 2017~2022년에는 현문식은 신라 전유물이 아닌 삼국 중 최상위기술을 겸비한 고구려 현문식 영향을 받은 것이고,<sup>8)</sup> 오히려 현문식이 시설된 신라의 석축산성 성벽은 고구려 및 백제보다 늦은 시기(7C)에 축조된 것으로 보는 연구도 있다.<sup>9)</sup> 이 같은 현황을 고려하면 백령성 현문은 현존한 백제의 대표적인 현문식 문지로서 신라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신라보다 일찍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조사 및 연구된 자료 등을 더하여 성벽과 문지, 그리고 치 등 성벽시설에 대한 축조기법을 파악하고, 백령성에 반영된 백제 석축산성의 축조기술 상에서 백령성에 적용된 기술과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5) 沈光注, 2005, 「高句麗와 百濟의 城郭文化」, 『고구려발해연구』 20, 고구려발해학회. 291~293쪽.

6) 이병호, 2013, 「금산 백령산성 출토 문자기와의 명문에 대하여-백제 지방통치체제의 한 측면-」, 『백제문화』 49, 공주대백제문화연구소.

이재철, 2014, 「錦山 栢嶺山城 遺蹟 出土 文字 資料와 懸案」, 『목간과 문자』 13호, 한국목간학회.

장창은, 2017, 「6세기 중·후반 신라·백제의 각축과 국경선 변천」, 『한국사학보』 67, 고려사학회.

김근영, 2018, 「백제의 논산 지역 지배와 동방성」, 『한국고대사연구』 90, 한국고대사학회.

김수태, 2022, 「사비시대 백제의 자연촌」, 『목간과 문자』 29, 한국목간학회.

7) 최병화, 2015, 「백제 석축산성의 성문구조와 변천과정」, 『야외고고학』 23, 한국문화유산협회.

최병화, 2021, 「발굴조사를 통해 본 백령성의 구조와 기능」, 『충청학과 충청문화』 30, 충남역사문화연구원.

8) 백종오, 2017, 「高句麗 城郭 築城術의 擴散에 대한 豫備的 檢討」, 『고구려발해연구』 59, 고구려발해학회, 226~227쪽.

9) 백종오, 2019, 「6세기 중반 신라 단양 적성의 경관」, 『선사와 고대』 61, 한국고대학회, 8쪽.

백종오, 2023, 「중원문화권 관방유적 조사·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선사와 고대』 71, 한국고대학회, 19쪽.

1) 錦山郡·忠南歷史文化研究院, 2003. 2, 『錦山 栢嶺山城 -精密地表調査 報告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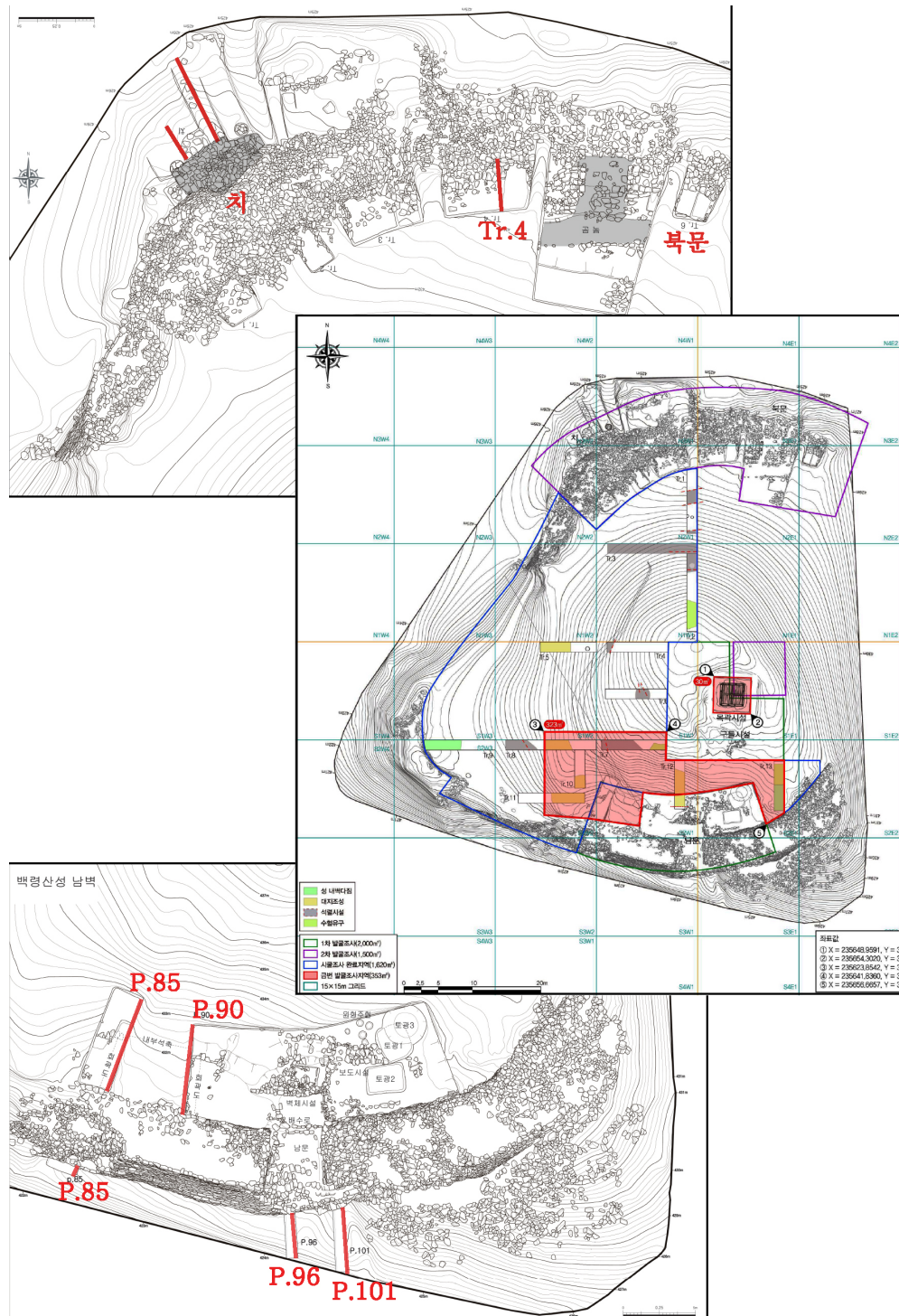
2) 錦山郡·忠南歷史文化研究院, 2003. 2, 『錦山 栢嶺山城 -精密地表調査 報告書-』.

3) 금산군·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22, 『錦山 栢嶺山城 II』.

4) 최병화, 2007, 「錦山 栢嶺山城의 構造와 性格」, 『호서고고학』 17, 호서고고학회.

姜鍾元, 2009, 「扶餘 東南里와 錦山 栢嶺山城 出土 文字資料」, 『목간과 문자』 3호, 한국목간학회, 245~261쪽.





【도면 1】백령성 발굴조사 현황도 및 남벽과 북벽구간 평면도

## II. 성벽시설의 조사현황

백령성은 세 차례(2004·2005·2020) 발굴 조사결과 성벽, 남문, 북문, 치, 내부석축(회곽도), 목곽시설, 구들시설, 수혈 6기, 보도시설 등이 확인되었다(도면 1). 이중 성벽, 문지, 치 등 성벽시설의 조사현황은 다음과 같다.

### 1. 성벽 (도면 2~3)

남벽구간은 내외벽(외고 약 6.5m, 내고 약 2m)이 잔존하고, 북벽구간은 내벽(내고 약 1m) 일부만이 잔존한다. 성벽은 전면 절개하지 않았지만 남벽구간 외벽 트렌치 3곳, 내벽 트렌치 2곳, 북벽구간 내부 트렌치 등을 통해 구조를 확인하였다(도면 1).

#### 1) 외벽 트렌치(남벽구간 P.85.96.101 : 도면 2)

트렌치는 남벽구간 3곳(P.85, P.96, P.101)에 평면 'I' 자로 설치하였다.

남벽 P.85는 지표 아래 암반이 확인된다(도면 2-상). 기저부는 암반을 역 'I'자로 턱진 굴착 후 성돌 놓았다. 1단 면석은 암반에 잘 맞추어 놓았다.

남벽 P.96 트렌치는 남문 아래에 위치한다(도면 2-좌). 성벽 외부는 가파른 경사로 생토 굴착 후, 생토 및 암반 부스러기가 포함된 사질점토로 두껍게 성토하였다.

남벽 P.101 트렌치는 남문 아래쪽에 위치한다(도면 2-우). 기저부는 생토층을 역 'I'자로 턱진 굴착 후, 성돌을 놓았다. 굴광 깊이 약 60cm이며, 성돌 두 단반 정도 잠긴다. 성벽 전면은 2단정도 잠기도록 암반부스러기 포함된 사질점토로 성토하였다.

#### 2) 내벽 트렌치(남벽구간 P.85.90, 북벽구간 Tr.1~6 : 도면 3)

트렌치는 남벽구간 2곳(P.85, P.90), 북벽구간 6곳(Tr.1~6)에 설치하였다.

남벽 P.85 트렌치는 내벽과 성내지형 일부를 관통한다. 생토면을 단지게 사선 굴착 후, 내벽을 쌓고, 안쪽 3.5m의 거리에 석축 후, 사질점토 뒤채움하였다. 바닥은 다짐층, 잡석층, 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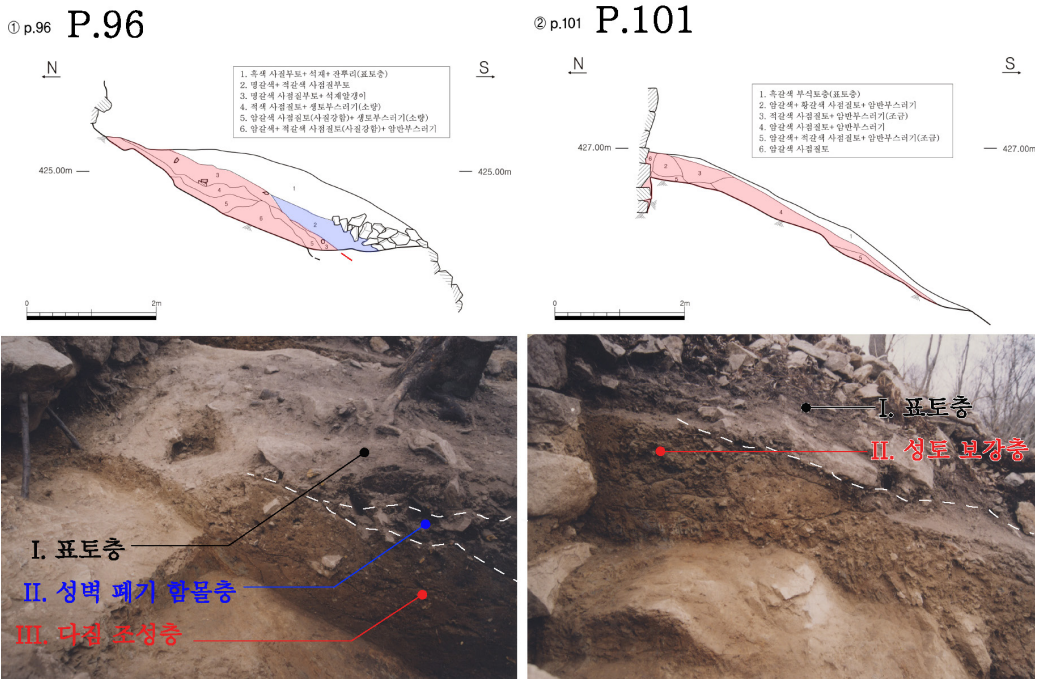


층을 번갈아가며 회곽도를 조성하였다.

남벽 P.90 트렌치는 생토 굴착 후, 내벽을 쌓고, 안쪽으로 4.1m의 거리에 석축을 쌓아 회곽도를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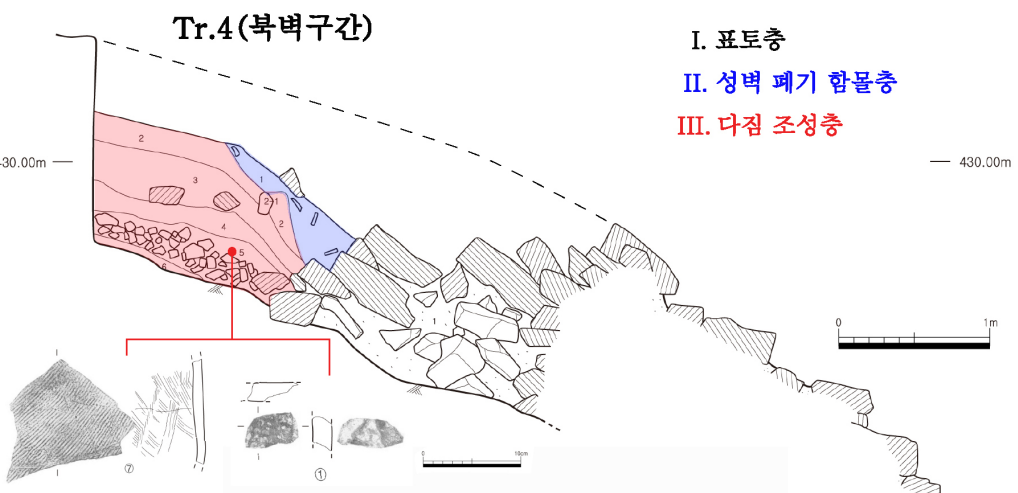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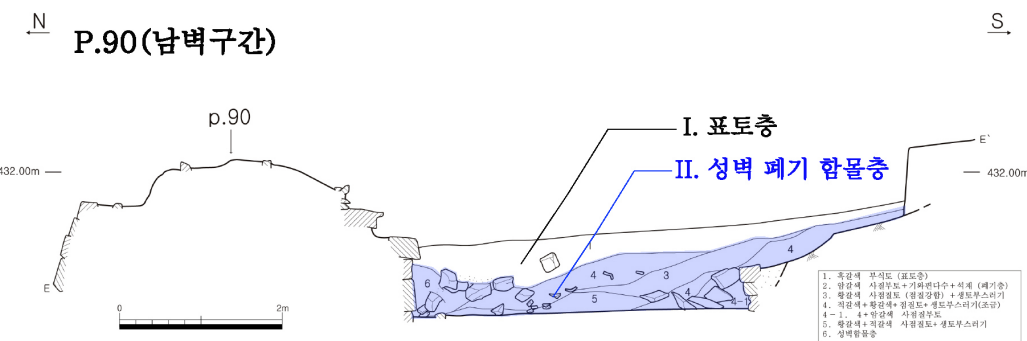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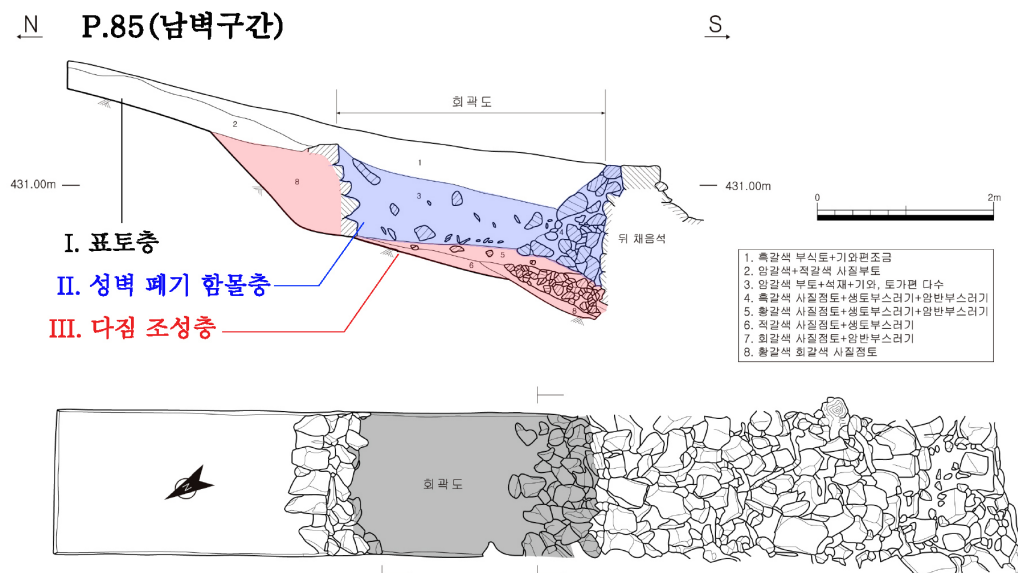
북벽 Tr.중 잔존이 양호한 Tr.4는 외벽은 모두 훼손되고, 내벽은 기울어졌다. 기저면은 암반을 사선 굴착 하였고, 다음 내벽을 쌓았다. 내벽 안쪽은 높이 1m가량 두껍게 ‘다짐토’로 수평 성토하여 성내 지면을 조성하였다.

이상 내외벽 트렌치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성벽은 성벽 내외부를 단진 사선형태로 계단식 굴착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저면은 암반/생토 등을 역 ‘L’자로 턱진 굴착하여 성돌 2단 이상 잠기도록 하였다. 그리고, 성돌 전면은 흙다짐 성토처리하였다. 외벽과 내벽 축조이후, 내벽 안쪽으로는 경사진 지형에 따라 얇거나 혹은 두껍게 흙다짐 수평 성토하여 성내 지면을 형성하고, 내부 석축하여 회곽도를 조성였다.



【도면 2】 외벽 트렌치 토층도 및 사진 P.85(상)·P.96지점(좌)·101지점(우)





【도면 3】 내벽 트렌치 남벽구간 P.85·P.90지점, 북벽구간 Tr.4지점

## 2. 문지 (사진 1~4, 도면 4)

남문과 북문 두 개소가 확인된다. 입지는 성벽 내외 관통의 능선 선상부에서 일정 거리 (20~30m)를 둔 경사면에 해당한다. 조사 당시 남문과 북문 통로에는 다량의 기와편과 함께 적색의 불탄 피혈흔, 소트들과 탄재, 목탄 등이 확인되 화재로 인해 폐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세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1, 사진 1~4, 도면 4).

【표 1】 백령성 남문·북문 조사 현황표

구분	남문	북문
형식	현문식 - 외벽 높이 4m 한가운데 개구.	현문식-외벽 유실 심하나 외벽과 문지 바닥면 고저차가 2m이상 확인.
규모	문폭:430cm, 통로길이:450cm, 측벽잔존 높이:(동)430cm (서)230cm	문폭:280cm, 통로길이:450cm(?계측가능 추정길이), 측벽잔존 높이:(동)60cm, (서)120cm
바닥	“(성외)석축-다짐토-생토(성내)”로 바닥면에서 성내부로 비스듬히 올라가면서 조성.	“(성외)석축-다짐토?부석-생토(성내)”로 바닥에서 성내부로 계단처럼 부석하여 조성.
측벽	외벽에서 둥글게 말각으로 말아가면서 측벽을 조성	측벽이 “凹”자형으로 깊게 들어가도록 양 측벽면에 원형 주혈 4기 확인. 원형 주혈 규모 : 지름 25~30cm, 깊이 100cm 주혈간 거리 : 동서 275cm, 남북 120cm
배수로	暗渠형으로 조성된 수로가 성내부 회곽도에서 시작되어 문지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 양측벽면을 따라 평면 ‘ㄱ’자형으로 조성. 규모:너비 40cm, 깊이 25~30cm	
진입 형태	평면 “ㄱ”자형. 정면과 동편은 벽체시설로 막히고, 서편으로 꺾여 가면서 성내로 진입. 성 내부는 내벽을 따라 조성된 폭 3m의 회곽도와 연결됨.	평면 “T”자형으로 문지를 통해 성내로 오르면 내벽을 따라 동서 양쪽으로 갈게 뻗어있는 폭 1.6m의 회곽도와 연결됨.
출토 유물	기와편(인장 및 명문와), 토기편, 철정, 목탄	기와편(명문와), 토기편, 철정, 목탄
비고	바닥면에서 불탄 소토와 다량의 숯 발견(화재 흔적)	





【사진 1】남문 조사 중 전경(남쪽에서)



【사진 2】남문 조사 내부 후 근경(동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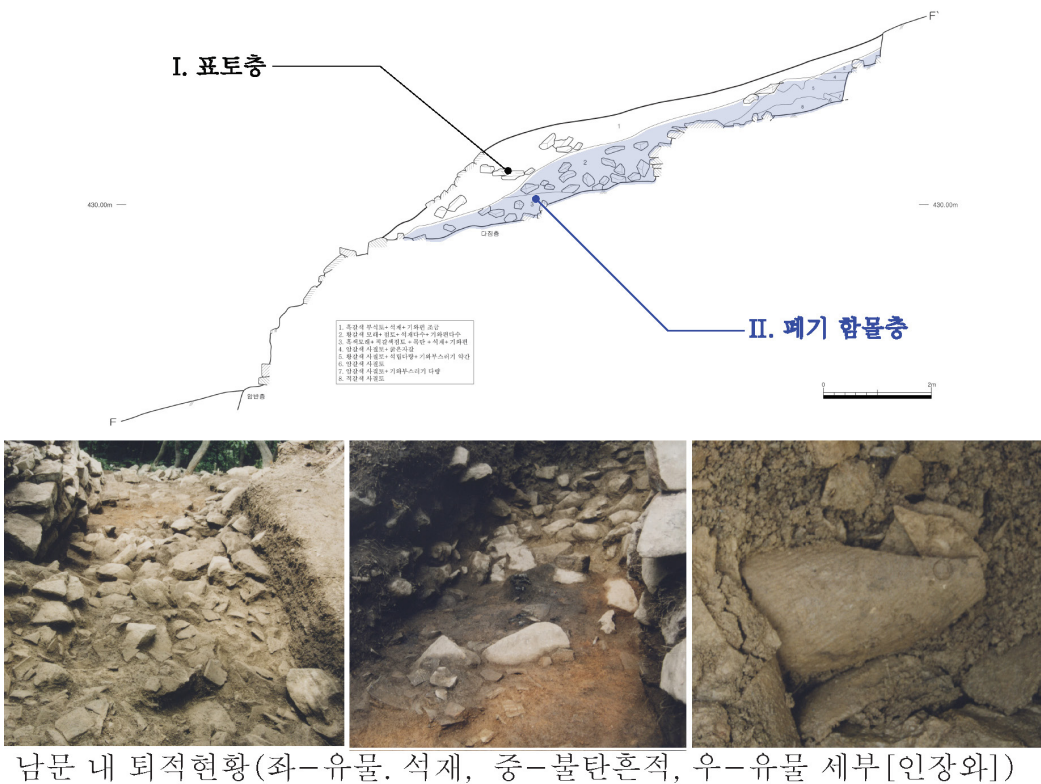


【사진 3】북문 조사 후 전경(북쪽에서)



【사진 4】북문 조사 후 전경(동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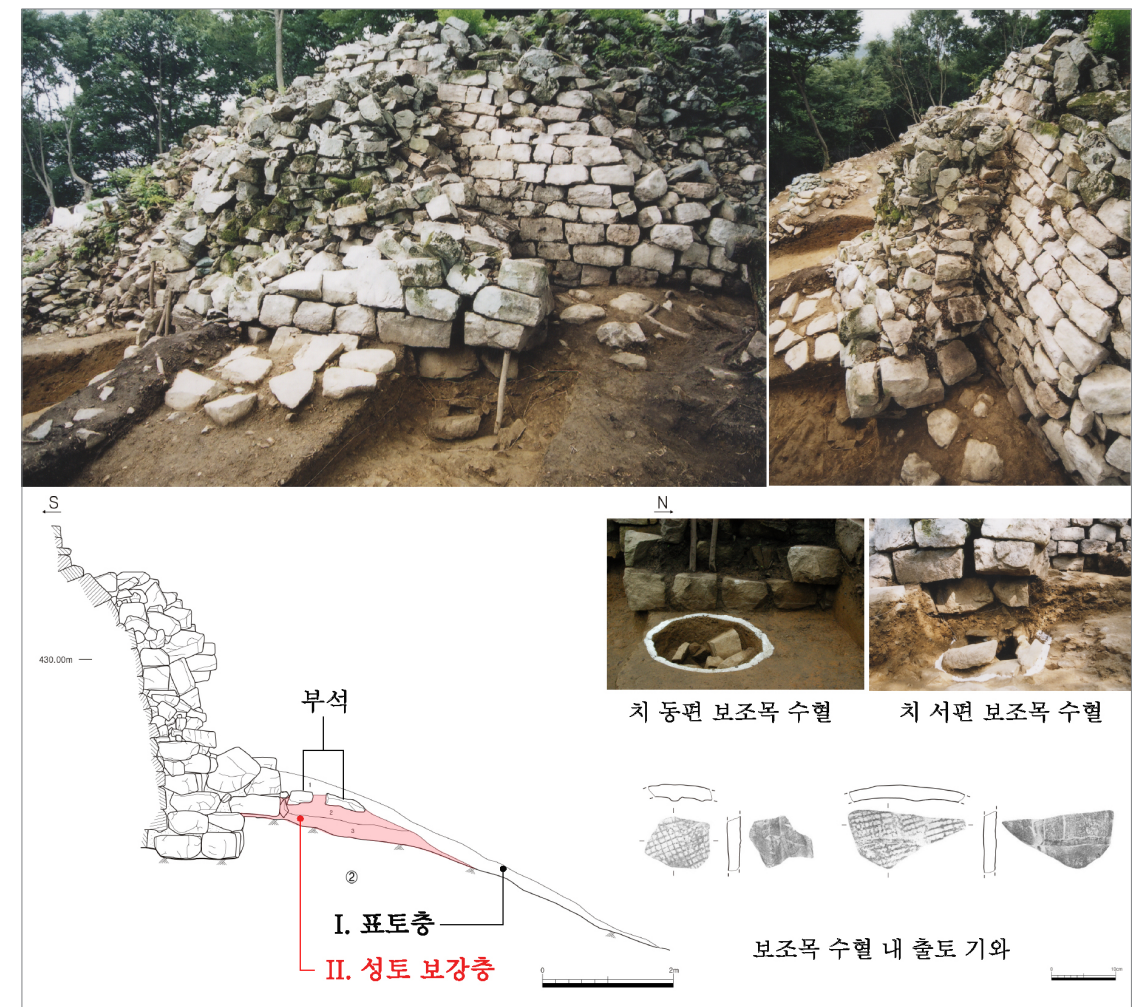


【도면 4】 남문(상) 및 북문(하) 토층도 및 퇴적현황

### 3. 치 (도면 5)

치는 북벽과 서벽이 접하는 北西隅에 축조되었다. 상단 대부분이 붕괴되고, 중하단 일부가 잔존한다. 치의 평면은 세장방향으로 규모는 길이 647cm, 폭 110cm, 잔존 높이 420cm이다. 기존 성벽 전면에 기저면을 역 “L”자로 굴착 후 면석을 놓아 가면서 조성하였다(도면 5).

치의 양쪽 가장자리에는 지름 50cm의 원형 수혈 한기씩 존재한다. 치 축조과정에서 사용된 보조목 흔적으로 파악된다. 유물은 보조목 수혈 내에서 격자문 기와편이 출토되었다. 따라서 1차례 성벽 축조 후 큰 시간차 없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도면 5】 치 조사 현황 및 동측 입면·토층도와 보조목 수혈 및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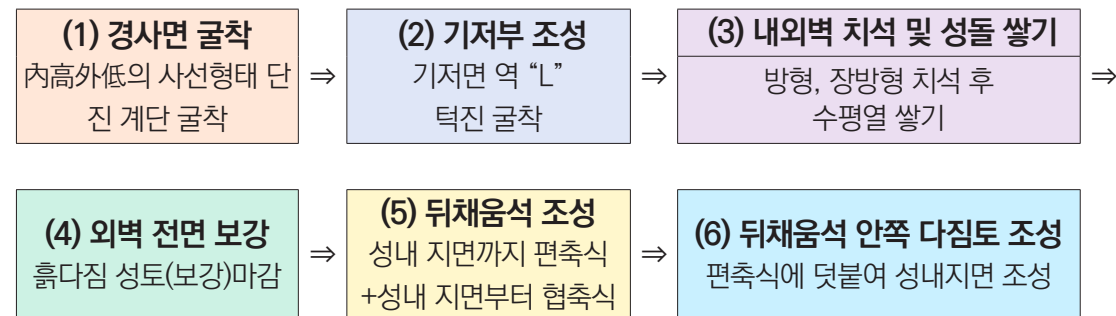


### Ⅲ. 성벽의 축조 공정과 기법

#### 1. 성벽의 기본구조와 축조 공정 (도면 6)

성벽 조사는 관통하는 전면적인 단면 조사를 진행한 바 없다. 하지만 법면에 나타난 현황과 내·외벽 트랜치를 통해 파악된 기본구조와 공정은 다음과 같다(표 2).

표 2. 백제 성벽 축조구조 및 조성순서 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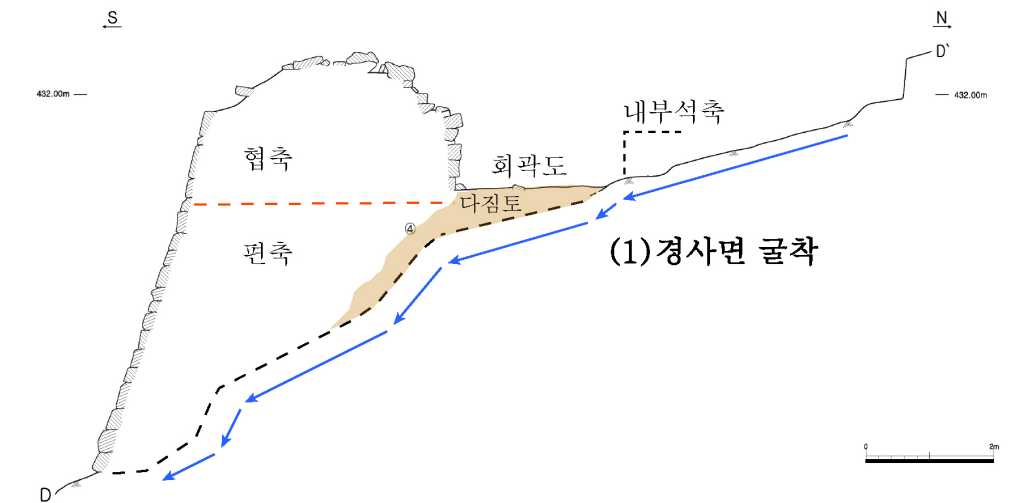


(1) 경사면 굴착은 사선 형태의 계단 굴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성벽 관통의 단면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내·외벽과 연결된 트랜치 조사현황을 볼 때, 기본적으로 內高外低의 긴 사선 중심의 계단 굴착된 것으로 파악된다(도면 6-(1)).

(2) 기저면은 생토면을 역 ‘L’자로 턱진 굴착한 것으로 파악된다. 외벽 트랜치 모두 성돌 2단 이상 깊게 잠기도록 굴착 하였고, 바닥면에는 별도의 다짐층 없이 1단 면석을 맞추어 놓았다(도면 6-(2)).

(3) 성돌은 가로:세로 비가 3:2 내지 2:1의 장방형과 방형으로 다듬어 사용하였고, 간혹 3:1 이상의 세장방형도 확인된다. 다듬은 성돌은 수평열을 맞추어 쌓았고, 성돌의 높낮이가 맞지 않는 경우 성돌 일부를 ‘ㄱ·ㄴ’자 로 깎아 맞추었다(도면 6-(3)).

(4) 기저부에 성돌 놓은 후, 전면은 사질점토로 2단정도 잠기도록 성토(보강)하였다. 남문 전면(P.95, P.101)은 급경사를 두껍게 성토하였고, 성돌 2단정도 높이까지 잠기도록 하였다. P.85 트랜치는 전면에 암반과 표토층만이 잔존하나(도면 2), 유실을 고려하면 성토층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도면 6-(4)).



(2)기저부 조성 및  
(4)외벽 전면 보강

(6)뒤택움석 안쪽 다짐토 조성



(3)외벽 치석 및 성돌쌓기

(5)뒤택움석 조성



【도면 6】 남벽구간 단면도로 본 성벽의 기본구조 및 축조공정



(5) **뒤채움석**은 면석에 물려 길쭉한 할석을 맞물려 쌓았다. 뒤채움석은 수평열을 이루는 면석과 함께 맞물려 쌓았기 때문에 함께 수평한 놓임 상태를 보인다. 뒤채움석의 정확한 축조방식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성내 생활면 높이까지는 외벽에 맞춘 편축구조로, 성내 생활면 높이부터는 내·외벽에 맞춘 협축구조로 쌓았다(도면 6-(5)).

(6) **뒤채움석 안쪽은 편축된 뒤채움석과 함께 흠다짐**하였다. 생토, 암반 부스러기가 포함된 사질점토로 성토하여 성내지면을 조성하였다. 성토 높이는 지형에 따라 조정하였고, 일부는 내벽과 일정거리에 석축하여 회곽도를 조성하였다(도면 6-(6)).

이상 축조공정에 대한 검토결과 성벽은 경사진 암반에 사선 위주의 단진 계단식 굴착 후, 잘 다듬어진 성돌을 놓아 가면서 쌓아 올린 현상이 확인된다. 구조는 성내지면 높이까지는 편축식, 성내지면 높이부터는 협축식의 편+협축이 겸용된 구조를 보인다. 또한, 뒤채움석 편축시 성안쪽으로는 지형에 따른 흠다짐을 통해 비교적 수평하고 안정적인 성내지면을 형성하여 원활한 활동공간(회곽도)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 2. 성벽의 축조기법

앞선 성벽의 기본구조와 축조공정을 통해 백령성의 “(1)경사면 굴착 - (2)기저부 조성 - (3)내외벽 치석 및 성돌 쌓기 - (4)외벽 전면보강 - (5)뒤채움석 조성 - (6)뒤채움석 안쪽 다짐토 조성” 등의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중 공정 (1) 경사면 굴착은 성내에서 성외에 걸쳐 단진 사선형태의 계단 구조로 굴착되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정확한 단면 현황은 아직 조사되지 않았지만, 부여 나성 북벽구간<sup>10)</sup> 및 평택 할미산성<sup>11)</sup> 성벽 구간 등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백제와 신라 등 삼국시대 산성에서는 연속된 계단 형태로 굴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사진 5~6).

공정 (2)와 (4)를 보면 기저부와 외벽 전면 보강은 기저면을 단면 역 “L”자로 턱진 굴착 후, 성돌 2단 이상이 잠기도록 하였고, 이후 전면에 성토하여 1~4단의 성돌이 보이지 않도록 처

10) 백제역사문화연구원, 2023.03, 「부여 나성(북나성) 10차 변경 발굴조사 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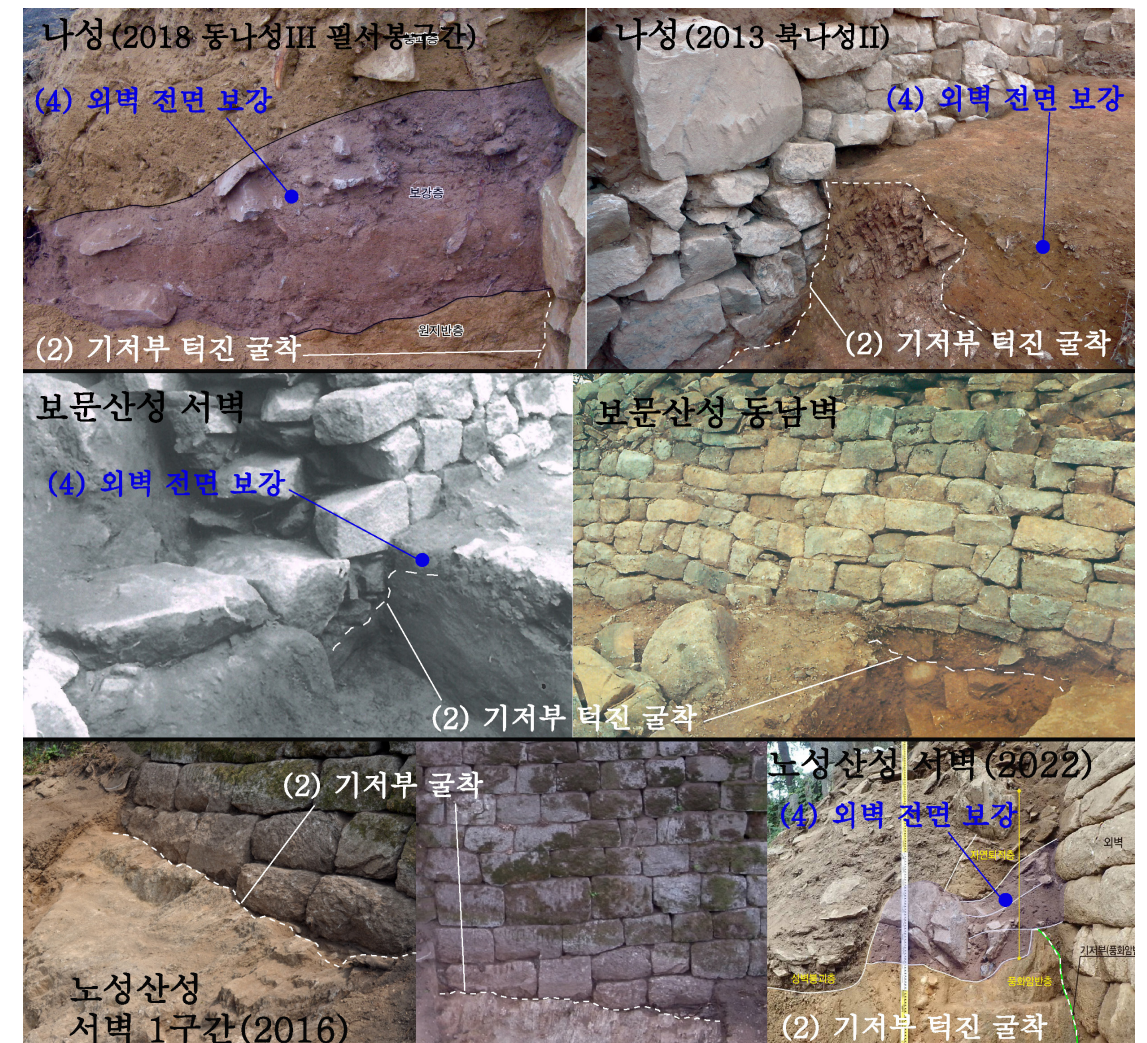
11)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7, 『용인 할미산성(IV)-용인 할미산성 3차 발굴조사 보고서-』.



【사진 5】 부여 나성(북나성) 경사 굴착현황



【사진 6】 용인 할미산성 경사 굴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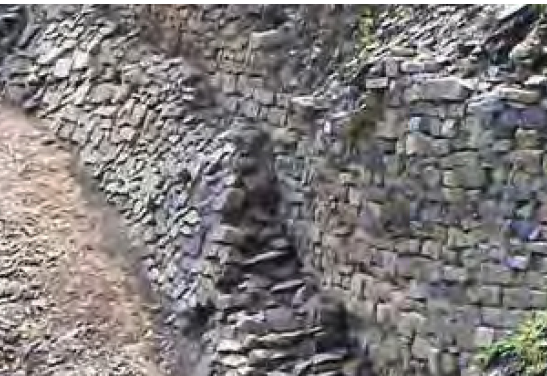


【사진 7】 (2)기저부 조성(턱진 굴착) 및 (4) 외벽 전면 보강 현황



리한다. 기저부에 깊게 턱진 굴착 방식은 부여 나성<sup>12)</sup>, 대전 보문산성<sup>13)</sup>, 논산 노성산성<sup>14)</sup> 등 백제 산성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된다(사진 7).

이와 달리 외벽 기저부에 비교적 높게 기단보축한 경우가 있는데(사진 8), 접경지역 일원의 신라산성들에서만 확인되는 것으로 백제 산성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사진 8】문경 고모산성 남벽구간



【사진 9】보은 삼년산성 남벽구간 성벽

(3) 내외벽 치석 및 성돌 쌓기 중, 치석 현황을 살펴보면, 가로 : 세로 비율이 장방형 및 방형의 성돌로 다듬어져 있다. 그 동안 연구에 신라산성보다 백제산성에서 장방형 및 방형의 성돌로 다듬은 경향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15)</sup>

특히, 삼국시대 접경지역 산성 가운데, 신라산성(대전 계족산성<sup>16)</sup>, 보은 삼년산성<sup>17)</sup> : 사진 9, 문경 고모산성<sup>18)</sup> 등)의 대부분이 가로:세로 비율이 3:1 이상의 세장방형 성돌을 주로 사용

12)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2013, 『부여나성 -북나성 II』.

백제고도문화재단, 2018, 『부여나성 동나성 III -필서봉 구간-』.

13) 李達勳·李康承·沈正輔·兪元載, 1994, 『寶文山城發掘調査報告書』, 大田直轄市.

14) 금강문화유산연구원, 2019, 『논산 노성산성 -동문지 주변 체성부 발굴조사 보고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21. 08, 「논산 노성산성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개략보고」.

15) 서정석, 2002, 『백제의 성곽 -웅진·사비시대를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16) 大田工業大學 郷土文化研究所·大田直轄市, 1992, 『鷄足山城』.

中原文化財研究院, 2019, 『大田 鷄足山城 -曲城 發掘調査-』.

17) 中原文化財研究院, 2008, 『報恩 三年山城 -2006年度 内側 城壁 發掘調査 報告書-』.

中原文化財研究院, 2009, 『報恩 三年山城 -南門址 内側·西南曲城 發掘調査-』.

18) 中原文化財研究院, 2007, 『문경 고모산성1 -남문·남동곡성 발굴조사-』.



【사진 10】대전 흑석동 산성 남동성벽



【사진 11】대전 월평동 산성 서벽구간

한 것과는 달리 금산 백령성을 포함한, 대전 보문산성(사진 7), 흑석동산성<sup>19)</sup>, 월평동산성<sup>20)</sup> 등 접경지역 백제산성에서는 방형 및 방형(2:1 or 3:2)의 것들이 사용되고 있다<sup>21)</sup>(사진 10~11).

(4) 뒤채움석 현황을 보면 성벽은 성벽 전체의 80~90%를 석축 하였다. 축성은 성내지면 높이까지 편축하고, 성내지면부터 협축하였다. 그리고, (6) 뒤채움석 안쪽에는 흙다짐(약 10~20% 이내 추정)하였다. 성내지면 높이까지 편축된 뒤채움석과 경사 굴착된 생토면 사이에 다짐한 것으로 추정되고, 수평하게 상면 처리하여 성내 이동(회곽도) 공간을 확보하였다.

신라의 석축성벽은 내외벽이 기저면에서부터 한번에 조성된 협축식(도면 7)으로 백령성과 같은 편축+협축과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백령성은 내벽과 나란히 내부 석축하여 정연한 회곽도를 조성하였는데, 일반적인 백제 석축산성에서도 좀처럼 확인되지 않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상 성벽의 축성공정에 따른 축조기법 검

협축성벽	
평지구간	경사구간
이천 설성산성	고령 주산성 내성

【도면 7】협축식 성벽 모식도(심광주 2022)

19) 동북아시아석묘연구소, 2022.12, 「흑석동산성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시굴·정밀발굴조사 약보고서」.

20) 忠淸文化財研究院·大田廣域市, 2003, 『大田 月坪洞山城』.

21) 일부 연구에서는 신라~통일신라로 파악되는 설성산성, 설봉산성, 이성산성, 아차산성 등에서도 장방형 및 방형의 성돌 사용되고 있어, 성돌의 다듬은 상태만으로 백제만의 특징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현황은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유적들은 축조시점에 대해 삼국시대 이후 또는 개보수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적어도 신라에서 확인되는 세장한 성돌의 사용은 백제에서 잘 나타나지 않고 있어, 웅진~사비기 접경지역 일원의 석축산성 축성 당시 적용된 신라와는 다른 백제만의 주요 축성기술의 하나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토결과 성벽은 편·협축되고, 수개축 없이 조성됨을 알 수 있다. 일부 가능성이 제기된 성벽 외부 수·개축과정에서 면석만 한겹 덧댄 현황은 보이지 않는다.

즉, 백령성의 성벽은 “경사면의 긴 사선 중심의 계단 굴착 - 기저부 역 I자 턱진 굴착 - 내외벽 방형·장방형 치석 수평쌓기 - 외벽 전면 보강(성토) - 뒤채움석 편축+협축 겸용 - 뒤채움석 편축시 안쪽 흙다짐하여 성내 이동로(회곽도) 조성” 등 백제산성 축조기법으로 확인된다.

이는 “외벽 기반보축 - 가로와 세로 비가 3:1 이상의 세장방형 성돌사용 - 기저면부터 단번에 내외벽의 협축식 축조” 등의 신라산성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 IV. 문지와 치의 구조와 기능

### 1. 문지

백령성에서 현문이 조사된 2004~5년 당시에는 백제 현문식이 확인된 바 없었다<sup>22)</sup>. 현문식 문지는 신라산성에서 주로 확인되어 신라의 특징적인 요소로 인식되었고<sup>23)</sup>, 백령성 현문은 신라의 요소로서 축성주체에 대해 재고의 논의가 있었다<sup>24)</sup>.

하지만 2005년 이후 백제 석축산성 문지 연구를 통해 백제 현문식 구조는 신라 현문식과 다른 것으로 백령성 현문식은 백제산성 문지구조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sup>25)</sup>. 그리고, 현문식 구조는 신라 전유물이 아닌 삼국 가운데 최신기술을 겸비한 고구려의 현문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논의도 제기되었다<sup>26)</sup>.

이 같은 연구를 고려해 백령성 문지 재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는데<sup>27)</sup>, 그 현황을 참고하여 살펴보

22) 당시 현문식 구조는 한성기 백제의 석축산성으로 논의된 이천 설성산성 서문지(단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이천시, 2002, 『이천 설성산성 1차 발굴조사 보고서』)에서 확인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설성산성은 현재까지 축성주체가 백제인지 신라인지에 대해 이견이 대립되어 있다. 따라서 정확한 주체에 대한 정론이 형성되기까지 직접적인 대입이 어려워, 이천 설성산성 서문지는 백제의 현문식 사례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23) 김병희, 2007, 「新羅 城郭 城門의 特徵과 變遷過程 檢討」, 『학예지』 제14집,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24) 沈光注, 2005, 「高句麗와 百濟의 城郭文化」, 『고구려연구』 20, 고구려발해학회, 291~29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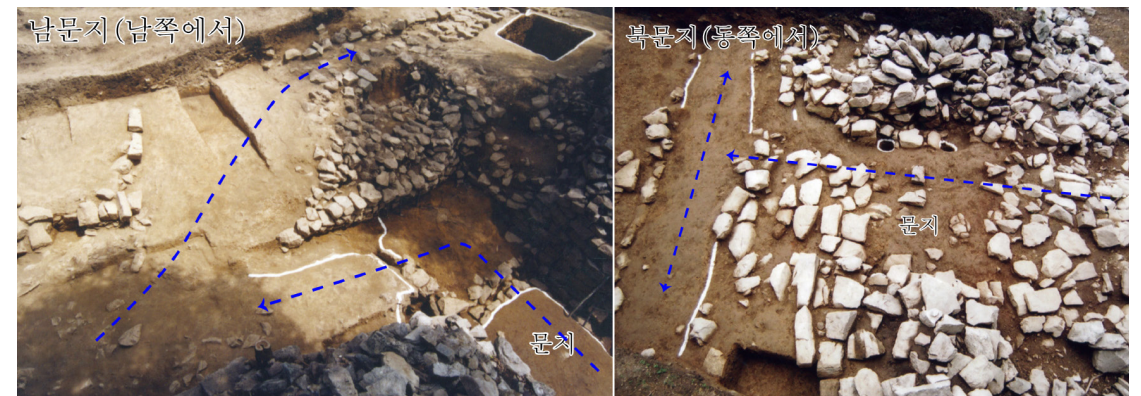
25) 최병화, 2015, 「百濟 石築山城의 城門構造와 變遷過程」, 『야외고고학』 23, 한국문화유산협회.

26) 백종오, 2017, 「高句麗 城郭 築城術의 擴散에 대한 豫備의 檢討」, 『고구려발해연구』 59, 고구려발해학회, 226~227쪽.

27) 최병화, 2021, 「발굴조사를 통해 본 백령성의 구조와 기능」, 『충청학과 충청문화』 30,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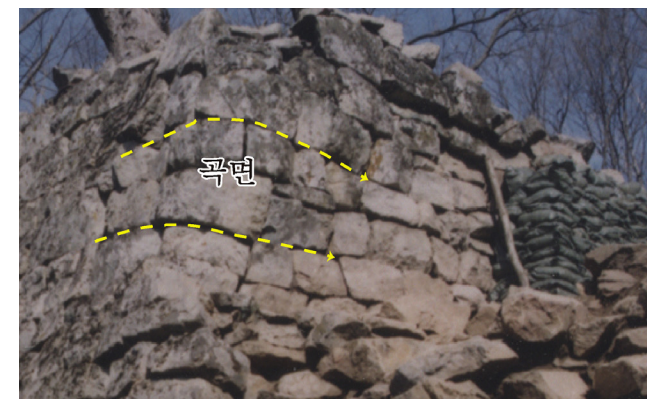
첫째, 문지 바닥은 성벽 중간에 위치하며, 흙다짐 처리되었다(사진 12). 남문과 북문 바닥은 성벽 뒤채움석 상면에 흙다짐 되고, 북문의 경우 흙다짐 상면에 부석하였다. 사용 당시 흙다짐 또는 부석된 바닥면을 밟고 통행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12】백령성 남문(좌) 및 북문(우) 조사 현황

둘째, 백령성 문지 측벽 선단부<sup>28)</sup>는 곡면 구조이다(사진 13). 구체적으로 ‘외벽 선단부 곡면-내벽 선단부 직각’ 구조이다. “내외벽 선단부 모두 곡면” 구조도 있지만, 백령성은 외벽 선단부만 곡면 구조이다.

셋째, 문지 통행로 단면은 성안이 높고, 성밖이 낮은 內高外低형이다(도면 8 좌). 밖에서 안으로 높아지는 오름 구조로 남문과 북문 모두 계단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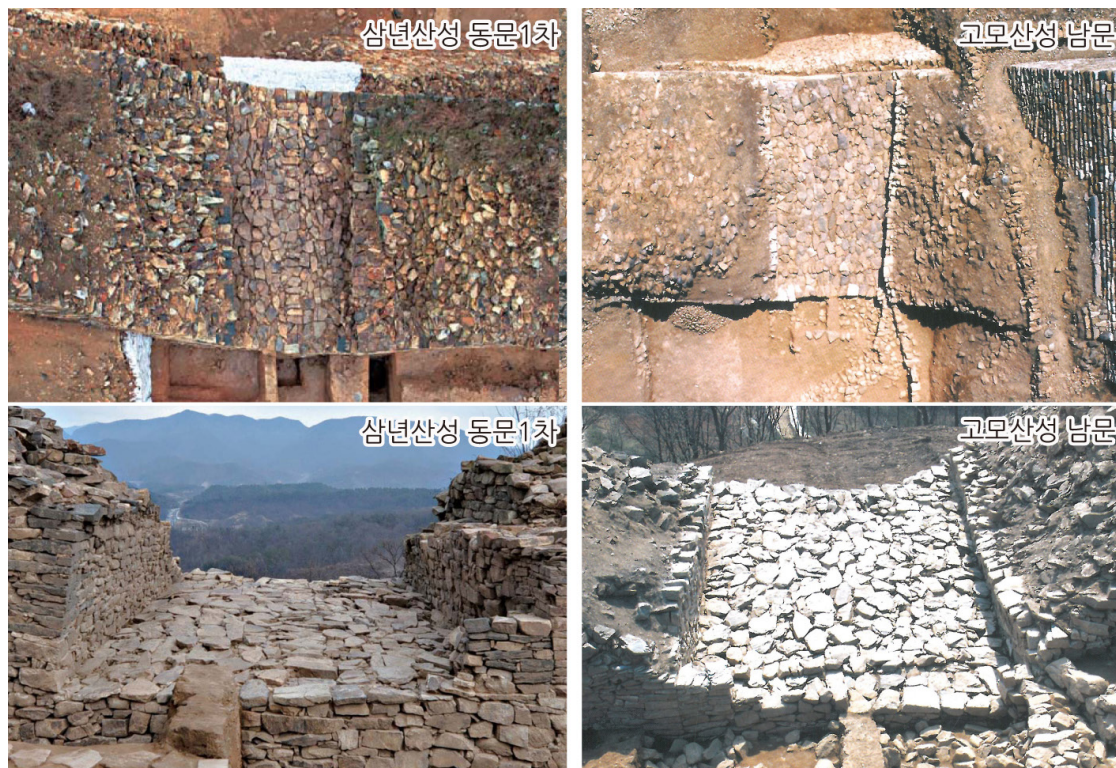
【사진 13】백령성 남문 외벽쪽 측벽 선단부 곡면 처리 현황 (동남쪽에서)

28) 측벽 선단부는 성벽 내·외벽면과 성문 양쪽 측벽이 접하는 출입구 외곽 모퉁이로서 차용걸(車勇杰, 2004, 「漢城時期 百濟山城의 諸問題」, 『湖西考古學』 제10집, 호서고고학회, 77쪽)은 백제 석축산성 성문이 신라 석축산성과 달리 곡면 구조인 점을 지적하여 백제 석축산성 성문 구조 파악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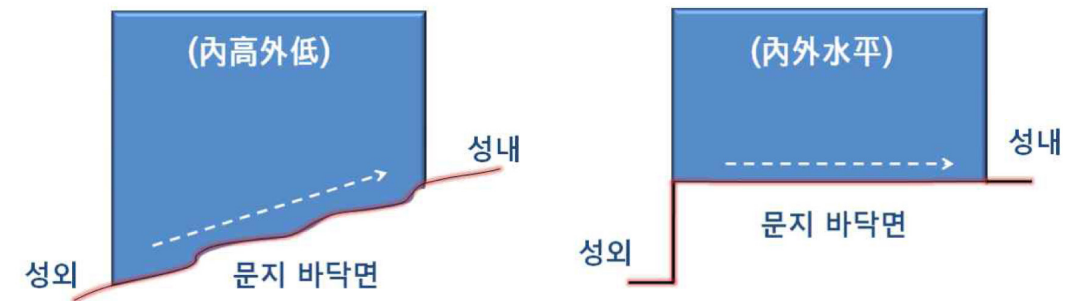
이상 정리하면 백령성 남·북문은 바닥면 흙다짐 후 석재 처리한 內高外低의 계단식 구조이고, 외벽 측면 선단부는 곡면 처리되었다. 이 같은 현문 구조는 신라산성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접경지역 신라산성 현문은 보은 삼년산성 남문·동문1~2차, 문경 고모산성 남·서문, 충주산성 동문·북문 등<sup>29)</sup>이 있으며, 백령성 처럼 바닥면을 흙다짐 처리 없이 석축된 체성부 중간 정도의 상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사진 14).

신라 현문의 바닥면 단면 형태는 '內高外低'가 아닌 '內外水平'의 평탄 구조이다(사진 14, 도면 8 우). 그리고, 측벽 선단부는 외벽과 내벽 모두 '직각-직각' 구조이다(사진 14). 백령성의 현문 구조와는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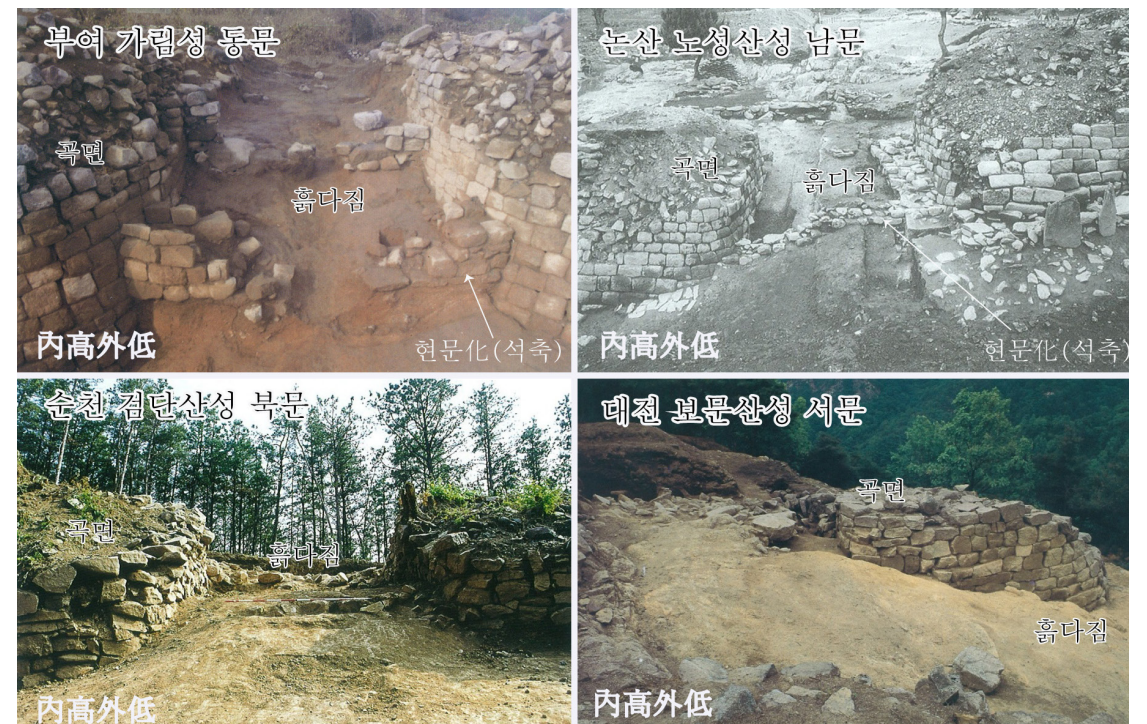


【사진 14】 접경지역 일원 신라산성(보은 삼년산성, 문경 고모산성) 현문식 조사현황

29)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1999, 『忠州山城 東門址 - 發掘調査 報告書-』.  
 中原文化財研究院, 2006, 『報恩 三年山城-2004年度 發掘調査 報告書』.  
 中原文化財研究院, 2013, 『報恩 三年山城-東門址2次 發掘調査 報告書』.  
 中原文化財研究院, 2007, 『聞慶 姑母山城1-南門・東門曲城 發掘調査』.  
 中原文化財研究院, 2008, 『忠州山城-北門址 發掘調査 報告書-』.



【도면 8】 성문 바닥면 통행방식 단면 모식도 일례 좌(백제)·우(신라)(최병화 2015)



【사진 15】 백제 석축산성 문지 조사현황

백령성 현문에서 보이는 바닥면 흙다짐 또는 흙다짐 후 부석처리, 內高外低형의 계단구조, 측벽 선단부 곡면처리 등은 동일한 현문 구조는 아니지만 부여 나성 제2 동문·가림성 남·동문지<sup>30)</sup>, 논산

30) 安承周·徐程錫, 1996, 『聖興山城 門址發掘調査報告書』, 忠南發展研究院.  
 백제고도문화재단, 2015, 『부여나성 동나성Ⅱ-동나성 2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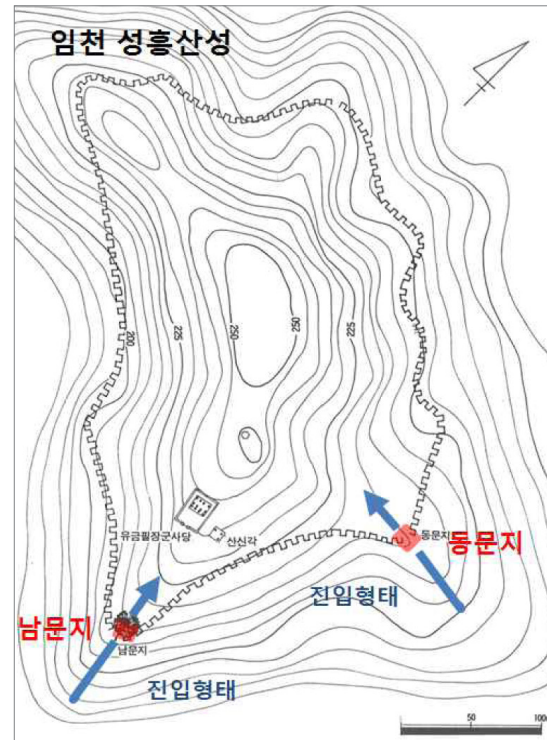
노성산성 남문지<sup>31)</sup>, 대전 보문산성 남·서문지<sup>32)</sup>, 고사부리성 동·서문지<sup>33)</sup>, 순천 검단산성<sup>34)</sup> 등 백제 석축산성 문지에서 나타나는 구조가 반영되었다(사진 15).

백령성의 현문 구조는 입지에서도 백제 석축산성 문지 속성이 반영되었다. 백령성 남·북문 입지는 능선 선상부를 피해 약 20~30m 정도 떨어진 경사면에 위치한다. 출입에 용이한 선상부를 피하고, 비탈진 경사면에 위치하여 방어의 효과를 극대화한 삼국시대 백제 산성 문지의 특징이 반영된 것이다<sup>3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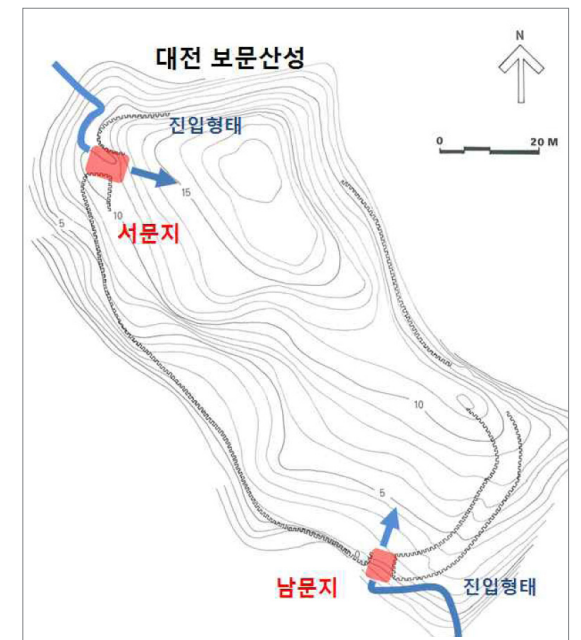
기존 연구에서 파악된 백제산성 문지의 입지는 ①주능선 정상부 중앙, ②주능선 정상부 측면, ③비탈진 경사면으로 구분 된다<sup>36)</sup>.

① 주능선 정상부 중앙은 능선 선상부 한가운데로 평탄한 곳이다(도면 9). 진입 방식은 ‘성의→성문→성내’로 일직선 형태이다. 진입이 가장 용이하고 입지는 가장 안정적이다. 이 같은 문지는 한성기 백제 토성인 증평 추성산성 남성 북동문<sup>37)</sup>, 부여 가림성 동·남문지가 유일하며 개거식 구조에서만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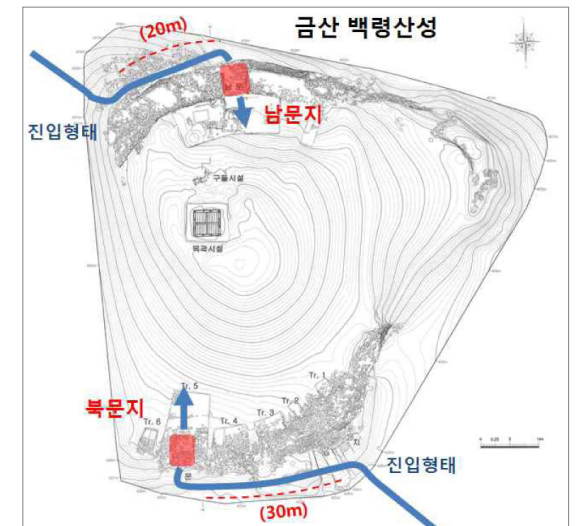
② 주능선 정상부 측면은 ①주능선 중앙 성문에서 경사면 방향으로 이동한 것이다(도면 10). 진입방식은 주능선을 따라오다 성벽에 이르면 경사면으로 돌아가는 ‘성의→성벽\성문/성내’이다. 입지①보다 진입이 어렵다. 부여 동나성 제2문지, 고사부리성 서·북문, 보문산성 서·남문



【도면 9】 ① 주능선 정상부 중앙



【도면 10】 ② 주능선 정상부 측면



【도면 11】 ③ 비탈진 경사면

등 개거식과 엇문식에서 확인된다.

③ 비탈진 경사면은 주능선에서 성벽을 따라 20~30m 떨어진 경사면에 입지한다(도면 11). 진입방식은 ‘성의→성벽\20~30m 이동) 성문/성내’로 굽이진다. 입지①②보다 진입이 어렵고, 방어에 가장 발달된 입지이다. 노성산성 남문, 고락산성 남·서문, 백령성 남·북문 등이 해당되며, 개거식과 엇문식, 현문식 등 모든 구조가 확인된다.

이상 세 가지의 입지 현황을 볼 때, 성문 입지는 주능선 중앙에서 비탈진 경사로 변할수록 진입방식이 어려워지고, 출입구 형태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되어 적의 침입에 대한 방어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백령성 문지는 방어에 효율성이 가장 높은 현문식 구조와 비탈진 경사면 입지가 적용된 것을 알 수 있다.

## 2. 치

백령성에서 확인된 치는 현문식 문지와 마찬가지로 조사된 2004~5년 당시 백제 석축산성에서는 확인된 바 없었다. 치의 존재는 삼국시대 고구려 및 신라 산성에서 주로 확인되어 조사 및 연구도 고구려와 신라에 집중되어왔다<sup>38)</sup>. 한편 백제 석축성벽에서 치는 백령

31) 李南奭·李賢淑, 2008, 『魯城山城 南門址』, 公州大學校博物館·論山市.

32) 李達勳·李康承·沈正輔·俞元載, 1994, 『寶文山城發掘調査報告書』, 大田直轄市.

33) 전북문화재연구원·정읍시, 2013, 『井邑 古沙夫里城-종합보고서(1~5차 발굴조사)-』.

34) 順天大學校博物館·順天市, 2004, 『順天 檢斷山城 I』.

35) 서정석, 2002, 『백제의 성곽-웅진·사비시대를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232쪽.

36) 최병화, 2015, 『백제 석축산성의 성문구조와 변천과정』, 『야외고고학』 23, 한국문화유산협회.

37) 中原文化財研究院, 2013, 『曾坪 二城山城 III 南城 1·2·3次 發掘調査 綜合報告書』.

38) 조순흥, 2007, 「보은 삼년산성의 곡치성 축조방법 검토」, 『충북사학』vol 10, 충북대학교 사학회.

서길수, 2009, 『高句麗 築城法 研究』, 학연문화사.

차용걸, 2009, 「삼년산성의 곡성형식 비교연구」, 『인문학지』vol 38,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성에서 1개소 외에도 현재까지 부여 나성에서 2개소<sup>39)</sup>가 있으며, 토축성벽은 부소산성 2개소 정도가 조사된 편이다<sup>40)</sup>.

일반적으로 치는 성벽에 돌출시켜 쌓은 구조물로서 적의 접근을 조기에 관측하고 전투시 성벽으로 접근하는 적을 공격하여 격퇴할 수 있도록 성벽의 일부를 돌출시켜 내 쌓은 시설로서<sup>41)</sup>, 雉, 雉城, 曲城, 敵臺, 角臺, 角樓 등으로 불리어 왔다<sup>42)</sup>.

치는 위치에 따라 명칭과 성격을 달리하는데, 성문 좌우에 자리한 것은 敵臺, 성곽이 회절 지점에 자리한 것은 角臺, 그 외 지점은 일반적인 雉라고 지칭하고 있다<sup>43)</sup>.

이와 같은 현황을 고려하여 백제 성벽에서 확인된 치의 기능과 성격 파악 위해 입지와 함께 축조 방식, 규모, 평면, 성벽 진행 방향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표 2] 백제성벽 치 조사현황 일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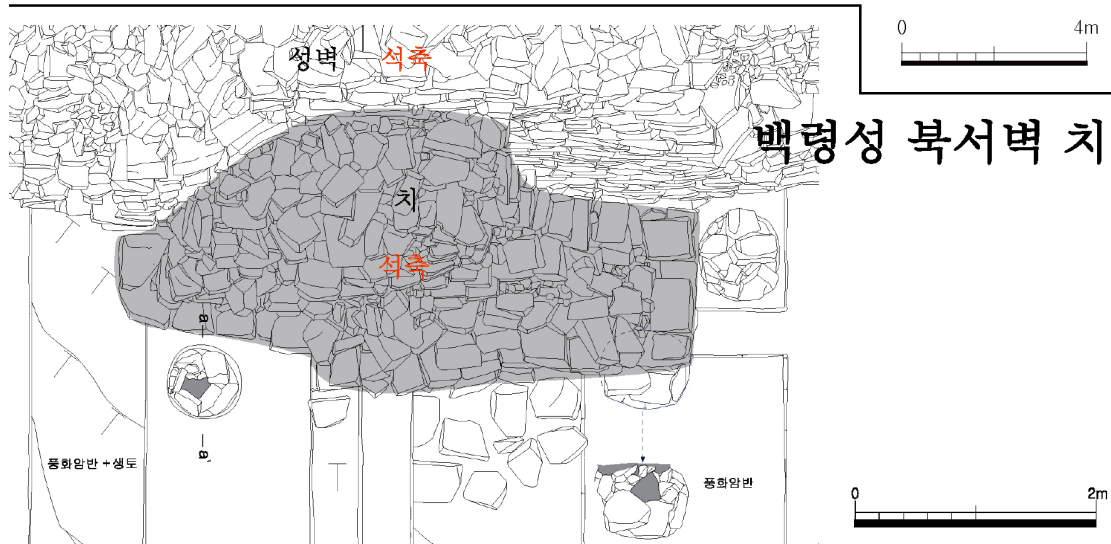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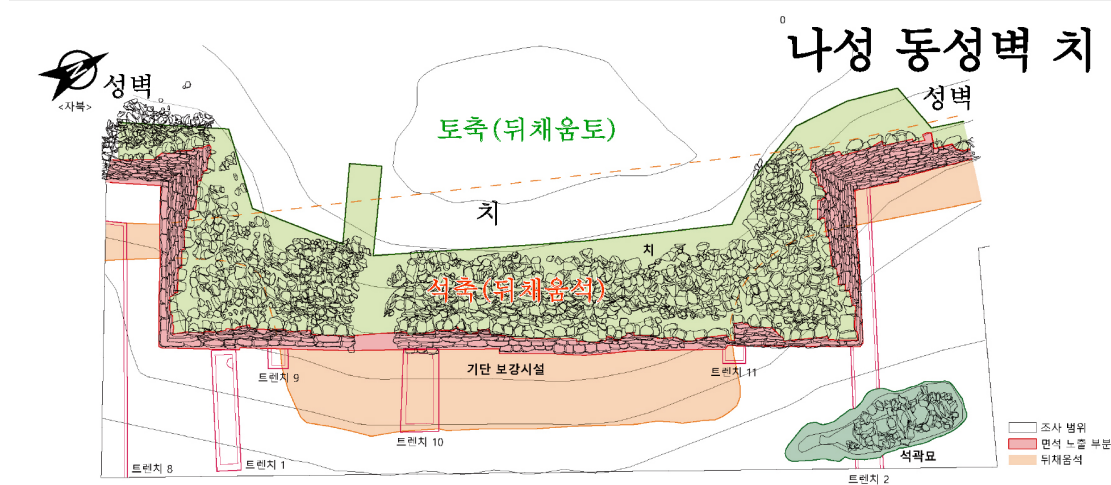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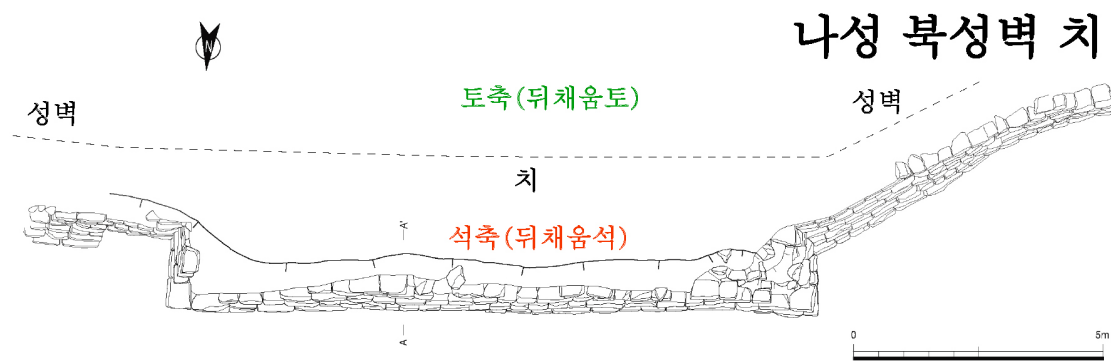
구분	축성 방식	규모 m (돌출 길이*너비)	평면	입지	치가 자리한 성벽진행 방향
부소산성 남성벽 치	순수 토축	7.5m이상(유실고려) *11m 이내	장방형 추정 (유실고려)	미악 능선 선상부	남-북방향 일반진행
부소산성 북성벽 치	토축+부석	9.7*5m 이상	돌출 긴세장방형	미악 능선 선상부	동-서방향 일반진행
나성 북성벽 치	석축부+토축부	1.2~1.4m*13.1m	세장방형	미악 능선 선상부	남-북방향 일반진행
나성 동성벽 치	석축부+토축부	5.1m*22.4m	세장방형	중심 능선 선상부	남동-정남 회절부 동나성 제 2문지 근접
백령성 북서벽 치	순수 석축	1.1m*6.47m	세장방형	중심 능선 선상부	서벽-북벽 회절부 북문지 근접

39)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2013, 『부여나성 -북나성 II』.  
백제고도문화재단, 2017, 『부여나성-북나성 VII -치성벽 내측조사-』.  
백제고도문화재단, 2018, 『부여나성-동나성 IV -능선리산구간 치·성벽-』.  
40)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1999, 『扶蘇山城 -整備에 따른 緊急發掘調査-』.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2000, 『扶蘇山城 -發掘中間報告書IV-』.  
41) 손영식, 2009, 『한국의 성곽』.  
42)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한국고고학전문사전 성곽·봉수편』.  
43) 이와 관련하여 성곽에서 방어상의 취약점인 성문 주변과 성벽이 꺾이는 회절지점, 성벽의 보강이 필요한 지점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각 지점은 각각 敵臺, 角臺, 城壁雉城으로 지칭한 연구도 있다(차민호, 2013, 『삼국시대 성곽의 치성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9쪽).



【도면 12】 부소산성 백제 치 평면도 및 조사 전경





【도면 13】 나성 및 백령성 치 평면도

첫째, 치의 축조방식은 4가지로 구분된다. 부소산성 남성벽 치는 순수 토축(판축)되었고, 가장자리는 신라에 의해 석재가 덧 붙여져 일부 변형된 상태이다(도면 12). 북성벽 치는 토축(판축)과 함께 가장자리가 부석(석축)된 것으로 추정된다(도면 12). 다음 나성의 동성벽과 북성벽 치는 석축부(외벽·뒤채움석)+토축부(뒤채움토)로 축조되었고, 백령성 북서벽 치는 순수 석축되었다(도면 13).

이 같은 축조방식 차이는 연결된 성벽의 축조방식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즉, 부소산성 남성벽 치(토축)와 연결된 성벽은 순수 토축(판축) 성벽이고, 북성벽 치(토축+부석)와 연결된 성벽은 “토축+부석”된 것으로 동일하다(도면 12). 나성 동성벽 치, 북성벽 치와 연결된 성벽은 모두 “석축부+토축부”이며, 백령성 북서벽 치와 접한 성벽은 순수 석축되었다(도면 13).

둘째, 규모와 평면이다. 부소산성 치는 성벽에서 돌출된 길이가 긴, 장방형(남성벽 치), 긴세장방형(북성벽 치)이다. 이중 북성벽 치는 남성벽 치에 비해 규모가 더 크고, 성벽 밖으로 더욱 돌출되었다(표 2). 이는 북벽구간 치가 전체 성벽구간 중 방어 기능의 보강이 가장 필요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부여 나성과 백령성 치는 성벽 돌출 길이가 짧고, 너비가 긴 세장방형이다. 나성 치 규모는 동성벽 치가 북성벽 치보다 2배 정도 크다(표 2). 이 역시 나성 구간 중 방어 기능 보강이 가장 필요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백령성 치는 1개소만 확인되나 치가 자리한 북서벽 일원의 방어 기능 보강이 가장 필요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정리하면, 치는 토축성벽(부소산성)에서 길게 돌출된 장방형, 긴세장방형 구조가 사용되고, 석축성벽(나성, 백령성)은 짧게 돌출된 세장방형 구조가 사용된다. 아무래도 백제는 석축성벽 단계에서는 짧게 돌출된 세장방형으로 정형화 한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입지와 성벽진행 방향이다. 입지는 모두 성벽을 관통한 주능선 선상부가 경유한 곳에 해당한다(도면 14). 다만, 주능선 선상부 돌출 정도가 미약한지, 크고 가장 중심을 이루는지에 따라 치를 정점으로 한 성벽 진행 방향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

먼저, 능선 선상부 돌출 정도가 미약한 부분에 입지한 치는 부소산성 남성벽 치와 북성벽 치, 그리고 나성 북성벽 치이다. 이들 능선 선상부는 주변 큰 줄기의 주능선 선상부에 비해 미약하다. 이와 같은 지형에서는 치와 연결된 성벽 진행 방향이 큰 변화 없이 기존에 연결되던 동-서방향 또는 남-북 방향으로 계속 연결된다(도면 14).



반면, 능선의 돌출 정도가 가장 크고 산세 능선의 중심 줄기를 이루는 주능선 선상부에 입지한 치는 나성 동성벽 치와 백령성 치이다. 이와 같은 지형에서는 치와 연결된 성벽 진행 방향이 치를 정점으로 크게 변화된다. 나성 동성벽 치는 남동방향에서 남쪽방향으로 크게 회절하고, 백령성 북서벽 치는 서벽에서 북벽으로 크게 회절한다(도면 14). 즉, 성벽이 크게 회절하는 모퉁이에 자리하게 된다.

이상 백제성벽 치의 축도방식, 평면, 규모, 입지, 성벽 진행 방향 등을 검토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구조적 차이와 기능이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첫째, 치의 축조방식은 순수 토축(판축), 토축+부석, 석축+토축, 순수 석축 등 네 가지가 있고, 이들 축조방식은 모두 연결된 성벽의 축성구조와 동일하게 축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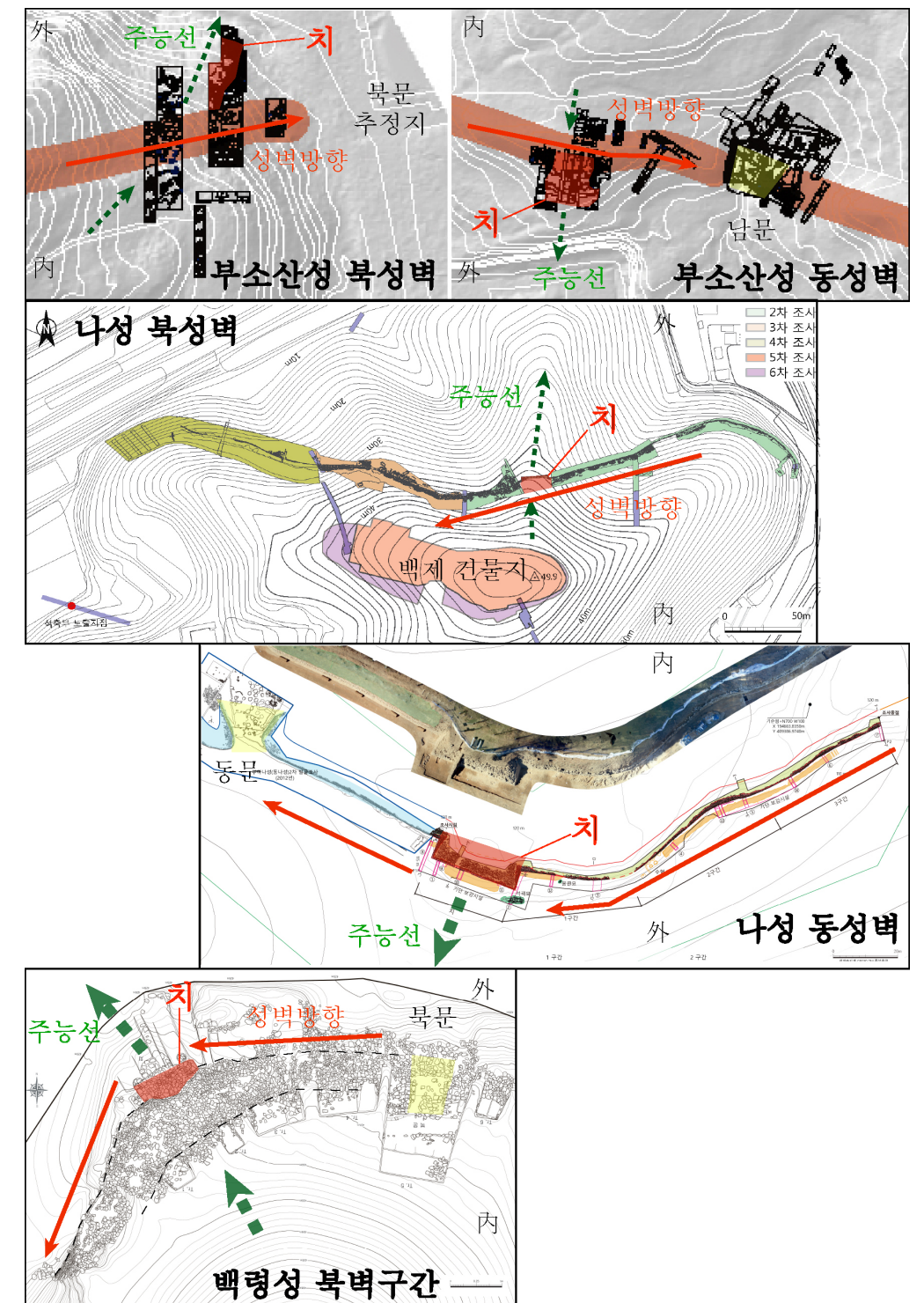
둘째, 치의 평면은 토축(순수토축, 토축+부석)이 중심을 이루는 경우 성벽 돌출부가 길은 장방형, 긴세장방형 구조가 중심을 이루고, 석축(석축+토축, 순수석축)이 중심을 이루는 경우 성벽 돌출부가 짧은 세장방형 구조가 중심을 이룬다.

셋째, 부소산성과 같이 토축성벽 사용에는 장방형, 긴세장방형 등 성벽에서 길게 돌출된 치가 시설된다. 하지만 나성, 백령성 등 석축성벽 사용단계는 모두 세장방형으로 성벽에서 짧게 돌출된 치만 시설된다. 아무래도 토축에서 석축성벽으로 사용되면서 치는 짧게 돌출된 구조로 정형화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길게 돌출된 구조와는 다른 짧게 돌출된 구조의 차별된 방어 기능의 필요에 의해 선택된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방어 기능이 요구되는 곳(즉 치가 시설되는 곳)은 성문, 중요시설(건물지), 성벽 회절부 등으로 파악된다. 부소산성 남성벽, 북성벽 치 주변은 모두 문지가 근접한다. 나성 북성벽 치 내부에는 백제 건물지군과 근접한다. 나성 동성벽 치는 성벽 방향이 크게 회절하는 지점(중심 줄기 주능선 선상부)이며, 주변에 동문이 근접한다.

백령성 북서벽 치는 성벽 방향이 크게 회절하는 지점(중심 줄기 주능선 선상부)이며, 주변에 북문이 근접한다. 이중 나성 동성벽 치와 백령성 북서벽 치는 동일한 설치 조건에서 시설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백제 성벽에서 확인되는 치의 검토 결과, 치가 확인된 지점은 모두 성문, 중요시설(건물지), 성벽 회절부 등에 방어력 강화를 위해 시설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해당 성내에서는 방어의 중요도에 따라 “문지 근접” 또는 “성벽 회절부+문지 근접”에 가장 규모 있게 치를



【도면 14】 백제 치 입지와 성벽 진행 방향 현황도



시설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만큼 성벽 회절부와 문지 일원이 적의 공격에 가장 취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취약지점(문지, 성벽 회절부, 성내시설 등)에 대한 방어 기능위해 시설된 치가 토축 성벽에서는 길게 돌출된 평면 장방형과 긴세장방형 구조를 사용하다가 석축 성벽에서는 짧게 돌출된 평면 세장방형 구조로 정형화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요소이다.

특히, 나성 동성벽 치와 백령성 치는 문지 근접, 성벽 회절부 등 일반적인 성벽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 두 곳이 집중된 적극적인 방어 기능이 요구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곳에 시설된 치는 성벽에서 길게 돌출된 구조가 아닌 짧게 돌출된 세장방형 구조를 선택하였다.

아무래도 짧게 돌출된 치가 길게 돌출된 치보다 더욱 방어 기능에 효율적이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앞서 연구된 입지에 따른 치의 명칭과 성격을 고려한다면, 나성 동성벽 치와 백령성 북서벽 치는 角臺의 기능에 해당할 것으로 파악된다. 문지에 근접하지만 약 20~30m 떨어져 있어, 문지에 접해 시설되어 문지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敵臺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큰 줄기의 주능선 선상부가 경유하면서 성벽이 크게 회절하는 취약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角臺의 기능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백령성 북서벽에 치가 조성된 조건을 고려하면, 아직 미조사지점이나 동일 조건을 지니고 있는 남동벽 모퉁이 지점(성벽 회절부+남문 근접)에도 치(각대)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백제 석축성벽에서 확인된 짧게 돌출된 세장방형 구조의 치는 정형화된 평면구조, 입지, 주변시설 등을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조성된 발달된 방어시설임을 알 수 있다.

## V. 백제 성곽 축조 기술상의 백령성 위치

### 1. 백제 석축 성벽의 몇 가지 축조기법과 백령성 성벽

현재까지 발굴 조사된 백제 석축성벽 가운데, 축조구조와 실체가 어느정도 파악된 성벽유적은 백령성을 포함해 약 13개소에 이른다<sup>44)</sup>. 그리고, 백제 석축성벽은 축조구조와 공정, 기법연구를 통해 성벽을 구성하는 석축부 구성에 따라 A.편축식 축조기법, B.편축+협축식 축조기법,

44) 최병화, 2022,『백제 사비기 지방도시의 성곽(성벽) 축조기술 연구』,『백제왕도핵심유적』, 문화재청.

C.협축식 축조기법 등으로 세분됨이 파악된 바 있다<sup>45)</sup>.

먼저 A.석축부의 편축식 축조기법이다. 공산성 동북벽구간, 가림성 동벽·북벽구간, 부여나성 동벽·북벽구간, 익산토성 북벽구간의 성벽에서 확인된다(도면 15).

축조기법은 ①경사면 굴착은 內高外低의 긴 사선 굴착이 중심을 이룬다. ②기저부 는 끝단을 턱진 굴착 후, 외벽석을 놓고 전면에 얇게 성토(보강)하여 마감하였다. ③외벽석은 모두 방형·장방형으로 치석된 석재를 사용하여 수평열 쌓기하였다. ④특징적인 점은 외벽석(면석)과 뒤채움석 뒤쪽으로 길게 흠다짐된 토축부가 함께 조성된다. 전체적으로 석축부의 뒤채움석은 30%, 토축부 뒤채움토는 70%로서 약 3:7 정도의 구성 비율을 이룬다. 그리고, ⑤성벽 완공은 내벽 축조가 어려운 구조로서 성내지면은 구름과 같이 돌출된 형상을 이룬다.

다음, B.석축부의 편축+협축식 축조기법이다. 대전 보문산성 동벽과 서벽, 고부 고사부리성(중방성) 남벽 등지에서 확인된다(도면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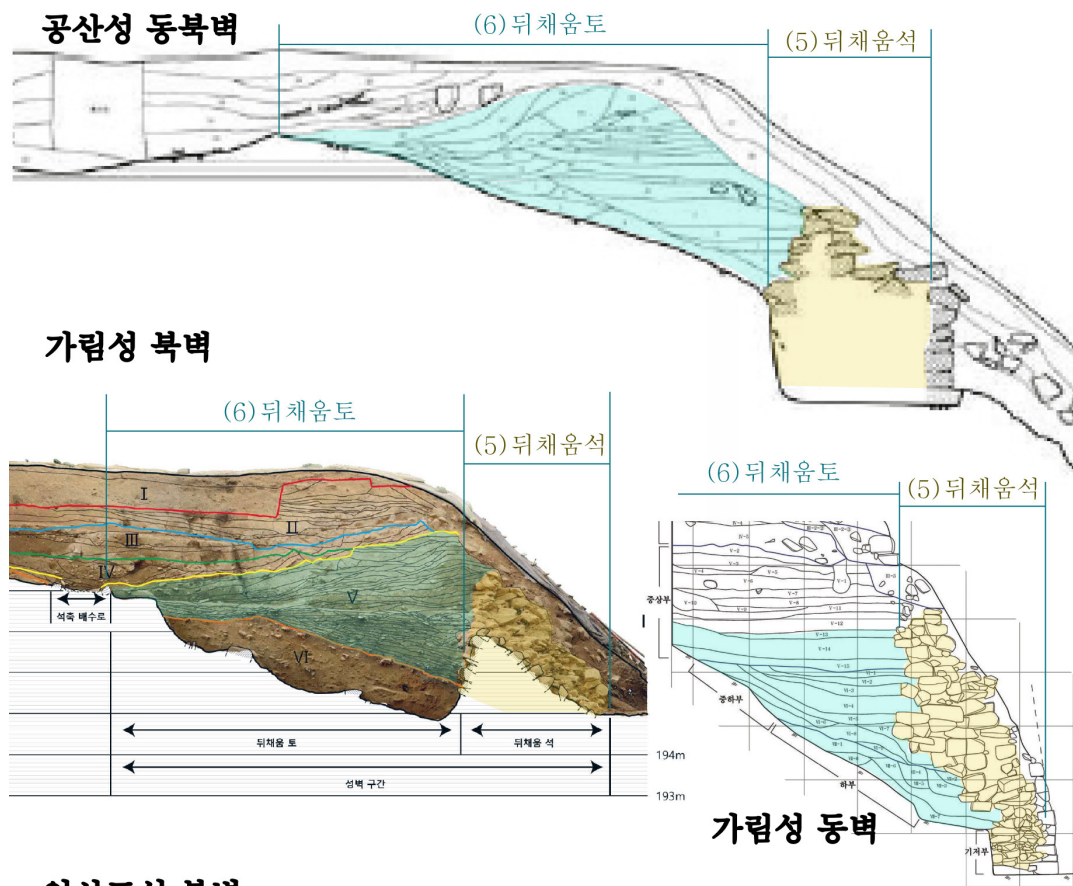
축조기법은 ①경사면 굴착은 內高外低로서 일부 굴곡진 부분도 있지만 긴 사선 형태가 중심을 이룬다. ②기저부 끝단은 턱진 굴착 후, 외벽석을 놓고 전면에 얇게 성토(보강) 마감하였다. ③외벽석은 모두 방형·장방형으로 잘 치석된 석재를 사용하여 수평열 쌓기하였다. 앞선 A.편축식 성돌보다는 잘 치석하였다. ④뒤채움석과 뒤채움토의 구성비는 약 9:1로서 뒤채움석 구성이 월등히 증가하고, 뒤채움토 비율은 감소한다. ⑤성내지면 높이까지 편축식으로 뒤채움석과 뒤채움토로 수평하게 조성하고, 성내지면부터 위로는 다시금 석축부를 협축하여 내외벽을 높게 축조하여 마무리하였다.

다음 C. 석축부의 협축식 축조기법이다(도면 17~18). 공산성 북벽(공북루), 정읍 고사부리성 북서벽, 마로산성 북벽, 노성산성 서벽, 백치성 동벽, 검단산성 동벽, 고락산성 서남벽(문지 주변) 등에서 확인된다.

축조기법은 ① 경사면 굴착은 內高外低로서 계단식이다. ② 기저부 끝단은 턱진 굴착 후, 외벽석을 놓고 전면에 얇게 성토(보강)하여 마감하였다. ③ 외벽석은 방형과 장방형으로 아주 매끈하게 잘 치석하여 수평열 쌓기도 하지만 부정형으로 거칠게 쪼개진 할석을 사용한 허튼층 쌓기도 확인된다. ④ 굴착된 기저면에서부터 내외벽을 맞춘 협축식으로 바로 축조한다. ⑤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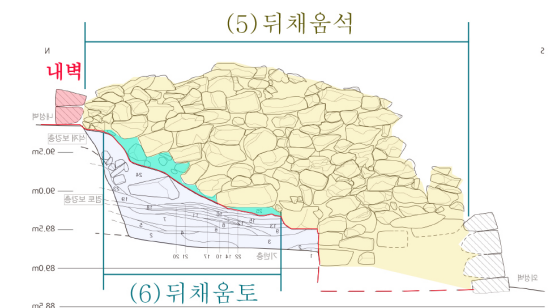
45) 최병화, 2022,『백제 사비기 지방도시의 성곽(성벽) 축조기술 연구』,『백제왕도핵심유적』, 문화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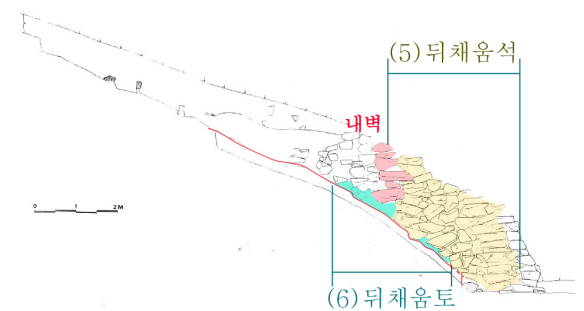


【도면 15】 A. 석축부 편축식 축조기법 조사현황 (뒤채움석 2~30%, 뒤채움토 7~80%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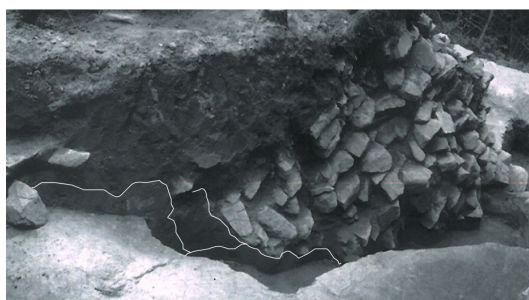
### 고사부리성 남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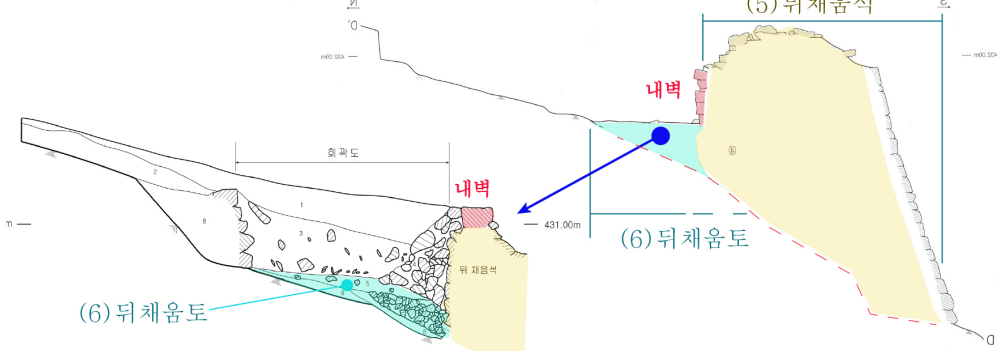
### 보문산성 동벽



### 보문산성 서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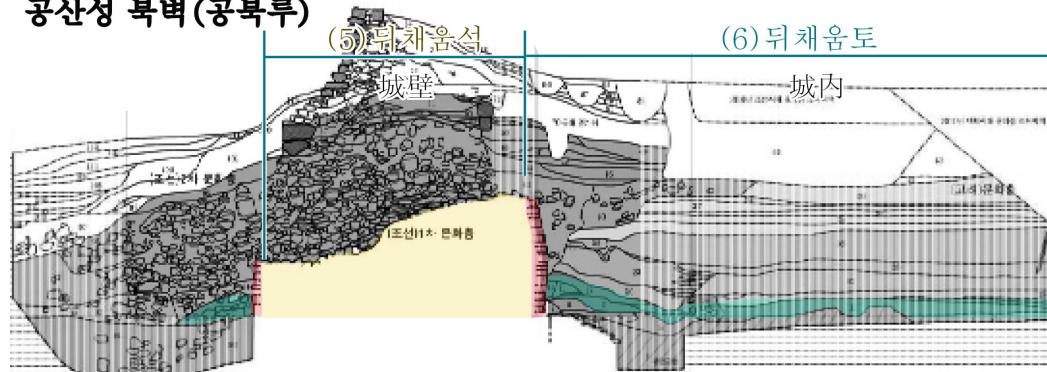
### 백령산성 남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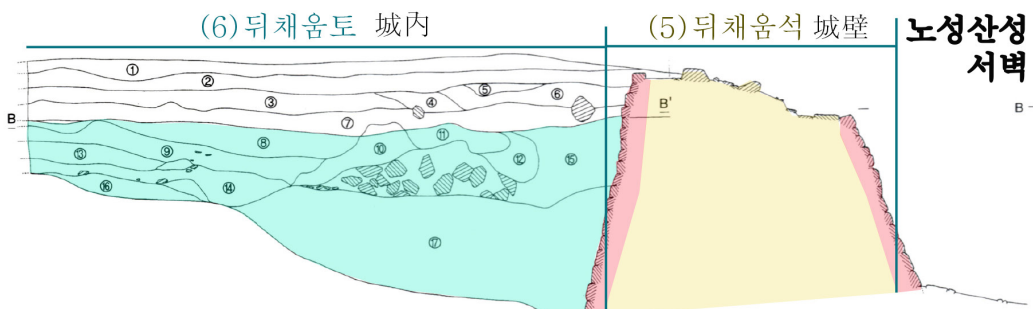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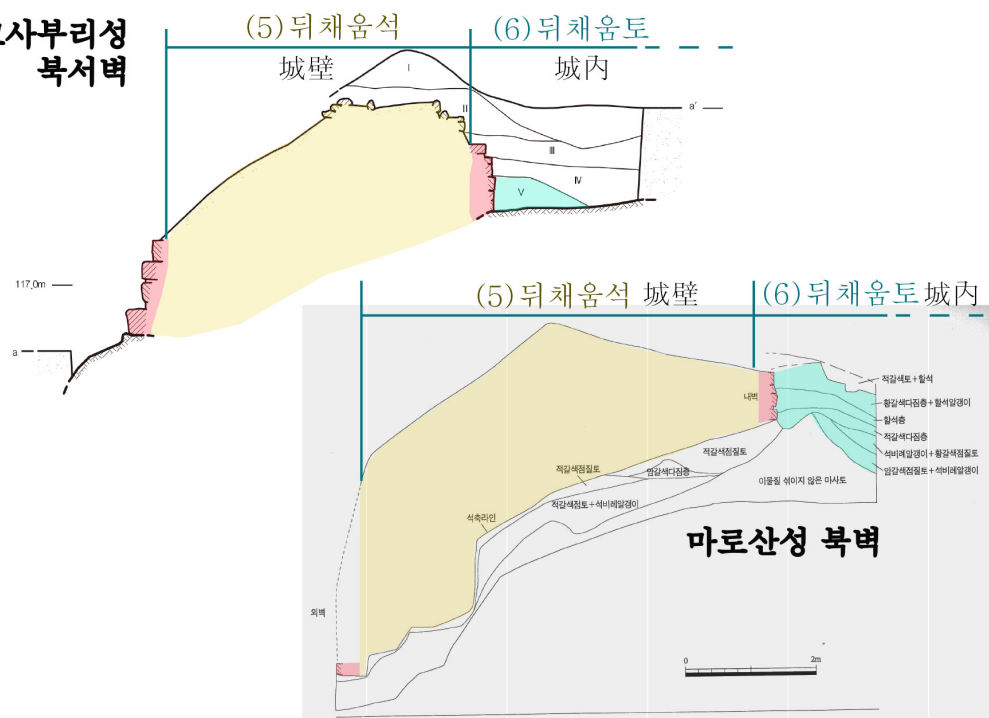
【도면 16】 B. 석축부 편축+협축식 축조기법 조사현황 (뒤채움석 90%, 뒤채움토 10% 현황)



### 공산성 북벽(공북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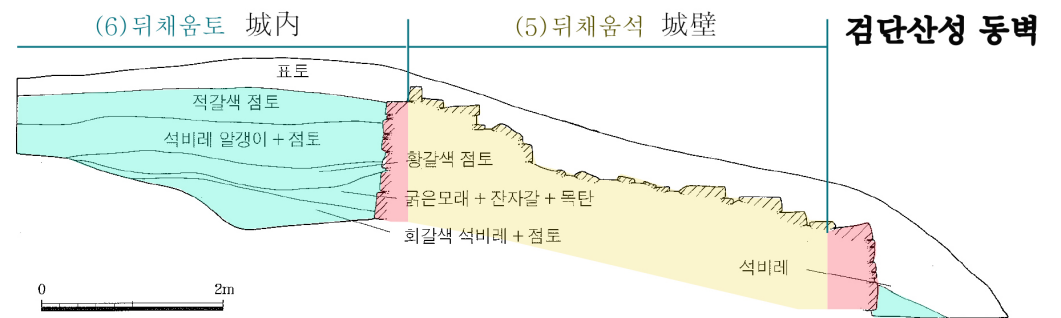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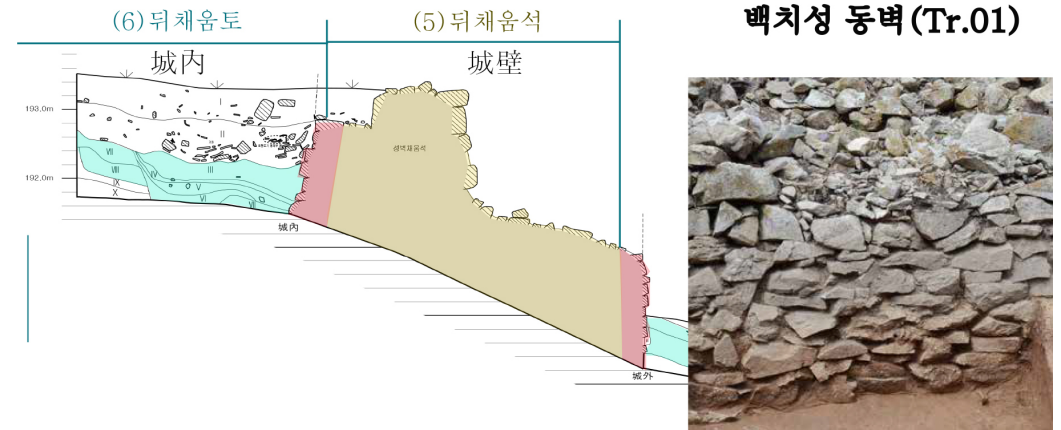


### 고사부리성 북서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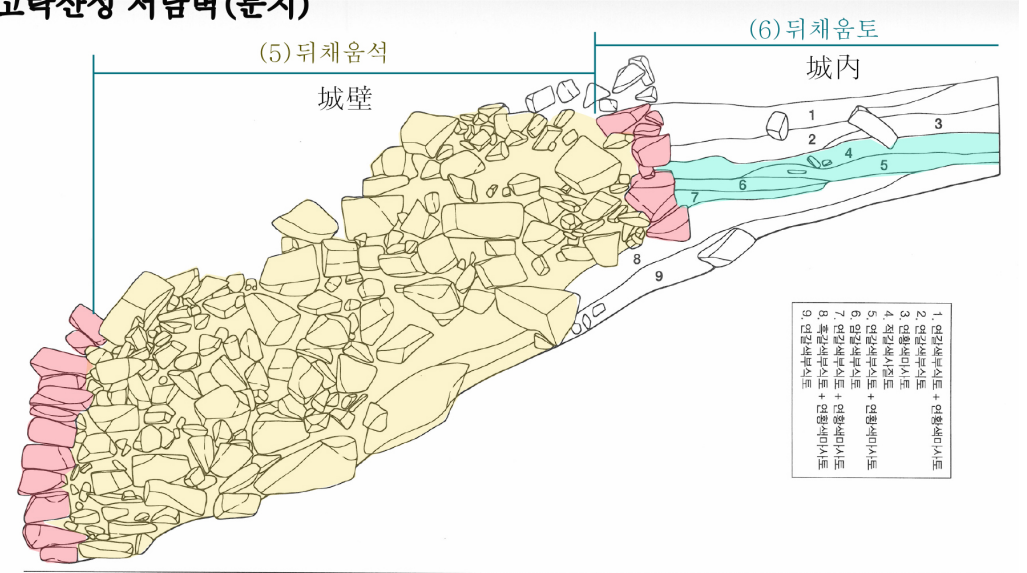


【도면 17】 C.석축부 협축식 축조기법 조사현황 (뒤채움석 100%, 뒤채움토 성체와 구분됨)

### 백치성 동벽(Tr.01)



### 고락산성 서남벽(문지)



【도면 18】 C.석축부 협축식 축조기법 조사현황 (뒤채움석 100%, 뒤채움토 성체와 구분됨)



서 앞선 A와 B의 축조기법에서 나타난 흙다짐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협축식 성벽 축조 이후, 내벽 전면에 흙다짐하여 성내지면을 수평하게 조성한다. 즉, 뒤채움토는 성내지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앞선 A와 B의 편축식 구조와 달리 성벽 본체의 구성요소와는 분리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석축 성벽의 축조기법을 고려할 때, 백령성의 석축성벽은 B.석축부의 편축+협축식 축조기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도면 16). 즉, 백령성의 성벽 축조기법을 정리하면, ① 경사면 굴착은 성벽을 관통하는 전면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하지 않지만 內高外低로서 단진 사선 형태 굴착된 것으로 파악된다.

② 기저부 끝단은 턱진 굴착 후, 외벽석을 놓고 전면에 성토(보강)하였고, ③ 외벽석은 방형·장방형으로 치석된 석재를 사용하여 수평열 쌓기하였다. ④ 뒤채움석과 뒤채움토의 구성비는 80~90%이상 대부분이 석축부로 구성되고, 성내 트렌치에서 흙다짐으로 끝마무리한 현황이 파악된다. ⑤ 성내지면 높이까지는 편축식으로 뒤채움석하면서 뒤채움토로 수평 조성하고, 성내지면 높이부터는 다시금 석축부를 협축하여 내외벽을 돌출되게 조성하였다.

그동안 백제 석축성벽에 대한 축조기법은 별도의 외벽 기단보축 시설 없이, 기저부 턱진 굴착에, 방형 및 장방형의 잘 다듬은 석재로 수평열 쌓기한 편축과 협축 구조가 중심을 이룬 것으로 여겨져왔다<sup>46)</sup>.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백제 성벽 대다수가 이 같은 구조에서 대동소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최근 연구성과를 볼 때 “A.편축식-B.편축+협축 겸용-C.협축식” 등으로 구조와 축조기법이 세분되며, 백령성은 이 가운데, “B.편축+협축 겸용”의 방식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축조기술이 적용된 시기에 대해서는 A.편축식 축조기법은 공주 공산성, 부여 가림성, 부여 나성, 익산 익산토성 등에 적용된 만큼, 웅진 및 사비, 익산 등 왕도 공간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유적에서만 확인되며, 특히 공산성과 가림성, 나성 등은 이미 오랜 연구를 통해 웅진기 또는 사비 천도 직전 후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A.편축식 축조기법은 백제 웅진기에는 이미 완비된 축조기술로 파악된다.

B.편축+협축식 축조기법은 정읍 고사부리성(중방성), 대전 보문산성, 금산 백령성 등에서 확인된다. 고사부리성은 백제 내륙 지배체제 형성 위한 오방성 가운데 하나로서 백제 핵심의

거점성이다. 그리고, 대전 보문산성과 금산 백령성은 신라와의 대립이 첨예한 백제 동계 일원에 배치된 사비기 관방유적이다.

따라서 유적현황을 고려할 때 B.편축+협축식 축조기법은 백제 내륙과 접경지역에 관방과 통치체제의 수립 과정에서 적용된 기술로 파악된다.

C. 협축식 축조기법은 공주 공산성 북벽(공북루)구간, 정읍 고사부리성 북서벽, 논산 노성산성 서벽, 광양 마로산성 북벽, 고흥 백치성 동벽, 순천 검단산성 동벽, 여수 고락산성 및 고락산 보루 성벽 등에서 확인되며, 이들 유적은 백제 고토 전역의 군·현 소재지에 해당한다. 특히, 정읍 고사부리성 서문지에서 B.편축+협축 축조 이후 C.협축식 축조로 변화됨을 볼 때, C.협축식 축조기법은 B.축조기법과 함께 사비기 방-군-성의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적용된 축조기술로 파악된다.

이상 검토된 석축 성벽의 축조기술은 적어도 웅진기부터 사비기까지 계기적인 변화단계를 거쳐 변화된 것으로 파악된다(표 3, 도면 19). 그리고, 성벽 축조기술 목적은 웅진~사비기 백

[표 3] 석축부(외벽+뒤채움석) 구조와 축조기법에 따른 유적 현황 일람표

A. 편축식 축조기법	B. 편축+협축식 축조기법	C. 협축식 축조기법
.공산성 동북벽구간		.공산성 북벽(공북루) 구간
.가림성 동벽·북벽구간	.고사부리성 남벽구간	.고사부리성 북서성벽 구간
.부여나성 동·북구간	.보문산성 동벽·서벽구간	.노성산성 서벽구간
.익산토성 북벽구간	.백령산성 남벽·북벽구간	.마로산성 북벽구간
		.백치성 동벽구간
		.검단산성 서·동·북벽구간
		.고락산성 서벽·남벽구간
		.고락산 보루 서벽·남벽 구간

46) 서정석, 2002, 『백제 성곽 연구 -웅진·사비기를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제 고토에 대한 통치체제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맞추어 변화된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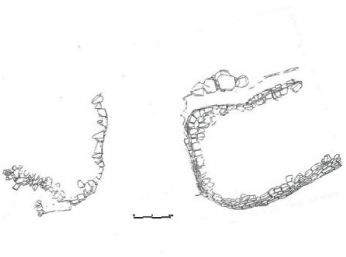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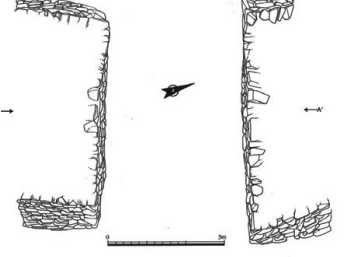

다시 정리하면 적어도 웅진기에는 A.편축식 축조 기법, 사비천도 직후를 기점으로 한 6C 중반 이후부터는 B.편축+협축식 축조기법과 C.협축식 축조기법 등이 순차적으로 적용되었고(도면 19), 이 과정에서 금산 백령성은 내륙과 접경지역의 관방 및 통치체계를 갖추기 위해, B.편축+협축식 축조기술이 적용되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 2. 문지와 치의 축조기술과 운영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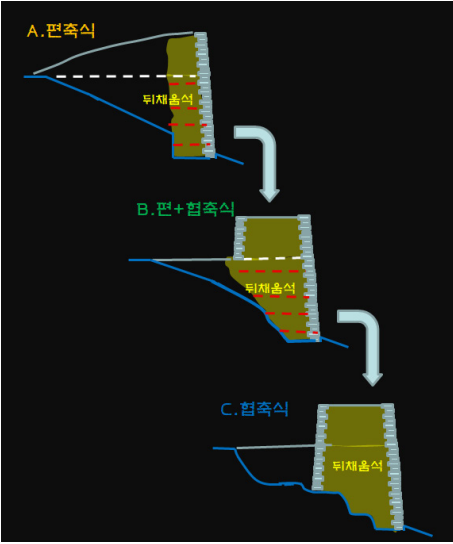
### 1) 문지

백제 석축산성 문지는 백령성 같은 측면 선단부를 곡면 처리한 현문식 구조 이외에도 개거식과 엇문식 등에서도 곡면 처리가 확인된 바 있다<sup>47)</sup>. 구체적으로 문지의 내외벽 선단부가 곡면과 직각 구조에 따라, 곡면+곡면(외벽-내벽), 직각-직각, 곡면-직각(외벽-내벽) 등으로 구분됨이 파악되고 있다(표 4).

[표 4] 백제 석축산성 문지 측면 선단부 처리 사례(최병화, 2015)

곡면 - 곡면 (전면 - 뒷면)	직각 - 직각	곡면 - 직각
		
대전 보문산성 서문	여수 고락산 보루 동문	광양 마노산성 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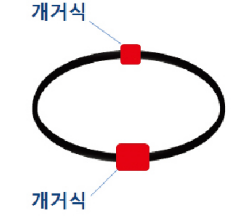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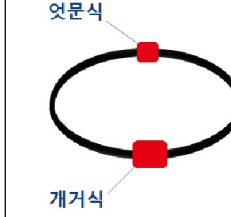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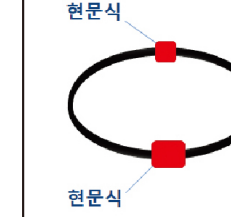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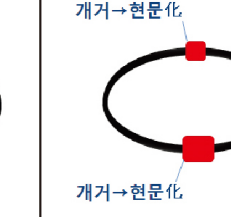
47) 최병화, 2015, 「百濟 石築山城의 城門構造와 變遷過程」, 『야외고고학』 23, 한국문화유산협회.



【도면 19】 백제 석축성벽 축조기법 변화도  
(〔최병화 2022〕뒤채움토 성체와 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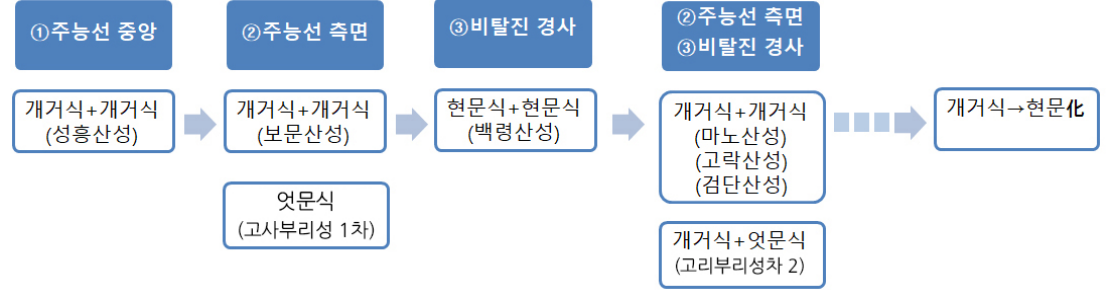
또한, 해당 산성에는 문지가 2~3개 정도 형성되는데, 이들 문지의 형식에 따른 조합 구조도, 개거식과 개거식만 조성된 경우, 개거식과 엇문식이 함께 조성된 경우, 현문식과 현문식만 조성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 중에는 개거식이 현문식化 경우도 있어, 문지의 형식에 따른 발달 형태가 함께 연구되기도 하였다(표 5).

[표 5] 백제 석축산성 문지 형식 조합 사례(최병화, 2015)

가) 개거식만 축조	나) 개거식, 엇문식 축조	다) 현문식만 축조	라) 개거→현문化만 축조
			
성흥산성(동·남문1차) 보문산성(서·남문) 마노산성(동·서·남문1차) 검단산성(서·남·북문1차) 고락산성(서·남문1차)	고사부리성 (엇문 - 서·북문1~2차) (개거식 - 남문)	백령산성(북·남문)	성흥산성(동·남문2차) 마노산성(동·서·남문2차) 검단산성(서·남·북문2차) 고락산성(서·남문2차)

이와 같은 문지의 형식에 따른 조합과 입지적인 측면이 결부되어, 문지의 적용 양상이 정리된 바 있다. 즉,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6).

[표 6] 백제 석축산성 문지 입지와 문지 형식 조합 적용 양상(최병화 2015에서 수정)



첫째, 가) 개거식만 축조된 경우는 5개소에서 나타나며(표 5), 입지는 가림성(성흥산성) 성문은 ‘①주능선 중앙’만, 보문산성 성문은 ‘②주능선 측면’만, 마노산성과 검단산성, 고락산성 등



은 ‘②주능선 측면~③비탈진 경사면’의 복합으로 확인된다(표 6). 개거식만 축조된 조합방식은 다양한 입지 변화에도 꾸준히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나) 개거식과 엇문식이 축조된 경우는 고사부리성 1곳에서 나타나며(표 5), 입지는 ‘②주능선 측면~③비탈진 경사면’의 복합으로 확인된다(표 6). 엇문식+엇문식만 축조한 경우가 명확하지 않아<sup>48)</sup>, 개거식 성문이 꾸준히 사용되는 현황 속에 선택적인 축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주로 方·郡·縣의 거점성에서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다) 현문식만 축조된 경우는 백령성 1곳에서 나타나며(표 5), 입지는 ‘③비탈진 경사면’만 확인된다(표 6). 현문식 성문과 ③비탈진 경사면 입지는 출입이 가장 어려운 구조로서, 현문식만 축조된 조합방식은 백제 석축산성 성문 가운데 방어에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화된 최종 형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까지 백제 고토의 내륙에서 현문식+현문식이 확인된 바 없어, 접경지역 산성에만 적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라) 개거식→현문화만 축조된 경우는 “개거식만 축조된 5개소 산성”가운데, 보문산성을 제외한 4개소 산성에서 나타난다(표 5). 다양한 입지 변화 속에서 꾸준히 축조된 ‘개거식+개거식’ 성문 조합은 현문식 성문 등장과 함께 방어에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개·보수가 이루어져 현문화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정리하면 성문조합은 입지와 출입구 형태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순차적인 적용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되며, 그에 따른 구조 변화과정을 정리하면 입지는 ‘①주능선 중앙 → ②주능선 측면 → ③비탈진 경사면’ 순으로 변화되고, 형태는 ‘①개거식 → ②엇문식 → ③현문식 → ④개거→현문화’가 순차 적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둘을 포함한 산성 내 문지 조합만으로 본다면 변화는 표 6과 같은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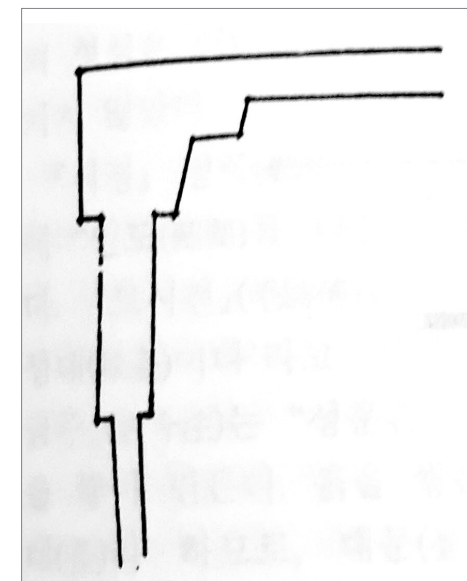
48) 엇문식+엇문식의 존재는 차후 검토에 따라 입증될 수 있다. 개거식+엇문식(2개소) 구조를 이루는 고사부리성의 서문지 경우 1차(하부 : 엇문식, 선단부 직각-직각, B.석축부 편축+협축 성벽 축조기법 추정)와 2차(상부 : 엇문식, 선단부 곡선-곡선, C.석축부 협축식 성벽 축조기법) 등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사부리성 1차의 문지 구조와 성벽의 축조기법을 고려할 때, 1차(주능선 측면) 엇문식+엇문식 존재 후, 2차(비탈진 경사) 개거식이 새롭게 더해져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차후 자세한 검토를 통해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즉, 성문의 입지·출입구 형태·조합방식은 그 형태가 다양하면서도 의외로 일관성 있고 점진적인 설계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금산 백령성 문지는 현문식 구조로 조합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화된 방어 기술이 가미된 것으로, 접경지역에 배치된 백제 산성의 특수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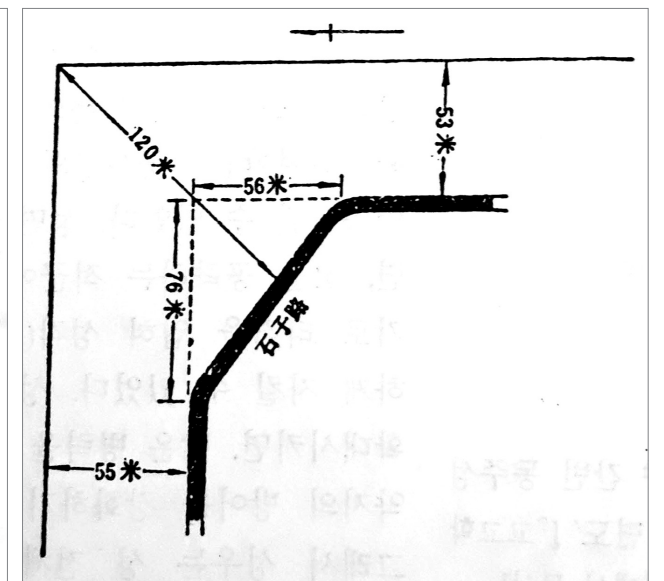
## 2) 치

앞서 검토된 현황을 보면, 백제 석축성벽 치는 성벽에서 돌출된 부분이 짧고, 너비가 길은 평면 세장방향 구조로 정형화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성곽의 취약한 부분 중 문지 주변에 설치된 敵臺, 성벽 회절부에 설치된 角臺, 성벽 구간중 취약한 부분에 설치된 城壁雉城 등의 구분됨을 고려할 때<sup>49)</sup>, 나성의 동성벽 치와 백령성 북서벽 치는 문지와 근접하면서도 성벽 회절부에 입지한 角臺로 파악되었다.

본래 角臺는 성벽이 회절하는 성곽의 모서리 부근에 위치한 것으로 성 밖으로 돌출된 구조를 통해 적을 경계하고 감시하기 위한 시야각을 확보한 것이다<sup>50)</sup>. 각대가 위치한 성곽 모서리 부



【도면 20】 낙양 간빈 공주성 서북 성각 평면도  
(고고학보, 1959년 2기 모사 : 賀業鉅 1995)



【도면 21】 제나라 임치성 소성 성각 동북각 개념도  
(문물, 1972년 5기에서 모사 : 賀業鉅 1995)

49) 차민호, 2013, 『삼국시대 성곽의 치성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49쪽.

50) 차민호, 2013, 『삼국시대 성곽의 치성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5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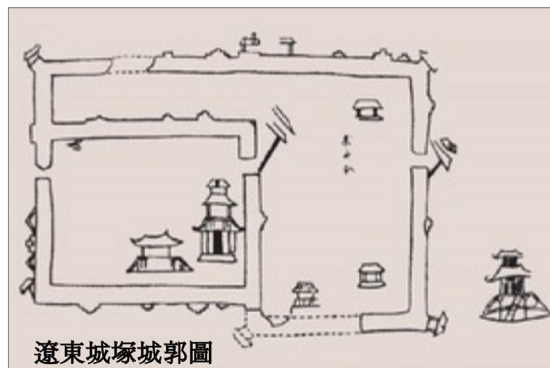
근은 성벽이 회절하면서 다른 성벽 상부보다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점이다. 따라서 다른 성벽에 비해 폭이 넓고 두꺼우며, 쉽게 건축물을 조성하기에 용이하다.

이미 각대는 오래전 중국 도성에서 채택된 중요 방어시설이었다. 중국 고대 도성에서는 城隅(城角)라 하여 왕성(궁성) 또는 관의 모퉁이에 성벽을 더욱 두껍게 돌출시켜 보호하였다<sup>51)</sup>(도면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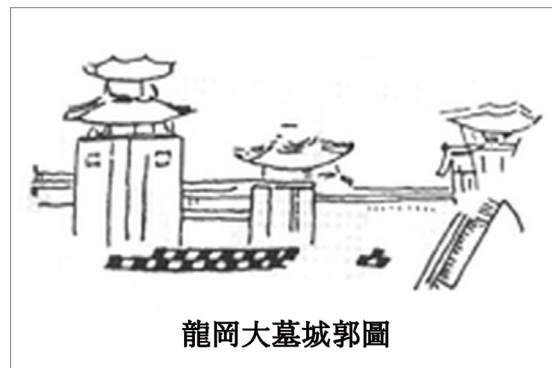
『周禮』考工記에도 城隅는 문지와 함께 중요 부분으로 인식되었고, 성벽의 높이 또한 주변 성벽보다 2치(장) 이상 높게 축성하도록 제도화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sup>52)</sup>.

주변 성벽보다 높고, 두껍게 성벽을 조성하고 누각을 조성한 현황은 “요동성총성곽도”, “용강대묘 성곽도” 등에서 확인되며(도면 22~23), 고구려의 경우 집안의 국내성에서 조사된 바 있다<sup>53)</sup>(도면 24).

그리고, 이처럼 짧게 돌출된 각대는 하남 이성산성<sup>54)</sup>, 반월산성<sup>55)</sup>, 봉대산성<sup>56)</sup>, 마로산성<sup>57)</sup> 등 신라뿐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적용된 점이 확인된다.



【도면 22】요동성총성곽도



【도면 23】용강대묘성곽도

51) 성우는 곧 城角으로 성의 네 모서리를 성원(성벽)보다 2장(치) 더 높게 하여 성을 방어하는 보루로 삼는 것을 말한다. 마치 병풍을 설치하듯이 성의 방어를 강화하였으므로, 한나라 때 학자인 정현은 성우를 각부사(角浮思)라고 비유하였다(賀業鉅 저 윤정숙 역, 1995, 『중국 도성제도의 이론-주례 고공기의 도성제-』, 이회 출판사, 102~105쪽.)

52) 『주례』冬官「考工記」匠人營國. “王宮門阿之制五雉, 宮隅之制七雉, 城隅之制九雉.” 라하여 왕궁의 門阿는 5雉로 규제하였으며, 宮隅는 7치로 규제되었다. 城隅는 9치로 규제되었다.(해석은 金義遠, 1982, 『周禮考工記(抄)』, 國土開發研究院, 33쪽. 朴漢濟, 2014, 『周禮』考工記의 ‘營國’ 원칙과 前漢 長安城의 구조, 중국고중세사연구 34, 중국고중세사학회, 47쪽.을 참고하였다.)

53)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國內城』, 文物出版社., 40~43쪽.

54) 漢陽大學校博物館, 2003, 『二聖山城 10次 發掘調査報告書』.

55) 단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2004, 『포천 반월산성 -종합 보고서-』.

56) 목포대학교박물관, 2007, 『무안 봉대산성』.

57) 순천대학교박물관, 2011, 『광양 마로산성 III -성벽·문·치-』.

즉, 짧고 넓게 돌출되는 치의 구조는 사각과 시야각을 확보하여 산성에 배치되었을 때, 효율적인 방어효과를 기대할 수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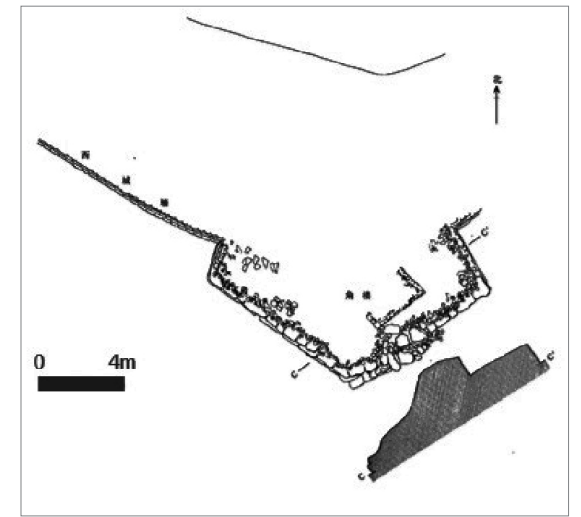
이 같은 기존 중국 및 고구려 도성에 일찍이 적용된 각대(城隅)의 기능을 고려하면, 백제는 사비도성에 적극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관에 해당하는 나성의 동성벽 치와 북성벽 치는 성벽에서 짧게 돌출된 구조를 택하여, 주변 성벽보다 두껍고, 약 2치(장) 이상 높게 축조하여 누각 형태의 건축물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본래 나성 북성벽 치는 성벽 안쪽에 중요 백제 건물군이 자리한다. 따라서 북성벽 치는 성벽을 두껍고 높게 조성하면서, 치의 뒤쪽으로도 지형을 넓게 굴착 후 성토하여 규모 있는 건물이 자리할 수 있도록 대규모 평탄지를 조성하였음이 확인되었다<sup>58)</sup>. 즉, 길게 돌출된 치정보다는 높은 건축물을 조성할 수 있는 짧고 긴 세장방향 구조의 각대를 구비하여 방어의 취약성을 보완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다면, 나성 동성벽 치의 경우는 더할 나위 없이 각대 구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동성벽 치가 자리한 곳은 문지와 근접하면서 성벽이 회절 되는 곳으로 적의 공격과 방어에 가장 취약한 곳이다. 따라서 동성벽 치(각대)는 북성벽 치보다 2배 이상 큰 규모로 조성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상면으로 높은 구조의 건물을 조성하여 방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성벽에서 짧게 돌출된 세장방향 구조의 각대는 성벽에서 길게 돌출된 부소산성의 치와는 차별된 것이다. 아무래도 사비도성의 성곽체제에서 무엇보다 적을 먼저 맞이하는 관(나성)에 적용된 적극적인 방어시설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사비도성의 관보다 더 멀리 우선적으로 적과 조우하는 백제 동계에 위치한 백령성의 경우 접경지역에 위치한 특수성으로 인해, 성벽의 회절부에 각대와 같은 적극적인 방어



【도면 24】국내성 서안 각루 평·단면도

58) 백제고도문화재단, 2017, 『부여나성-북나성Ⅶ-치성벽 내측조사-』. 고찰에서는 치를 墩臺로 추정하였다.



시설을 구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백령성 북서벽 치는 서벽과 북벽이 회절하는 방어 취약지점이며, 또한 문지도 근접해 이에 대한 효율적인 시설 보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백령성 치의 상부시설 대부분이 유실되어 당시 완성 형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주변 성벽보다 두꺼운 현황을 고려하면(도면 14), 역시 주변 성벽보다 높고 두껍게 축조되고, 그 상면에는 높은 구조의 건축물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백령성 서북벽 치에 대한 해석은 이미 기존 연구에서도 사방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건물(鋪舍)와 함께 설치한 시설물 즉, 角樓가 설치된 것으로 보는 구체적인 연구가 있다<sup>59)</sup>.

이와 같은 현황을 고려하면 아직 백령성 가운데 미조사된 남벽과 동벽이 연결되는 회절부(남동벽) 성벽 구간 역시 남문과 근접한 동일 조건을 고려할 때, 치(각대)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 VI. 맺음말

백령성 성벽, 성문, 치를 검토하여 축조 공정과 기법, 기능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백제 석축성곽의 전반적인 축조 기술상에서 백령성의 위치도 함께 가늠해 보았다. 이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백령성 성벽의 축조기법은 경사면 굴착, 기저부 끝단 턱진 처리, 장방형 및 방형 치석 후 내외벽 수평열 쌓기 등 일반적인 백제 석축산성 현황이 확인된다. 다만, 뒤채움석(석축부)과 뒤채움토(토축부)의 구성비 약 90% : 10%이며, 성내지면 높이까지 편축식, 성내지면부터 협축식으로 겸용한 특징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까지 연구된 백제 석축성벽 축조기법 A.편축식 축조기법(석축부 30% : 토축부 70% - 공산성, 가림성, 나성, 익산토성 등) → B.편축+협축식 축조기법(석축부 90% : 토축부 10% - 보문산성, 고사부리성 등) → C.협축식 축조기법(석축부 100%, 토축부 성체에서 분리 - 고사부리성, 노성산성, 마로산성, 백치성, 검단산성, 고락산성 등)의 변화를 고려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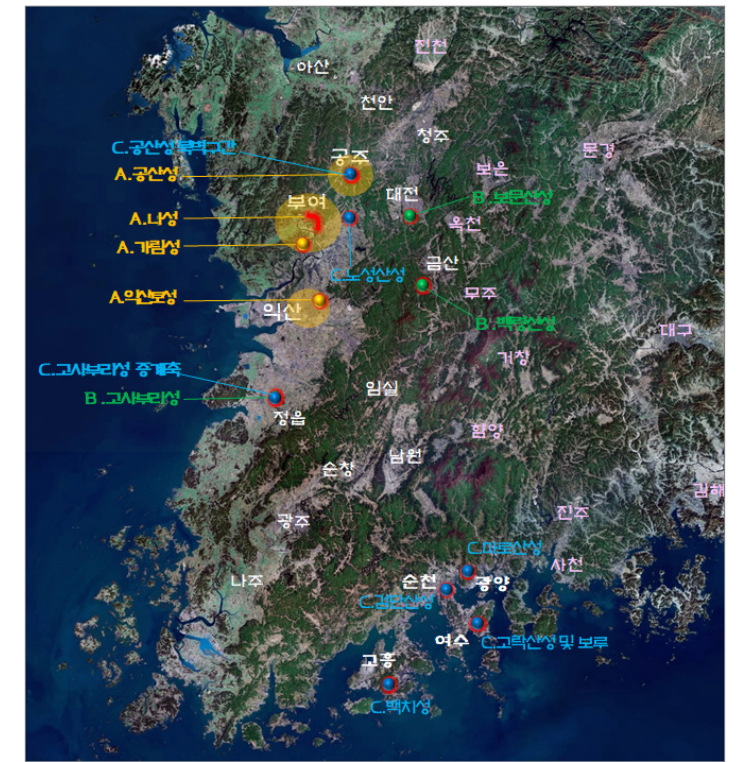
백령성은 B.편축+협축식 축조기법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성벽 축조기법 적용 시기는 웅진기 A.편축식 축조기법, 사비천도 이후 B.편축+협축식 축조기법과 C.협축식 축조기법 등이 순차 적용된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리고, B.편축+협축식 축조기법은 사비 천도 후 백제 내륙과 변방 등, 통치와 관방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것으로 금산 백령성은 역시 동일 과정속에 접경지역에 축조된 것으로 파악되었다(도면 25).

백령성 현문식은 바닥면 흙다짐 처리, 단면 內高外低형, 선단부 곡면처리 등 신라 현문식과 다른 백제 문지 구조가 반영됨을 확인하였다. 이에 관해 기 연구는 백제산성 내 존재한 2~3개 문지의 성문 조합과 입지 적용 과정을 정리한 바 있는데, 입지는 ‘①주능선 중앙→②주능선 측면→③비탈진 경사면’ 순으로 변화되고, 형태는 ‘①개거식→②현문식→③엇문식→④개거→현문화’가 순차 적용된 것으로 보았다.

문지는 입지·형식·조합방식 등 그 형태가 다양 하면서도 일관성 있는 점진적인 설계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고려하면 백령성 문지는 비탈진 경사면, 현문+현문식 구조만 조성된 것으로, 가장 발달된 기술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현문+현문식 구조 조합은 백제 고토 내륙의 어떤 城址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백령성 유일의 것으로 접경지역에 배치된 백제산성의 특수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백령성 치는 성벽 돌출된 길이 짧고, 너비가 긴 세장방형 구조로, 백제 석축성벽에서는 나성



【도면 25】 백제 석축성벽 A~C. 축조기법 유적 분포도

59) 백종오, 2017, 「高句麗 城郭 築城術의 擴散에 대한 豫備的 檢討」, 『고구려발해연구』 59, 고구려발해학회, 231~233쪽.



동성벽 치와 북성벽 치 등과 함께 총 3개소 정도만이 확인되는 중요 자료이다. 부소산성의 토축성벽 치와는 다른 구조로서 석축성벽에서 정형화된 구조로 이해된다.

그리고, 성내 취락지점에 위치한 치(성문 敵臺, 회절부 角臺, 성벽구간 城壁雉城)의 명칭과 성격을 고려할 때, 백령성의 치는 문지에 근접하면서도 회절부에 자리하고 있어 일반적인 치가 아닌 각대를 설치한 것으로 여겨진다. 각대(角樓)는 상면에 누각과 같은 높은 구조의 건물을 조성, 넓은 시야 확보하여 방어하는 기능으로 이를 위해 백령성 치의 성벽은 주변보다 두껍고, 높게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각대는 성우, 성각이라 하여 이미 문지 등과 함께 중국 고대 도성의 축성방식에 제도화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었고, 중국 및 고구려 도성에서도 조사되었다. 백제는 나성에서 2개소 확인되고 있어, 사비도성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 백령성과 관련된 성벽, 문지, 치 등의 구조와 기능을 검토하고, 백제산성의 축조기술 변화상에서의 위치도 살펴 보았다. 백령성은 규모 207m의 소규모 석축산성이지만 백제 성벽 축조 기술 가운데 방어에 가장 효율적인 성벽, 문지, 치 등이 구비된 것으로 백제 산성 중 최고의 기술이 집약된 보기 드문 유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같은 기술 집약된 축조가 이루어진 것은 백령성이 백제와 신라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東界에 위치한 점, 특히 東界에서도 신라 김유신 5만군의 침공로이자 炭岬 비정지 일원에 위치한 점도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사비기 백제 동계 전선은 옥천 관산성 전투(554)와 금산 추부 장대리 신라고분(6C중) 존재를 볼 때, 6C중후반 신라세력이 추부까지 진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후 대전과 금산 추부면을 경계로 신라와 백제의 대립이 치열해지고, 이 같은 긴박감 속에 동계 일원에는 석축산성 축조가 강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백령성 내에서 출토되는 다량의 명문 및 인장과 기년이 위덕왕 43~45년(6C후반)으로 확인되는 것은 이 시기의 동계 전황을 보여주는 적극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즉, 추부면까지 진격한 신라세력 방어 위해 접경지역 산성을 축조 또는 보완하였고, 그 모습은 백령성과 같이 성벽은 B.편축+협축식 축조기법, 문지는 다)현문+현문식 조합과 ③비탈진 사면 입지, 치는 회절부에 각대 조성 등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백령성은 역사적 사건 한가운데 위치하면서도 백제 최고의 성곽 기술이 적용된 접경

지역 관방유적의 특수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매우 보기 드문 유적이다. 또한 자세한 언급은 없었지만 층위 조사결과 백제 단일시기 사용과 폐기가 이루어져 백제 석축산성의 원형을 그대로 살펴볼 수 있는 몇 안되는 자료로서 그 가치가 높다.

즉, 백령성은 고대 석축산성의 구조, 기능, 축조시기 연구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고고학사에서 기념비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백령성에 대해 보존 및 활용 할 수 있는 정책과 행정 방안이 마련되고, 향후 보다 심도 있는 조사와 연구를 통해 백제 접경지역 일원의 고대 산성과 시대상을 밝힐 수 있는 중요 유적이 되기를 기대하겠다.



논문

姜鍾元, 2009, 「扶餘 東南里와 錦山 栢嶺山城 出土 文字資料」, 『목간과 문자』 3호, 한국목간학회.

김근영, 2018, 「백제의 논산 지역 지배와 동방성」, 『한국고대사연구』90, 한국고대사학회.

김병희, 2007, 「新羅 城郭 城門의 特徵과 變遷過程 檢討」, 『학예지』제14집.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김수태, 2022, 「사비시대 백제의 자연촌」, 『목간과 문자』29, 한국목간학회.

金義遠, 1982, 『周禮考工記(抄)』, 國土開發研究院.

朴漢濟, 2014, 「『周禮』考工記의 ‘營國’ 원칙과 前漢 長安城의 구조」, 『중국고중세사연구』 34, 중국고중세사학회.

백종오, 2017, 「高句麗 城郭 築城術의 擴散에 대한 豫備的 檢討」, 『고구려발해연구』 59, 고구려발해학회.

백종오, 2019, 「6세기 중반 신라 단양 적성의 경관」, 『선사와 고대』61, 한국고대학회.

백종오, 2023, 「중원문화권 관방유적 조사·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선사와 고대』71, 한국고대학회.

이병호, 2013, 「금산 백령산성 출토 문자기와의 명문에 대하여-백제 지방통치체제의 한 측면-」, 『백제문화』49, 공주대백제문화연구소.

이재철, 2014, 「錦山 栢嶺山城 遺蹟 出土 文字 資料와 懸案」, 『목간과 문자』 13호, 한국목간학회.

서길수, 2009, 『高句麗 築城法 研究』, 학연문화사.

서정석, 2002, 『백제의 성곽 -웅진·사비시대를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손영식, 2009, 『한국의 성곽』.

沈光注, 2005, 「高句麗와 百濟의 城郭文化」, 『고구려발해연구』 20, 고구려발해학회.

심광주, 2022, 「가야성곽의 축성법 검토」, 『백제왕도』, 문화재청.

장창은, 2017, 「6세기 중·후반 신라·백제의 각축과 국경선 변천」, 『한국사학보』67, 고려사학회.

조순흠, 2007, 「보은 삼년산성의 곡치성 축조방법 검토」, 『충북사학』vol 10, 충북대학교 사학회.

차민호, 2013, 『삼국시대 성곽의 치성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車勇杰, 2004, 「漢城時期 百濟山城의 諸問題」, 『湖西考古學』제10집, 호서고고학회.

차용걸, 2009, 「삼년산성의 곡성형식 비교연구」, 『인문학지』vol 38,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최병화, 2007, 「錦山 栢嶺山城의 構造와 性格」, 『호서고고학』 17, 호서고고학회.

최병화, 2015, 「百濟 石築山城의 城門構造와 變遷過程」, 『아외고고학』 23, 한국문화유산협회.

최병화, 2021, 「발굴조사를 통해 본 백령성의 구조와 기능」, 『충청학과 충청문화』30,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최병화, 2022, 「백제 사비기 지방도시의 성곽(성벽) 축조기술 연구」, 『백제왕도』, 문화재청.

賀業鉅 저 윤정숙 역, 1995, 『중국 도성제도의 이론-주례 고공기의 도성제-』, 이회 출판사.

보고서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1999, 『扶蘇山城 -整備에 따른 緊急發掘調査-』.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2000, 『扶蘇山城 -發掘中間報告書Ⅳ-』.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한국고고학전문사전 성곽·봉수편』.

금강문화유산연구원, 2019, 『논산 노성산성 -동문지 주변 체성부 발굴조사 보고서-』.

錦山郡·忠南歷史文化研究院, 2003. 2, 『錦山 栢嶺山城 -精密地表調査 報告書-』.

錦山郡·忠南歷史文化研究院, 2003. 2, 『錦山 栢嶺山城 -精密地表調査 報告書-』.

금산군·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22, 『錦山 栢嶺山城 Ⅱ』.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國內城』, 文物出版社.

단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2004, 『포천 반월산성 -종합 보고서-』.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22.12, 「흑석동산성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시굴·정밀발굴조사 약보고서」.

大田工業大學 郷土文化研究所·大田直轄市, 1992, 『鷄足山城』.

목포대학교박물관, 2007, 『무안 봉대산성』.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2013, 『부여나성 -북나성Ⅱ』.

백제고도문화재단, 2015, 『부여나성 동나성Ⅱ -동나성 2문지-』.

백제고도문화재단, 2017, 『부여나성-북나성Ⅶ -치성벽 내측조사-』.

백제고도문화재단, 2018, 『부여나성 동나성Ⅲ -필서봉 구간-』.

백제고도문화재단, 2018, 『부여나성-동나성Ⅳ -능산리산구간 차·성벽-』.

백제역사문화연구원, 2023.03, 「부여 나성(북나성) 10차 변경 발굴조사 결과보고서」.

順天大學校博物館·順天市, 2004, 『順天 檢斷山城 Ⅰ』.

순천대학교박물관, 2011, 『광양 마로산성 Ⅲ -성벽·문·치-』.

安承周·徐程錫, 1996, 『聖興山城 門址發掘調査報告書』, 忠南發展研究院.

李南奭·李賢淑, 2008, 『魯城山城 南門址』, 公州大學校博物館·論山市.

李達勳·李康承·沈正輔·俞元載, 1994, 『寶文山城發掘調査報告書』, 大田直轄市.



전북문화재연구원·정읍시, 2013, 『井邑 古沙夫里城-종합보고서(1~5차 발굴조사)-』.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1999, 『忠州山城 東門址 -發掘調査 報告書-』.

中原文化財研究院, 2006, 『報恩 三年山城-2004年度 發掘調査 報告書』.

中原文化財研究院, 2007, 『聞慶 姑母山城1-南門·東門曲城 發掘調査』.

中原文化財研究院, 2008, 『忠州山城-北門址 發掘調査 報告書-』.

中原文化財研究院, 2008, 『報恩 三年山城 -2006年度 內側 城壁 發掘調査 報告書-』.

中原文化財研究院, 2009, 『報恩 三年山城 -南門址 內側·西南曲城 發掘調査-』.

中原文化財研究院, 2013, 『報恩 三年山城-東門址2次 發掘調査 報告書』.

中原文化財研究院, 2013, 『曾坪 二城山城 Ⅲ 南城 1·2·3次 發掘調査 綜合報告書』.

中原文化財研究院, 2019, 『大田 鷄足山城 -曲城 發掘調査-』.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21. 08, 「논산 노성산성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개략보고」.

忠淸文化財研究院·大田廣域市, 2003, 『大田 月坪洞山城』.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7, 『용인 할미산성(Ⅳ)-용인 할미산성 3차 발굴조사 보고서-』.

漢陽大學校博物館, 2003, 『二聖山城 10次 發掘調査報告書』.

# 금산 백령성에 반영된 백제 성곽의 축조기술 토론문

정 해 준 (가경고고학연구소)

금산 백령성은 2003년 지표조사 이후, 2004~5년 1~2차 발굴조사를 통해 대표적인 백제산성으로 알려졌고, 현재는 2020년 3차 발굴조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백령성은 둘레 207m의 소규모 석축산성이지만 1~2차 발굴에서 목곽시설, 현문식 문지, 치 등 뿐만 아니라 목간과 다양한 백제 명문과 등이 다수 확인되어 백제 산성과 고대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주목 받았다. 금번 주제와 관련하여 발표자는 백령성을 직접 발굴 조사하신 연구자로 해당 유적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논고에 기술된 논지에 대한 큰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리며, 향후 백령성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사와 연구방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1. 북문과 남문 성벽과 측벽에 사용된 성돌의 축성기법 차이에 대하여

백령성에서 조사된 북문과 남문은 현문식 구조로 축성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북문과 남문 성벽과 측벽에 사용된 성돌의 다듬은 수법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남문 주변 성벽과 측벽에 사용된 석재(성돌)는 화강암을 치석한 장방형 또는 방형의 석재(성돌)를 이용하여 틈새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바른층쌓기로 축성하였습니다. 반면에 북문 측벽과 주변의 성벽에 사용된 석재(성돌)는 거의 다듬지 않은 석재를 사용하여 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남문과 북문에 사용된 석재(성돌)의 다듬은 수법이 일정 부분 차이를 보이는 것은



축성 당시 시기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복문이 후대에 개축하는 과정에서 대충 다듬은 석재(성돌)를 이용한 것인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복문에서 확인된 주공의 성격은 무엇으로 판단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 2. 치(雉)의 성격에 대하여

백제산성에서 치의 존재가 확인된 산성이 부소산성, 나성 외에는 그 존재 기수가 아직까지 많지 않아 치의 규모와 구조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치(雉)의 정의를 들자면 방어를 목적으로 성벽일부를 돌출시켜 적의 접근을 조기에 관찰하고 성벽에 접근한 적을 정면이나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치(雉)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치를 설치하는 거리는 무기의 사정거리와 관계가 있으며 양쪽에서 공격했을 때 모든 성벽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백령성에서 확인된 치는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치와는 규모 뿐만 아니라 구조도 매우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백령성에서 확인된 치의 구조를 보면 치의 평면은 세장방향으로 규모는 길이 647cm, 폭 110cm, 잔존 높이 420cm로 확인됩니다. 백령성에서 확인된 치의 길이는 647cm로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치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성벽 하단부에서 측정한 폭이 110cm밖에 되지 않아 성벽에 접근한 적을 측면에서 공격하기에는 너무 폭이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의 형태는 대부분 방형이나 장방형을 이루고 있어 치의 길이가 647cm로 계측된다면, 적어도 폭은 500cm이상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백령성에서 확인된 치의 폭이 가장 넓은 하단부에서 측정한 것이 110cm이지만 상단부로 올라갈수록 폭이 점차 좁아지고 있어 한사람이 측면을 공격할 수 있는 공간밖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치를 축성할 시에는, 성외벽 석재와 서로 맞물리도록 축성해야 무너지지 않고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토대가 되는데, 백령성에서 확인된 치는 성외벽에 그냥 덧붙여 치를 축성하고 있어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백령성에서 확인된 치는 축성방법으로만 볼 때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벽 밖에서 보호해 주는 시설물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백령성 성벽에서 돌출되어 확인된 치라고 보시는 시설을 혹시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벽 밖에서 보호해 주는 (기단)보축시설 등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보충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p>금산 백령성 치</p>
	<p>문경 고모산성 남벽구간 기단보축시설</p>
	<p>대전 계족산성 북벽구간 기단보축성벽</p>
	<p>수원 화성 북동치</p>



### 3. 성벽 축성기법에 대하여

발표자께서는 성벽의 축성기법을 크게 A.편축식 축성기법, B.편축+협축식 축성기법, C.협축식 축성기법으로 구분하면서 A.편축식 축성기법은 공주 공산성, 부여 가림성, 부여 나성, 익산 익산토성 등에 적용된 만큼 웅진 및 사비, 익산 등 왕도 공간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유적에서만 확인되며, 특히 공산성과 가림성, 나성 등은 이미 오랜 연구를 통해 웅진기 또는 사비 천도 직전 후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A.편축식 축성기법은 백제 웅진기에는 이미 완비된 축성기술로 파악된다고 보고 계십니다.

B.편축+협축식 축성기법은 백제 내륙과 접경지역에 관방과 통치체제의 수립 과정(사비시대)에서 적용된 기술로 파악하고 계시고요.

C.협축식 축성기법은 공주 공산성 북벽(공북루)구간, 정읍 고사부리성 북서벽, 논산 노성산성 서벽, 광양 마로산성 북벽, 고흥 백치성 동벽, 순천 검단산성 동벽, 여수 고락산성 및 고락산 보루 성벽 등에서 확인되며, 이들 유적은 백제 고토 전역의 군·현 소재지에 해당한다. 특히, 정읍 고사부리성 서문지에서 B.편축+협축 축조 이후 C.협축식 축조로 변화됨을 볼 때, C.협축식 축조기법은 B.축조기법과 함께 사비기 방-군-성의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적용된 축조기술로 파악된다고 보셨습니다.

따라서 석축 성벽의 축조기술은 적어도 웅진기부터 사비기까지 계기적인 변화단계를 거쳐 변화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셨습니다. 토론자는 발표자께서 제시하신 축성기법을 너무 계기적인 변화단계로 도식화해서 보시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공산성 동북벽 구간은 A.편축식 축성기법이, 공산성 북벽(공북루) 구간은 C.협축식 축성기법이 함께 공반되고 있습니다. 그럼 발표자께서는 공산성에서 보이는 두 가지 축성기법이 서로 시기를 달리하고 보시는지? 공산성 북벽(공북루) 구간에서 보이는 C.협축식 축성기법이 사비시대에 개축한 성벽인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토론자는 석성으로 축조한 성벽의 축조기법은 하나의 산성 안에서도 성벽이 통과하는 지형 지세와 문지의 존재여부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3가지 축성기법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성벽의 통과선이 무너지기 쉬운 곡부, 방어에 취약할 수 있는 능선과 연결되는 구간, 문지 주변 성벽은 C.협축식 축성기법이 적용되고, 나머지 성벽 구간은 A.편축식 축성기법과 B.편축+협축식 축성기법이 공존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제4주제

## 금산 백령성의 축성술과 문화유산적 가치

백종오  
(한국교통대학교)

### I. 머리말

### II. 백령성의 축성술

1. 축성술 추출을 위한 前提
2. 유구와 유물에 대한 검토

### III. 백령성의 문화유산적 가치

1. 한국고대 성곽 발달사의 한 획기 제공
2. 한국고대 성곽 발전단계의 실증적 사례
3. 한국고대 축성술과 교류 관계 증명

### IV. 맺는말



## 금산 백령성의 축성술과 문화유산적 가치

백 종 오 (한국교통대학교)

### I. 머리말

백령성은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역평리와 건천리의 성재산 정상부를 둘러친 산봉형 테뫼식 석축산성이다.<sup>1)</sup> 그런데 옛 기록에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한다. 조선시대의 『新增東國輿地勝覽』, 『大東地志』, 『東輿備考』, 『大東輿地圖』 등 각종 문헌과 지도류 등에도 내용이 전해지지 않는다. 또 일제강점기의 지형도 및 측량도, 고적조사사업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1942), 『全國遺蹟目錄』(1970), 『文化遺蹟總攬』(1977) 등에도 수록되지 않았다. 참으로 미스터리(mystery)한 일이다.

백령성에 관해서는 최초의 기록인 『錦山山河』(1982)<sup>2)</sup>를 시작으로 『韓國의 城郭과 烽燧』(1989)<sup>3)</sup>, 『文化遺蹟分布地圖 錦山郡』(2003)<sup>4)</sup>, 『韓國城郭研究論著總攬』(2004)<sup>5)</sup>에 그 현황이

1) 이곳은 1896년부터 1963년까지는 전라북도 완주군에 속해 있었다. 금산을 비롯한 인접한 완주, 무주, 진안, 장수 등에 형성된 고원의 산간지대이기 때문에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다른 것은 당연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 그러므로 백령성 자체가 각 자자치단체의 경계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포함한 포괄적인 문화양상을 살피는 것이 옳바르다고 생각된다.

2) 錦山郡廳, 1982, 『錦山山河』, 118쪽.(이때 백령성과 함께 紫芝城(성재산성), 芝三峙城址가 신규 보고되었다. 錦山郡誌編纂委員會, 1987, 『錦山郡誌』; 2011, 『錦山郡誌3, 전통이 살아있는 터전』.)

3)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1989, 『韓國의 城郭과 烽燧-中』, 104쪽.(이후 1991년에 忠淸南道에서 발간한 『文化遺蹟總攬』에도 누락되었다. 충청남도, 1991, 『文化遺蹟總覽(城廓·官衙篇)』.)

4) 韓南大學校 中央博物館, 2003, 『文化遺蹟分布地圖 錦山郡』.

5) 백종오·김병희·신영문, 2004, 『韓國城郭研究論著總攬』, 서경문화사, 508쪽.

수록되었다. 『錦山山河』와 『韓國의 城郭과 烽燧』에는 “栢嶺城, 남이면 건천리 역평리, 石城 4,000m의 장성, 백제시대”라고 기술되었다. 소규모 군사요새를 길이 4km의 거대한 장성으로 묘사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진다.<sup>6)</sup>

이처럼 백령성은 1980년대 초반에 그 존재가 처음 알려진 유적이자 동시에 뒤늦게 발견된 의외의 사례가 된다. 유적의 규모는 작지만 석축산성의 잔존 상황이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익히 알려지고 기록되었을 텐데도 말이다. 이 유적은 1990년에 충청남도 기념물(제83호, 1990.5.24.)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유적 주변에는 이치와 건천리봉수대, 육백고지 등이 있다. 梨峙(배재)는 임진왜란 때 권율과 황진 등이 승리한 梨峙戰鬪(1592.7.8)의 현장이다. 또 육백고지는 한국전쟁 이후 5년여에 걸친 빨치산(partisan)과 군경 토벌대와의 치열한 격전지로, 당시 토벌로 매우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한국 현대사의 뼈아픈 장소이기도 하다.<sup>7)</sup> 현재는 성 북편에 육백고지전승탑과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백령(жат고개, 배티재)을 오가는 이들을 맞이하고 있다.

백령성의 실체가 학계에 소상히 알려진 것은 2000년대 이후부터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2003년에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sup>8)</sup>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3차례의 발굴조사<sup>9)</sup>와 종합정비기본계획<sup>10)</sup>을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학술심포지엄 2회<sup>11)</sup>, 특별전 개최<sup>12)</sup>, 사적지정보고서 작성<sup>13)</sup> 등의 부수적인 학술사업도 다양하게 진행한 결과, 상당한 학문적 성과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신라 석축산성의 전유물로 인식되었던 현문식 구조 성문과 세장방형 치성이 백제 석축

6) 현재 GIS통합인트라넷시스템에 소개된 백령성의 내용 중 전반부는 앞의 문화유적 분포지도에 수록되었던 유적 현황(지도번호 금산 076-5, 사진 484)이다. 여기에 유적 입지와 현상 등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 문안은 다음과 같다.

“남이면 하금리에서 역평리 방향으로 통하는 도로(휴양길)를 따라 진행하면 산의 정상부에 六百高地 戰績碑가 위치하고 있다. 백령성은 이 육백고지 전적비의 남동쪽의 선치산(해발 759m) 동쪽의 정상부(해발 600m)에 쌓은 석성으로 둘레 길이가 900m 정도이다. 성벽의 동·남·북쪽은 대부분 허물어졌으나 서벽은 최대 7m 높이까지 성벽이 남아 있으며, 성벽의 너비는 4m이다. 성 내부에는 봉수대가 있어 진악산의 觀仰佛峰 봉수와 서로 교신하였다고 전한다. 특히 후삼국시대에 권원이 완산에 도읍을 정하고 완산의 방비를 위해 現 남이면 대양리에 景陽縣을 설치한 후 백령성을 다시 고쳐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장조사시 성내부에서 기와조각이 수습되었는데 기와들은 등면에 격자문과 승석문이 타날되어 있는 백제기와들이다.<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7) 금산군은 1991년 3월 25일에 당시의 전적을 기리고,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육백고지전승탑을 건립하였다. 전승탑 아래 쪽에는 충훈비와 육백고지참전공적비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전승탑에 의하면 빨치산 2,287명이 사살되고, 1,025명이 생포되었으며, 경찰 184명·군인 20명·민간인 72명 등이 희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육백고지전승탑』)

8) 忠淸南道歷史文化院, 2004, 『錦山 栢嶺山城 地表·試掘調査 報告書』.

9) 忠淸南道歷史文化院, 2007, 『錦山 栢嶺山城 1·2次發掘調査 報告書』; 2022, 『금산 백령산성Ⅱ』.

10) 금산군, 2012, 『금산 백령성 종합정비 기본계획』.

11)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04, 『백제시대 금산과 백령산성의 조사성과』; 2021, 『금산 백령성의 현황과 과제』.

12)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그리운 것들은 땅속에 있다』.

13)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21, 『금산 백령성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요청 자료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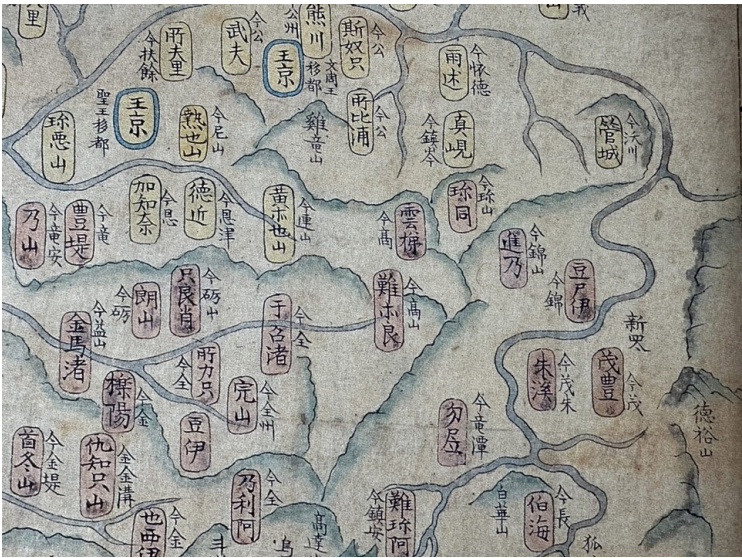


산성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다.<sup>14)</sup> 이를 통해 유구의 계보<sup>15)</sup> 및 영향관계,<sup>16)</sup> 성벽의 축조법<sup>17)</sup> 등은 그동안 신라시대와 통일신라시대 석축산성의 축성술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출토유물 중 印章瓦, 印銘瓦, 線刻瓦, 墨書銘木板 등 다양한 문자자료<sup>18)</sup>에 관한 논고와 영역 변천<sup>19)</sup>, 목곽시설의 보존처리 및 분석 작업<sup>20)</sup>, 지형 분석과 가시권 분석<sup>21)</sup> 등도 진행되어 백령성의 역사상을 복원하는데 일조하였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백령성의 발견과 발굴조사는 한국고대 성곽 발달사의 한 획기로 작용할 만큼 많은 학술적 성과와 함께 당면 과제도 제시하였는데, 백제 석축산성의 축조시기 및 축성술, 축성기술의 교류관계, 금강 상류역 삼국 접경지역의 방어체계 등을 꼽아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금산 백령성이 가지는 문화유산적 가치를 도출하기 위해 그간의 백령성의 발굴조사 및 각종 학술활동을 토대로 백령성의 축성사적 의미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이후 이

- 14) 최병화, 2005,「錦山地域 百濟山城에 관한 研究」『百濟文化』33; 2007,「錦山 栢嶺山城의 構造와 性格」『湖西考古學』17; 2021,「발굴조사를 통해 본 백령성의 구조와 기능」『충청학과 충청문화』30; 2022,「백제 사비기 지방도시의 성곽(성벽) 축조 기술 연구」『백제왕도핵심유적』, 문화재청.
- 15) 최병화, 2015,「百濟 石築山城의 城門構造와 變遷過程」『야외고고학』23.
- 16) 백종오, 2017a,「高句麗 城郭 築城術의 擴散에 대한 豫備的 檢討」『高句麗渤海研究』59; 2017b,「中國內 高句麗山城의 發掘 現況과 主要 遺構·遺物の 檢討 - 2005年~2016年 發掘調査를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53.
- 17) 서정석, 2003,「百濟의 城郭」, 학연문화사; 沈光注, 2005,「高句麗와 百濟의 城郭文化」『高句麗研究』20; 심정보, 2009,『백제 산성의 이해』, 주류성; 김세종, 2017,「호남지방 고대 석축산성 연구」 목포대 석사논문; 김병희, 2021,「백제 사비도읍기 금산 백령산성의 위상」『충청학과 충청문화』30-1.
- : 조원창, 2022,「일명 당김석(引石)의 발굴 사례와 형식 분류」『한국건축역사학회 2022년 춘계학술발표대회』.
- 18) 강종원, 2004,「錦山 栢嶺山城 出土 銘文瓦 檢討」『百濟研究』39; 2009,「扶餘 東南里와 錦山 栢嶺山城 出土 文字資料」『木簡과 文字』3; 2021,「명문와(銘文瓦)를 통해 본 백령산성」『충청학과 충청 문화』30-1; 강종원·최병화, 2007,「錦山 栢嶺山城 出土 銘文瓦의 性格」『그리운 것들은 땅속에 있다』, 국립부여박물관·충청남도역사문화원; 손환일, 2009,「百濟 栢嶺山城 출토 명문기와와 木簡의 서체」『口訣研究』22; 문동석, 2010,「2000년대 백제의 신발견 문자자료와 연구동향」『韓國古代史研究』; 이병호, 2013,「금산 백령산성 출토 문자기와의 명문에 대하여」『百濟文化』49; 이재철, 2014,「錦山 栢嶺山城 遺蹟 出土 文字 資料와 懸案」『木簡과 文字』13; 김수태, 2022,「사비시대 백제의 자연촌」『木簡과 文字』29.
- 19) 장창은, 2017,「6세기 중·후반 신라·백제의 각축과 국경선 변천-금산·대전지역을 중심으로」『韓國史學報』67.
- 20) 목곽시설의 부재 수준은 굴피나무(도관 내부 타일로스가 존재하여 외부의 물유입 방지를 위한 부재로 주로 벽체와 바닥에 사용) 38점, 상수리나무류(하중과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주목과 지지목으로 사용) 34점, 졸참나무류(바닥 부재용) 8점, 소나무류(건축재용) 2점, 음나무(가구, 악기, 선박, 조각재용) 1점으로 식별하였다. 그리고 목곽시설 바닥과 보강 지지목의 결구부는 자귀흔으로, 보강 지지목의 공동은 끝흔이 관찰되었다. 또한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 A.D. 567~647년(공동연대 A.D. 567~598년) 이후에 목곽시설이 조성된 것으로 타 유적(서천 봉선리 목곽시설 최외각연륜연대 A.D. 510년)의 상수리나무류 연륜 연대기와 상호비교하여 상대연대를 잠정하였다.(朴昶炫, 2022,「금산 백령산성 출토 목곽고의 과학적 분석·제작기법 및 연대측정(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전통문화대 석사논문.)
- 21) 김인숙, 2023,「금산 백령산성의 지형분석과 가시권 분석 연구」, 공주대 석사논문.

를 바탕으로 한국고대 성곽 발달사의 한 획기 제공, 축성술 발전단계와 기술적 교류 및 영향관계, 백제 사비기 성곽의 구조와 기능적 특징으로서의 關城 등으로 그 가치를 부각시켜 보도록 할 것이다. 향후 백령성이 국가사적으로 순조롭게 승격되어 그 역사고고학적 가치만이 아니라 국가유산으로서의 품격을 도모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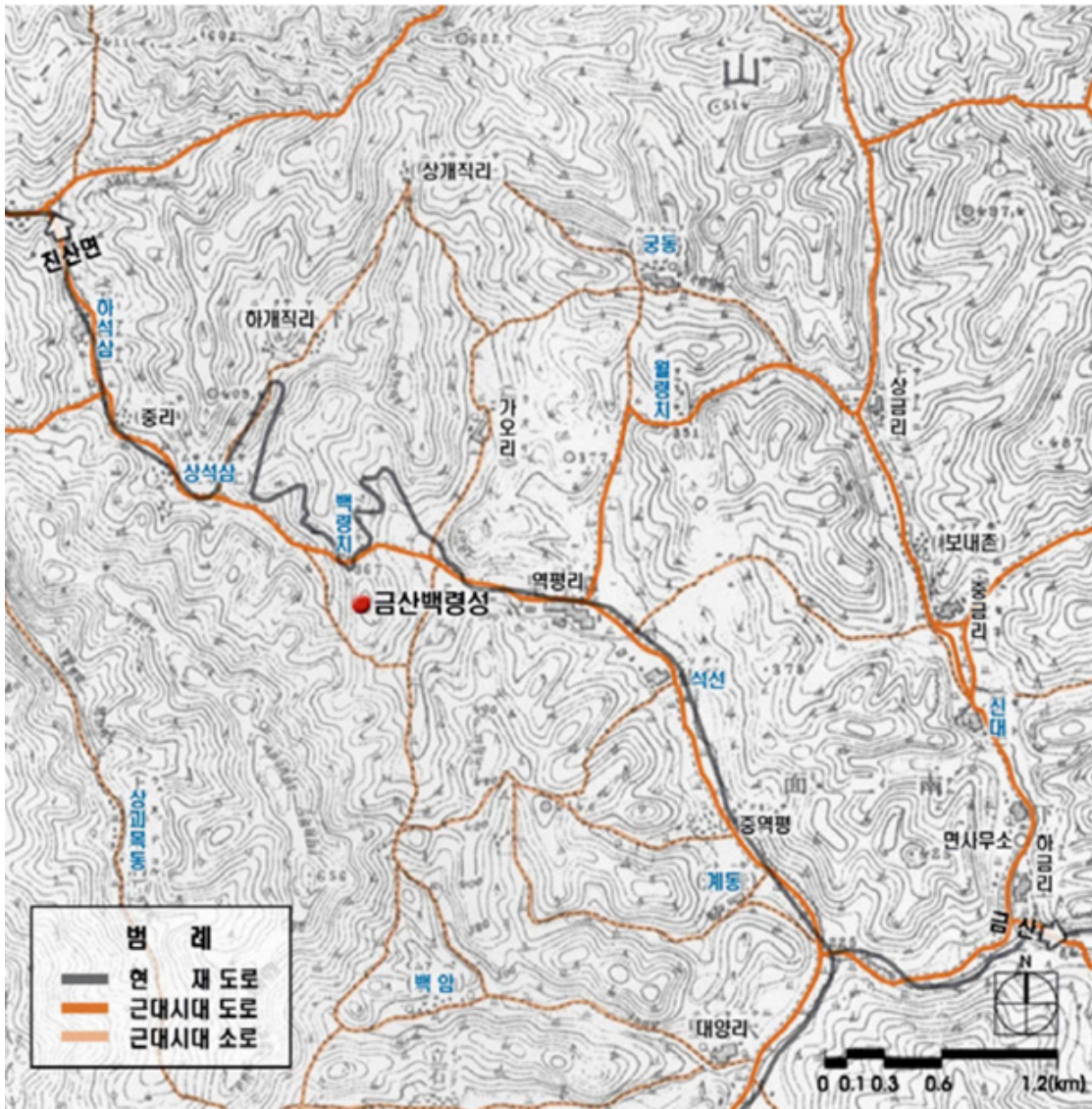


【삽도 1】동여비고(1682, 경북대도서관)



【삽도 2】한글지도(1767~1776, 국립해양박물관)





【삽도 3】백령성 위치 상세도(1905 측도 및 1931 제작 - 금산군, 2012, 앞의 책 전재)

## II. 백령성의 축성술

### 1. 축성술 추출을 위한 前提

한반도 중부 이남지역인 임진강유역, 한강유역, 금강 상류에는 독특한 지형 및 지세가 형성되었는데 이를 우리 고유의 지리 개념에서는 ‘山子分水嶺’이라 부른다. 산자분수령은 ‘산은 스스로 분수령(drainage divide, watershed)이 된다’는 뜻으로 조선 영조때 申景瀾(1712~1781)이 저술한 역사지리서인 『山經表』의 원리이다.

임진강과 한강유역은 양주분지, 한강 상류와 금강 상류는 속리산, 금강 상류와 만경강유역은 진안고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모두 분수령이면서 하천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이들 하천과 지류는 고대로부터 교통로로 활발히 이용되었기에 하천과 지천의 합류지점에는 성곽들이 축조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산자분수령이 분기되는 고갯길인 嶺, 峙, 站 등도 성곽이 입지할 또 하나의 포인트(point)가 된다. 전자에는 양주 불곡산보루군과 천보산보루군, 서울 아차산보루군, 대전·옥천·영동·금산 일대의 소규모 성들이 포함된다. 후자에는 양주 태봉산보루, 금산 백령성 등이 있다. 따라서 산성의 입지와 규모는 산자분수령을 중심으로 하천의 합수머리나 고갯길의 강제지점에 의해 성역 여부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이런 군사적 포인트에는 비교적 소규모의 보루급 요새들이 밀집 분포하는 양상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국 고대 성곽 발달사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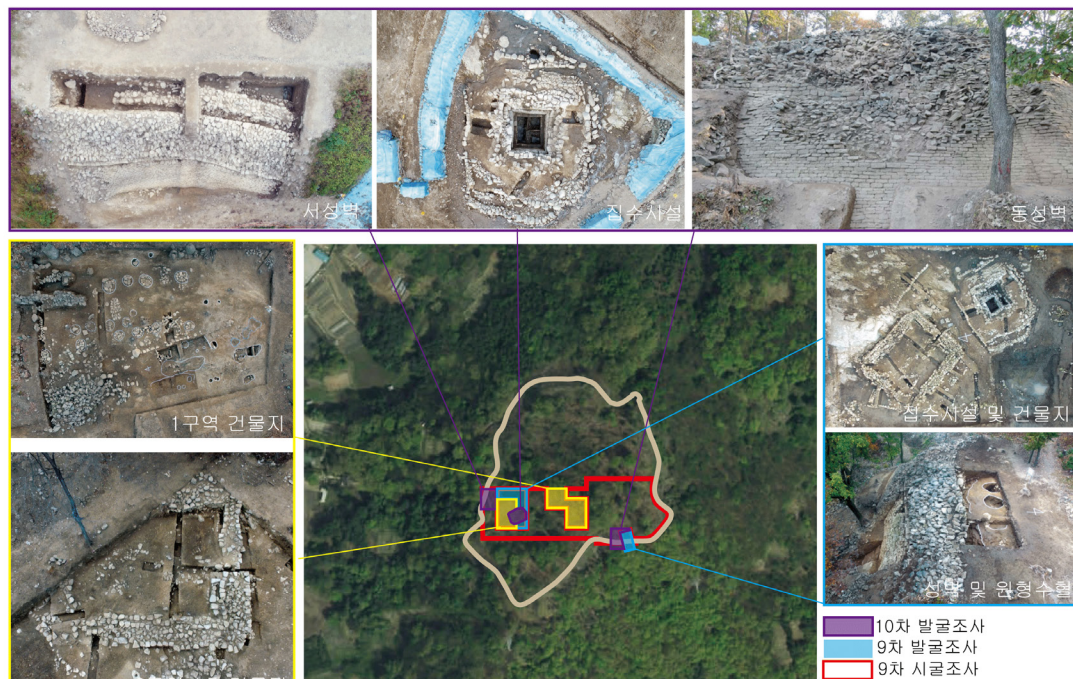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삼국시대 입지 및 규모 결정론이 한 지역 안에서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금산 백령성과 그 주변 지역의 성곽 분포와 교통로, 방어체계만이 아니라 성의 입지와 규모, 축성술 등의 파악에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양주분지 일원이다.<sup>22)</sup> 이곳 양주분지 일원을 분수령으로 문산천, 설마천, 신천, 중량천, 왕숙천 등이 북류하여 임진강에, 남류하여 한강에 합류하는 지세를 보여준다. 당연히 하천로와 고갯길을 중심으로 보루급 요새들이 촘촘히 분포하는 환상과 능형의 방어라인과 함께 고로봉형의 입체적인 관방체계를 형성한 소위 ‘보루의 표본 전시장’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

22) 白種伍, 1999, 「京畿北部地域 高句麗城郭의 分布와 性格」, 『京畿道博物館年報』3; 2005, 「最近 發見 京畿地域 高句麗遺蹟」, 『北方史論叢』7; 2006, 「南韓地域 高句麗 關防體系-臨津江流域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26; 2022b, 「臨津江·漢灘江流域 古代 關防體系와 河川路」, 『지방사와 지방문화』25-2; 2024, 「한국고대 성곽문화의 결절지, 양주」, 『先史와 古代』74; 백종오·신영문, 2005, 『高句麗遺蹟의 寶庫 京畿道』, 京畿道博物館.



계 한국고대의 각축장이었던 지정학적 특징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북위 38도의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을 중심으로 휴전선의 철책과 군사요새인 GP(Guard Post, 감시초소)와 GOP(General Outpost, 일반전초/Ground Observation Post, 지상관측소), 방어진지가 빼곡히 배치된 현상을 기시감처럼 느끼게 된다. 즉 한반도의 허리를 횡단한 철책은 탄현 목책, 군사시설인 GP나 GOP는 백령성, 탄현산성 등 소규모 요새들과 오버랩(overlap)되니 말이다.

지금까지 양주분지에서 발굴조사된 성곽유적은 대모산성, 태봉산보루, 독바위보루 등 3개 소이다. 대모산성은 1980년대부터 2023년까지 모두 13차례의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sup>23)</sup> 그 결과에 의하면 삼국시대부터 나말여초기에 걸치는 유구와 유물들이 다종다양하게 검출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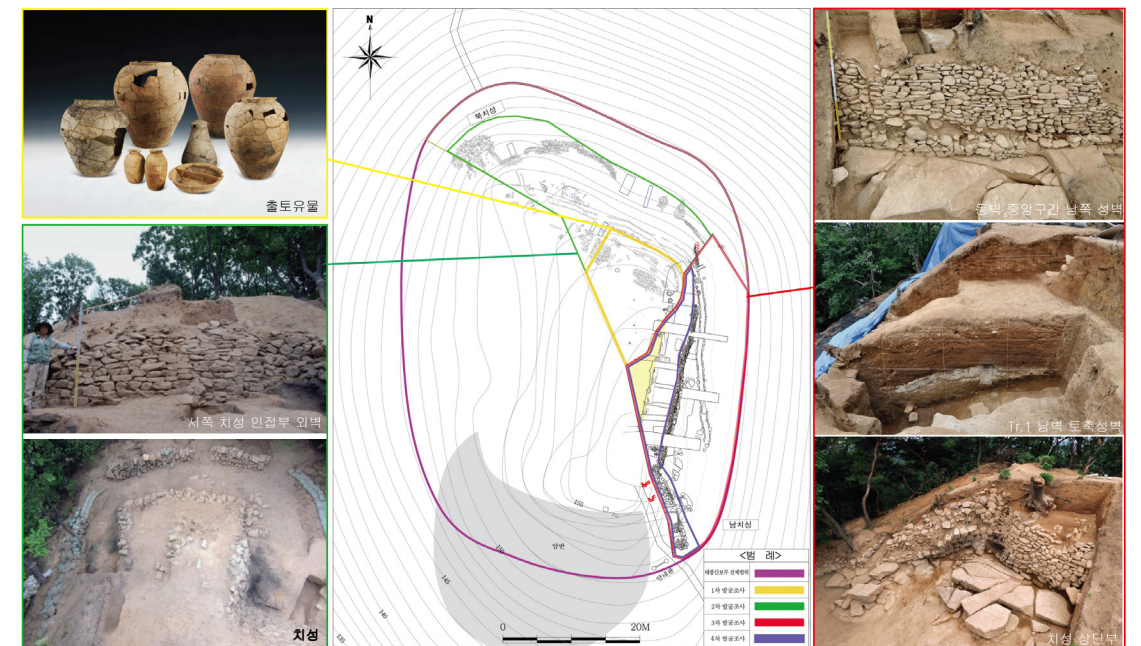


【삽도 4】 양주 대모산성 발굴 현황(기호문화재연구원, 2021·2022, 재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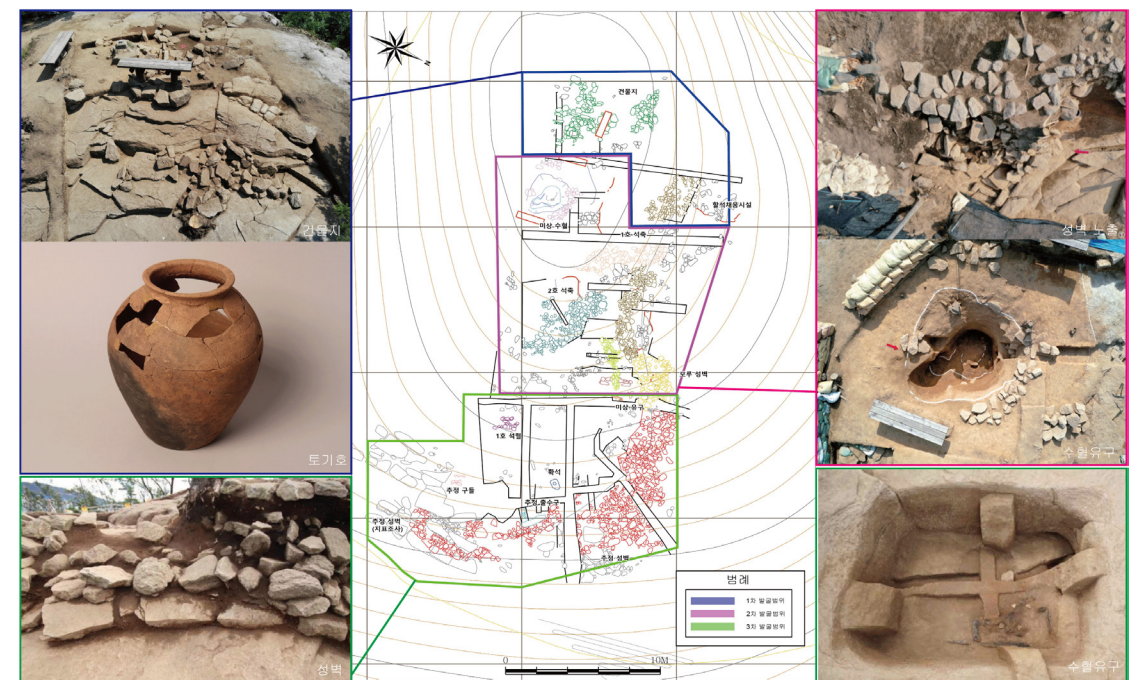
23) 文化財研究所·翰林大學校博物館, 1990, 『楊州大母山城 發掘報告書』.

翰林大學校 博物館, 2002, 『양주 대모산성-동문지·서문지-』.

기호문화재연구원, 2021, 『양주 대모산성 발굴조사-8·9차 발굴조사보고서 합본』; 2022, 『양주 대모 산성 발굴조사-10차 발굴조사 보고서』; 2023, 『양주 대모산성 발굴조사-11차 발굴조사 보고서』; 2022, 『양주 대모산성(사적 제526호) 12차 발굴(시굴)조사 약보고서』; 2023, 『양주 대모산성(사적 제526호) 13차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김용, 2024, 『양주 대모산성의 조사성과와 변천양상』 『先史와 古代』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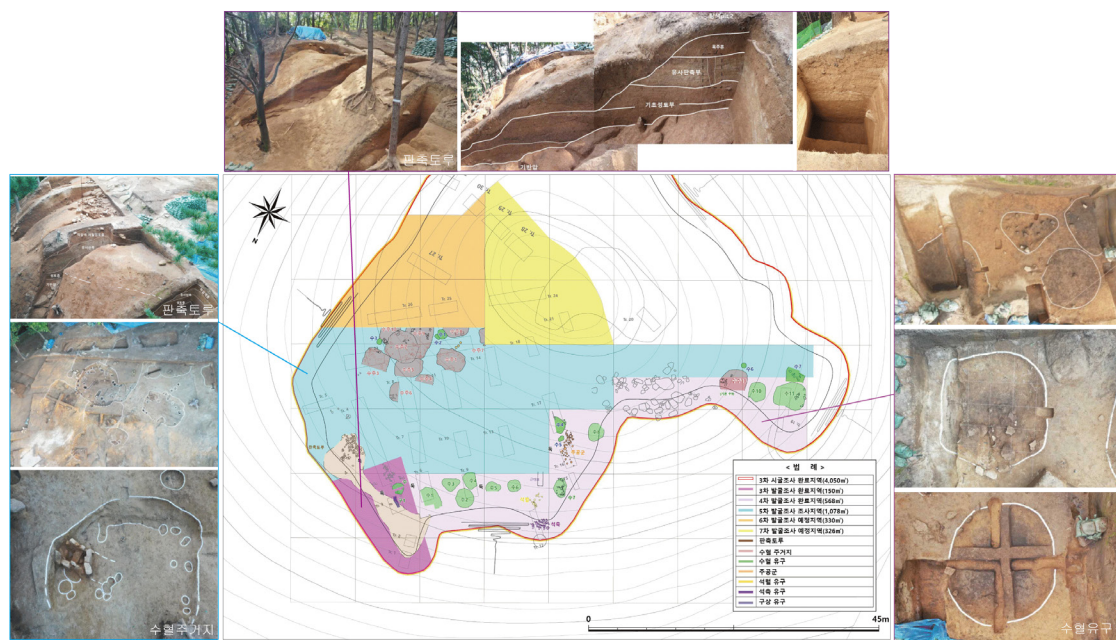


【삽도 5】 양주 태봉산보루 발굴 현황(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6~2018, 재편집)



【삽도 6】 양주 독바위보루 발굴 현황1(화서문화재연구원, 2020~2023, 재편집)





【삽도 7】양주 독바위보루 발굴 현황2(화서문화재연구원, 2020~2023, 재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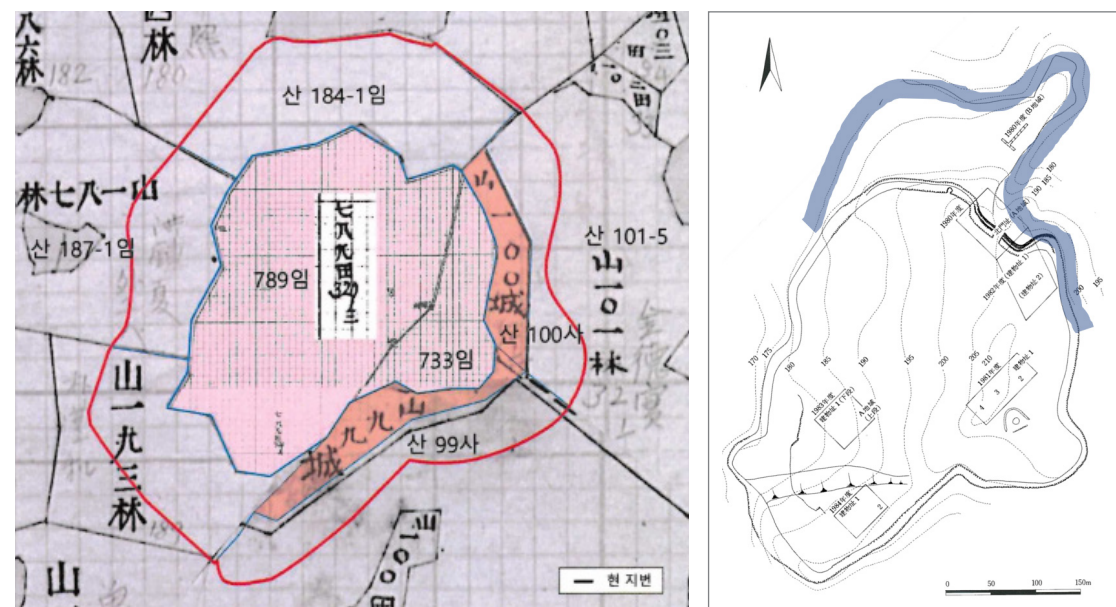
는데, 현재 대모산성의 기단보축의 석축성벽과 현문식 성문은 통일신라시대, 2차 성벽과 성내 집수시설은 후삼국시대인 태봉국(901~918)과 관련된 10세기 초반으로 밝혀졌다.

최근에 대모산성의 북문지 및 북벽부 외곽(1차 발굴지)과 동벽 외측 등에서 또 다른 築城設 柵段階의 삼국시대 성벽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sup>24)</sup> 이는 대모산성의 시기별 변천 과정 만이 아니라 한국고대 축성사의 발전단계를 명확히 증명하는 최고의 고고학 사례로 평가된다. 여기에서는 기존 성벽과 선대 성벽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古山城’으로 부르려고 한다. 당초 명명된 대모산성은 그 외곽라인에서 또 다른 선대유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大母古山城으로의 명칭 부여가 유적의 변천과정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태봉산보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4차 발굴을 진행한 결과,<sup>25)</sup> 토축외면축석양식의 체성부와 치, 성내 수혈유구와 집수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한강유역의 기존 발굴 성과와 비

24) 백종오, 2024, 앞의 글, 63~66쪽.

25) 거례문화유산연구원, 2016, 『양주 태봉산보루 I』; 2017, 『양주 태봉산보루 II』; 2018, 『양주 태봉산보루 III·IV』; 김진웅, 2024, 『양주지역 고구려 관방유적의 조사성과와 과제-태봉산보루를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74.



【삽도 8】대모산성 지적원도(1914)

【삽도 9】대모산성 평면도 및 발굴지역(1980~1984년)

교할 때 5세기 후반~6세기 전엽으로 편년된다. 독바위보루는 본래 태봉산보루와 같은 고구려 유적으로 알려졌으나,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6차에 걸쳐 발굴조사를 진행한 결과<sup>26)</sup> 백제 한성기의 유적으로 밝혀졌다. 성벽은 자연절벽(초벽장)과 토축성벽, 성토대지층을 지형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결한 방어요새이다. 특히 북봉에서는 수혈주거지 14기와 수혈유구 24기, 토축부 1기, 주공군 2기 등 총 43기가 노출되었으며 환두대도, 한식경 등의 위세품들이 다수 관찰되는 점이 이채롭다.

이와 같이 양주 분지에서는 백제 한성기인 4세기 중후반~5세기 전반의 독바위보루, 고구려 남진기인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엽인 태봉산보루, 신라 북진기부터 나말여초기인 6세기 중반~10세기 전반의 대모산성이 삼국의 한강유역 쟁패 과정을 말해주는 것처럼 발굴되었다.

그런데 삼국시대인 4세기 후반부터 6세기 중반의 유구와 유물 양상이 국가별로 너무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일부 연구자는 백제는 토축, 고구려는 토심석축, 신라는 석축이라는 공식을

26) 화서문화재연구원, 2020, 『양주 독바위보루 I』; 2021, 『양주 독바위보루 II』; 2022, 『양주 독바위보루 III』; 2023, 『양주 독바위보루 IV』; 2022, 『양주 독바위 보루 유적(5차)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23, 『양주 독바위 보루 유적(6차)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강기원, 2024, 『양주 독바위 보루의 축성과 운영』 『先史와 古代』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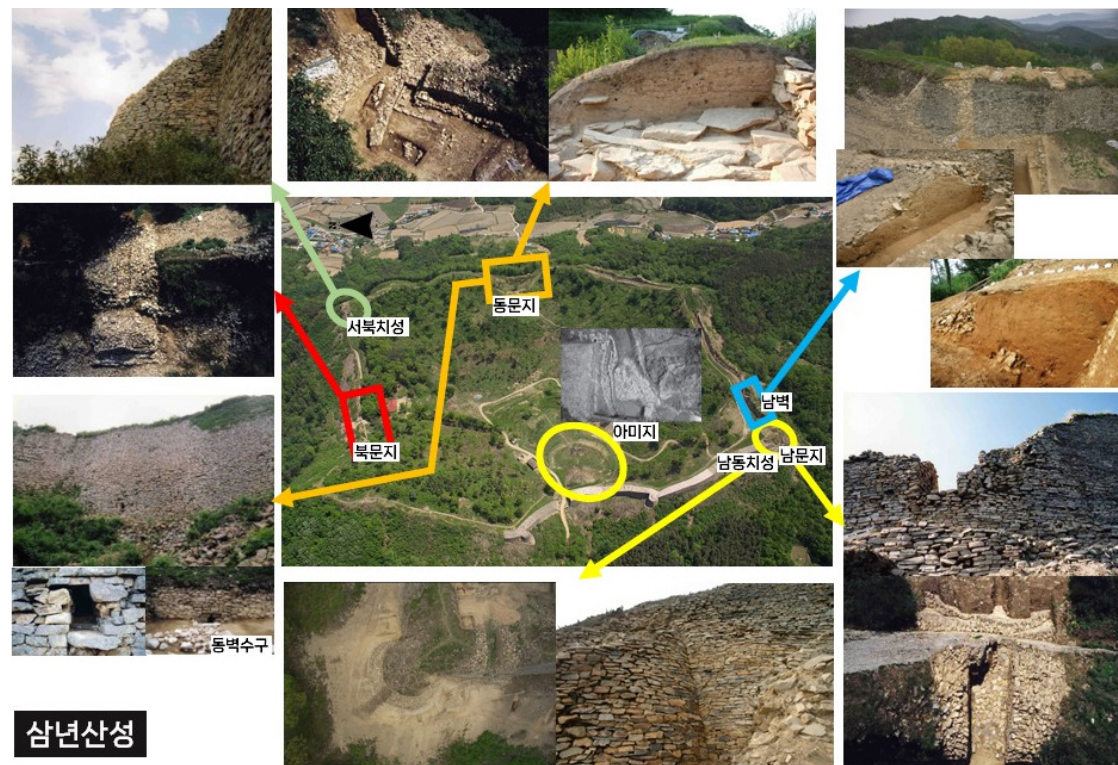
내세워 삼국시대 축성술을 설명하고 있다. 발굴 사례가 많지 않을 때는 일견 이해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고고학적 조사방법론이 세련되지고 새로운 사례가 폭증하면서 그와 같은 공식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다시 말해 삼국이 각축을 벌였던 시기에는 “백제=토축, 고구려=토심석축, 신라=석축”이 아니라 “백제+고구려+신라=토축”이라는 등식의 설정이 문헌사료와 고고자료, 그리고 당시 역사상과의 정합관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5~6세기 삼국시대 성곽 축성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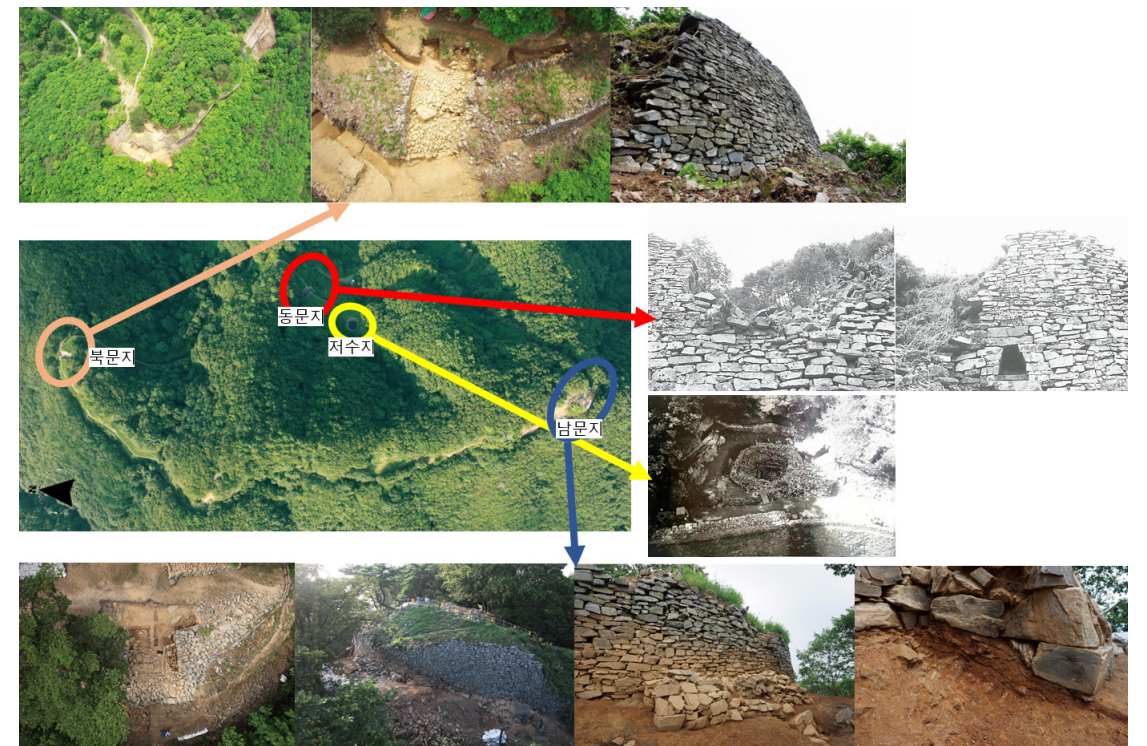
기존) 백제=토축, 고구려=토심석축, 신라=석축

최근) 백제+고구려+신라=토축 중심



삼년산성

【삽도 10】 보은 삼년산성 현황



남산성

【삽도 11】 충주 남산성 현황

다음으로 금강 상류역인 금산, 옥천, 영동, 대전 등에 분포한 주요 성곽들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보은 삼년산성<sup>27)</sup>과 옥천 굴산성(이성산성)<sup>28)</sup>, 금산 백령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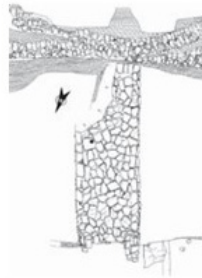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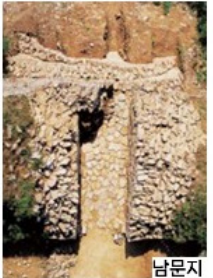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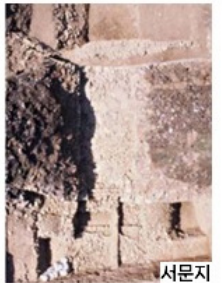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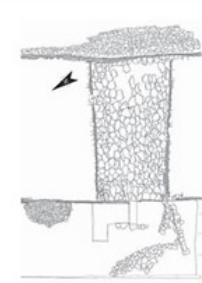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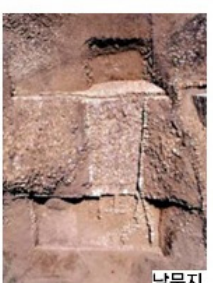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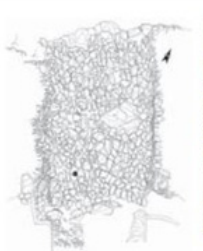



다음 장에서도 후술하겠지만, 삼년산성과 굴산성은 『三國史記』에 초축 및 수축 기사가 기재되어 있고 그 위치가 명확히 비정된 몇 안되는 성곽 유적 중의 하나이다. 『三國史記』에 따르면, 신라는 자비마립간 13년(470)에 삼년산성을 쌓고 소지마립간 8년(486)에 삼년산성과 굴산성

27) 보은군, 1979, 『보은 삼년산성-기초조사보고서-』: 충청북도·보은군, 1980, 『삼년산성 서문지 조사개보-1980년도』: 충북대학교박물관, 1982, 『삼년산성-추정연못터 및 수구지발굴조사-』: 보은군, 1987, 『삼년산성-성벽구조 및 서북지 조사개보-』: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1, 『삼년산성-기본 자료 및 종합 보존·정비계획 안-』: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5, 『보은 삼년산성-2003년도 발굴조사 보고서-』: 중원문화재연구원, 2006, 『보은 삼년산성-2004년도 발굴조사 보고서-』: 2008, 『보은 삼년산성-2006년도 내측 성벽 발굴조사 보고서-』: 충청북도, 2008, 『삼년산성』: 중원문화재연구원, 2008, 『보은 삼년산성-동문지 2차 발굴조사 보고서-』: 2009, 『보은 삼년산성-남문지 내측·서남 곡성 발굴조사 보고서-』.

28) 中原文化財研究院, 2015, 『沃川 山桂里 屈山城(已城山城) 精密地表調査 報告書』: 국강고고학연구소, 2017, 『沃川 已城山城(1차) 긴급발굴조사 보고서』: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22, 『옥천 이성산성 2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백종오, 2022a, 『沃川 已城山城의 城內 施設物 檢討와 築城史의 意味』 『韓國史學報』87;



을 고쳐 쌓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1970년대 삼년산성을 비정하면서 최종 구조물인 현재의 거대 석축산성 자체를 『三國史記』 기년과 맞추다 보니, 높이 10~20m의 석축성벽과 외벽 기단 보축, 현문식 구조 성문과 그 옆의 곡성, 성벽통과식 수구 등은 모두 '5세기 후반 신라 거대 석축산성 축성설'의 주요 속성이자 편년 설정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다. 왕경이 아닌 변경에서 공공 건축물의 원형모델(prototype model)이 처음으로 탄생된 것이다. 왕경의 명활산성작성비(551)와 남산신성비(591)보다도 이른 시기다. 과연 가능하였을지 의문이 든다. 최근 논고를 보면 “신라 석축산성은 보은 삼년산성에서 시작되었다.”는 교시를 머리말에 전제하면서 글을 시작한다. 주체사상을 보는 듯 씩씩하다. 거기에 덧붙여 신라는 5세기 후반에 석축공법과 판축기법을 동시에 축조하였다는 신조 논리를 펼치고 있다. 우리가 “반만년의 유구한 우리 역사, 찬란한 우리 문화, 단일혈통의 순수한 백의민족”이라는 과거 군사정권과 유신의 정서에 너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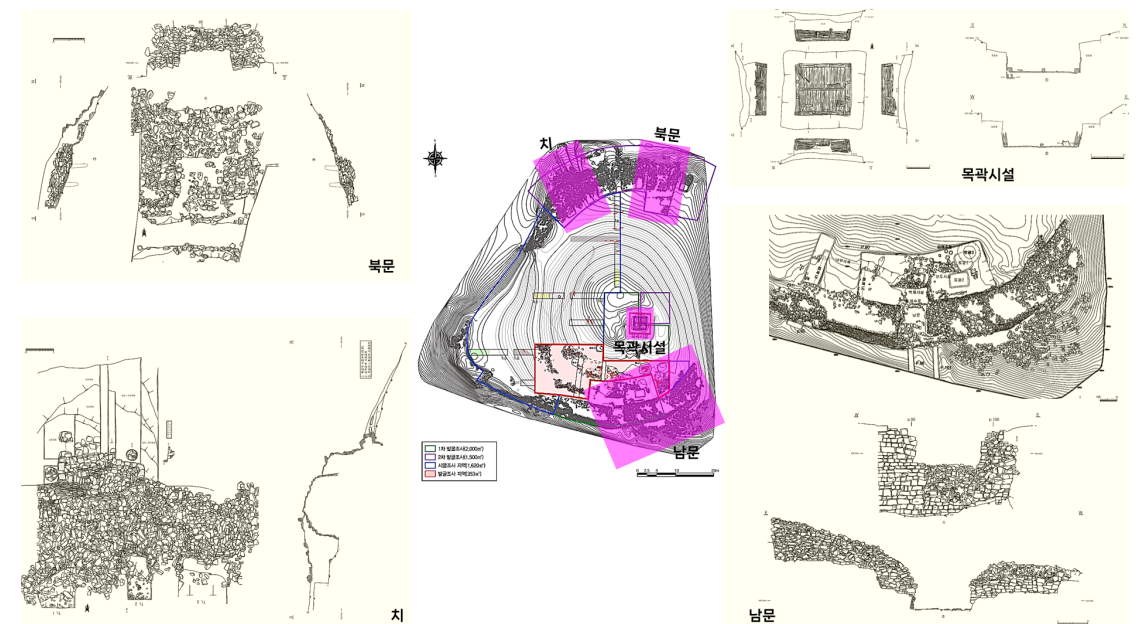
삼년산성		 <p>동문지</p>		 <p>남문지</p>
고모산성		 <p>서문지</p>		 <p>남문지</p>
남산성		 <p>북문지</p>		 <p>동문지</p>

현문식 문지

【삽도 12】 삼년산성·고모산성·남산성 현문식 구조 성문 비교

매몰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문헌자료와 고고자료의 정합관계 속에서 그나마 역사적 사실 즉 팩트(fact)에 좀더 가까워 질수 있다는 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삼년산성과 같은 거대 석축산성과 달리 사료상 486년에 삼년·굴산 2성을 수축했다고 전해지는 굴산성은 옥천 이성산성으로 비정되고 있다. 순수 판축토성을 사용하다가 이후 토축외면축석양식으로 개축된 것으로 파악되며, 출토유물은 6세기 초반부터 7세기 전반으로 편년된다.

보은 삼년산성과 옥천 굴산성은 구릉성 산지를 고로봉형으로 둘러친 성으로 둘레는 각각 1,700m, 1,140m 정도이다. 2006년에 삼년산성 남벽부 내측 트렌치 2개 지점에서 석축 내벽 안쪽으로 판축토성이 확인되었다.<sup>29)</sup> AMS 측정 결과치를 보면, 남쪽 성벽 Tr.1토루는 A.D.320(#1)·A.D.280(#2)·A.D.440(#3)·A.D.450(#4)·A.D.480(#5) 등의 연대를 보여준다. 이중 판축성벽 중북부에서 채취한 시료 #4와 #5는 5세기 중후반으로 측정되었다. 또 남쪽 성벽 Tr.2토루의 경우 A.D.480(#1)·A.D.510(#2)으로 나타나는데 판축성벽의 하부와 전면에서 채집된 시료를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이다. 중심시기는 문헌의 기록과 유사한 5세기 후반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三國史記』에 기록된 삼년산성의 초축과 수축기사는 굴산성과 마찬가지로 토성을 기반으로 한국고대 축성사가 전개되었다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라고



【삽도 12】 삼년산성·고모산성·남산성 현문식 구조 성문 비교

29) 中原文化財研究院, 2008, 『報恩 三年山城-2006年度 内側 城壁 發掘調査 報告書』, 34·39쪽 및 141~14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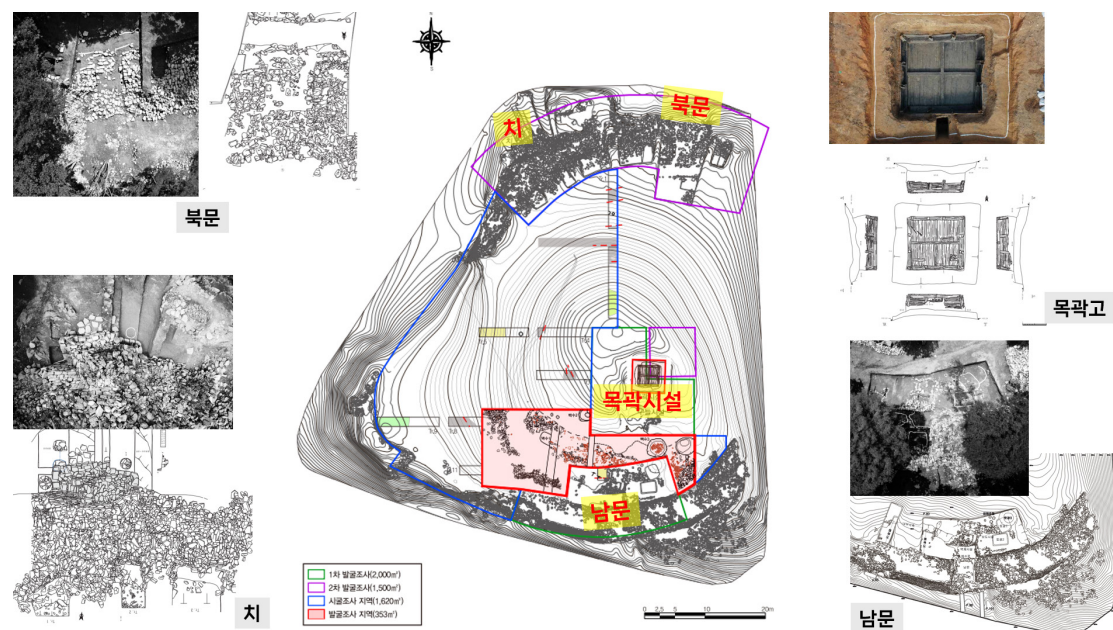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러한 축성사적 전환기에 산봉형 테피식의 보루나 성들이 축조되기 시작하는데, 산성의 석축화는 6세기 중반부터 가능하였다고 생각된다. 그 축성법은 토축외면축석양식이나 석축기법으로, 그 시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석축산성이 바로 금산 백령성이다.

이와 같은 두 지역의 사례는 단일시기와 단일국가에 의해 운영된 성과 삼국시대이래 조선시대까지 연용된 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들 연용된 성에 대한 착시현상 때문에 한국고대 역사상을 복원하는데 지난한 여정이 ‘찬란한 우리문화’로 포장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착시현상의 교정에 백령성이 차지하는 의미는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 2. 유구와 유물에 대한 검토

이 절에서는 유구와 유물에 대한 세세한 기술은 생략하고 지정신청시 보완사항인 현문식 구조 성문을 중심으로 고구려와 백제의 영향관계 그리고 백령성의 특성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sup>30)</sup>



【삽도 14】백령성 발굴 현황 및 유구 배치

30) 이 절에서는 2021년 학술대회때 발표자의 토론문을 일부 인용하여 논의 전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백종오, 2021, 「백제 성곽과 금산 백령성의 위상을 읽고」 『금산 백령성 현황과 과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91~92쪽.)

“백령성은 둘레 207m의 소규모 보루유적으로 백제의 중앙에서 벗어난 접경지역의 군사요새이다. 체성부는 치석재 면석의 바른층 쌓기, 현문식 구조 성문, 회절부의 세장방형 치성 등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유구들이며 성내는 목곽고, 수혈, 구들 등 백제의 유구들이다. 이는 고구려 축성술의 확산을 보여주는 백제 고토의 유일한 사례이며 백제의 성내 시설물과 고구려 체성 축조법의 정교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공주 무령왕릉, 부여 능사 출토 백제대향로 등과 같이 백제 문화의 국제성과 역동성이 그대로 녹아있는 군사요새이다.

출토 유물도 이를 방증한다. 대부분 백제 유물이고 기와류 중 한 점만 격자문을 시문한 고구려 평기와이다.<sup>31)</sup> 축성술의 원형모델과 마찬가지로 제와술의 典範遺物로 기술적인 영향관계를 알려 주고 있다. 이처럼 축성술과 제와술의 국제적·선진적 교류의 실증 사례가 백령성에서 증명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印章瓦(‘丙’), 印銘瓦(‘丙辰瓦 栗峴’, ‘丁巳瓦 耳淳辛’, ‘耳淳辛 戊午瓦’), 刻書瓦(‘上水瓦作五十九一夫瓦九十五作人?那魯城移文’), 묵서 목판 등 풍부한 문자자료를 보여주는 점은 여타 백제 고대 성곽 중 으뜸이다.

한마디로 “百濟 泗沘期 最前線의 最尖端 軍事要塞”로 표현할 수 있다. 백령성은 백제의 중앙과 東界 州縣의 要路를 통할하는 關門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백령성을 중심으로 완주와 무주 등의 관방유적도 다시 考究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방체계는 우리가 망각한 백령성의 역사적 가치 및 그 위상을 밝히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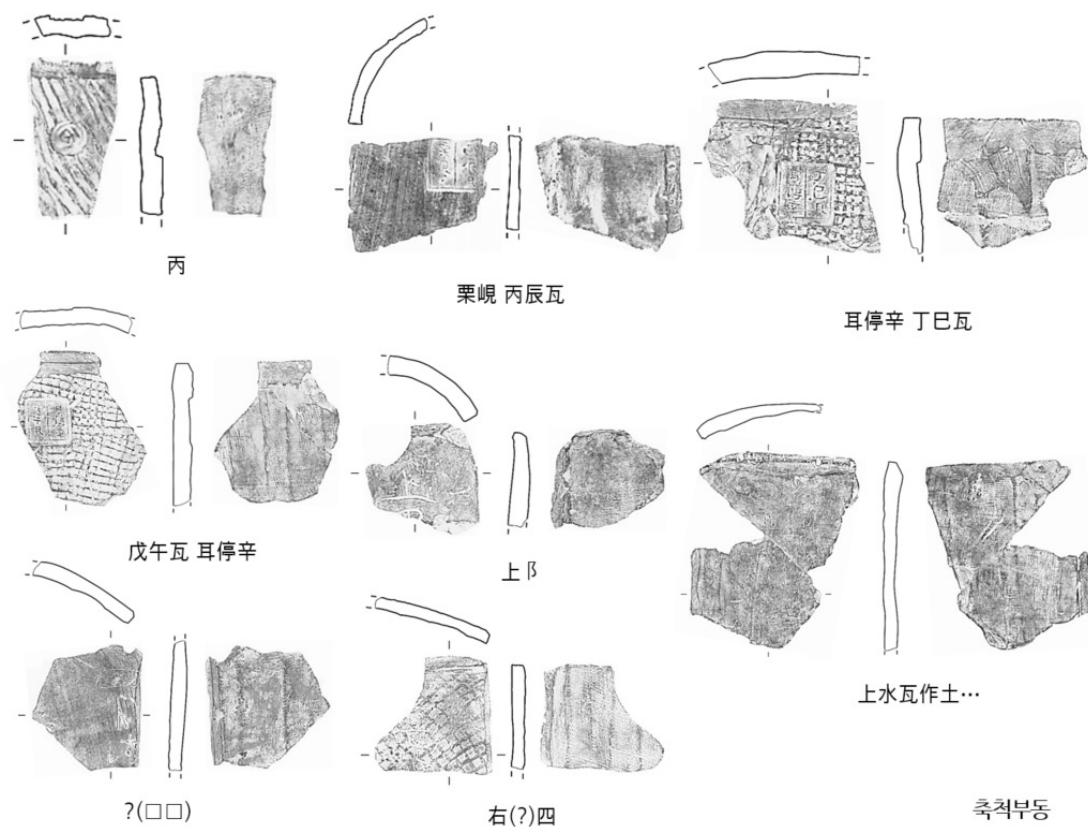
2000년대 들어 중국은 소위 ‘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東北工程)을 추진하면서 동북 3성의 고구려 유적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조사에 주력하였다. 2002년부터 2007년에는 환인, 집안 등 고구려 도성유적을 중심으로, 이후에는 지방의 거점성에 대해 광범위한 발굴이 진행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다.

특히 길림성 집안지역의 국내성과 환도산성의 축성술은 가장 전형적인 원형모델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이는 주변 지역의 성곽 건설에 한 기준이 되었음은 당연하다. 즉 도성의 체성 축조법, 치성, 각루, 수구, 다각형 건물지 등의 주요 유구는 고구려의 중앙 축성 양식에 해당되며, 이러한 축성술이 고구려의 지방 거점성과 백제 및 신라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sup>32)</sup> 여기에는 기술적 교류와 영향관계가 포함된다.

31) 적색의 격자문 암기와편으로 니질의 태토이다. 내면에 마포흔과 모골흔이 남아 있다.(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錦山 栢嶺山城』, 125~127쪽.) 제반 속성으로 보아 한강유역 보다는 임진강유역 출토 고구려 평기와와 유사하다.

32) 白種伍, 2017b, 「中國內 高句麗山城의 發掘 現況과 主要 遺構·遺物の 檢討-2005年~2016年 發掘調査를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53; 2017a, 「高句麗 城郭 築城術의 擴散에 대한 豫備의 檢討」 『高句麗渤海研究』59.





【삽도 15】백령성 출토 명문와



【삽도 16】“丙”자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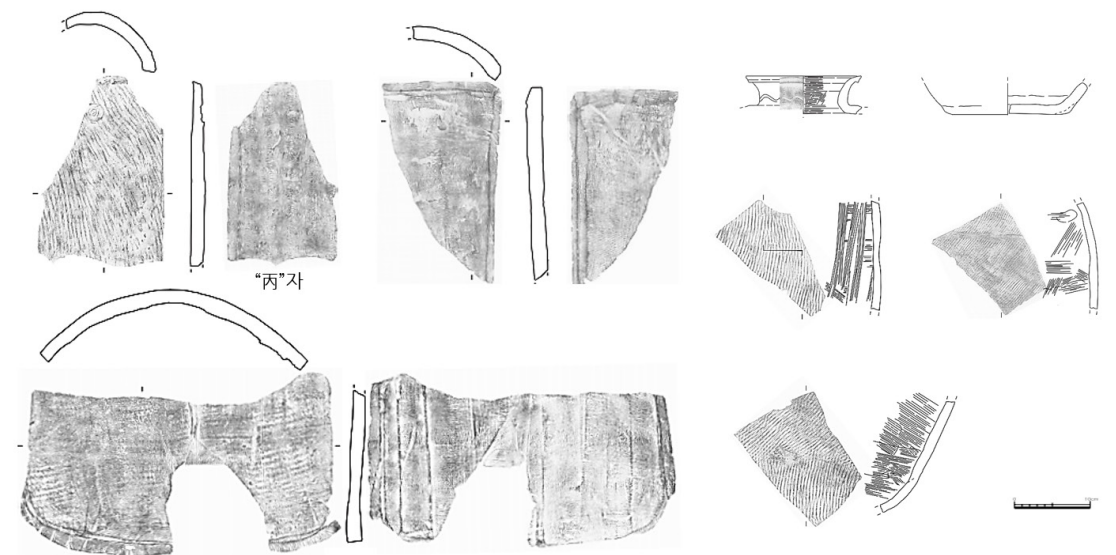


【삽도 17】“上水瓦作土...”명기와

현재까지 현문식 구조 성문의 경우, 체성부의 기단보축, 원형 치성인 곡성과 함께 신라 산성만의 고유한 특징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길림성과 요녕성 등의 고구려 산성에서 확인된 바 있다. 통화 자안산성의 서벽 3호 문지, 봉성 봉황산성의 북서문지, 장하 위패산성 등이 그 예이다. 이중 자안산성 3호 문지는 서벽 중단부의 북쪽 구간에 자리하고 문도 너비는 1.7m이다. 북측벽은 보존 상태가 좋으며 잔존 너비는 5m 정도이다. 선단부 역시 백령산성과 같은 곡면 처리를 하였다.(삽도 25 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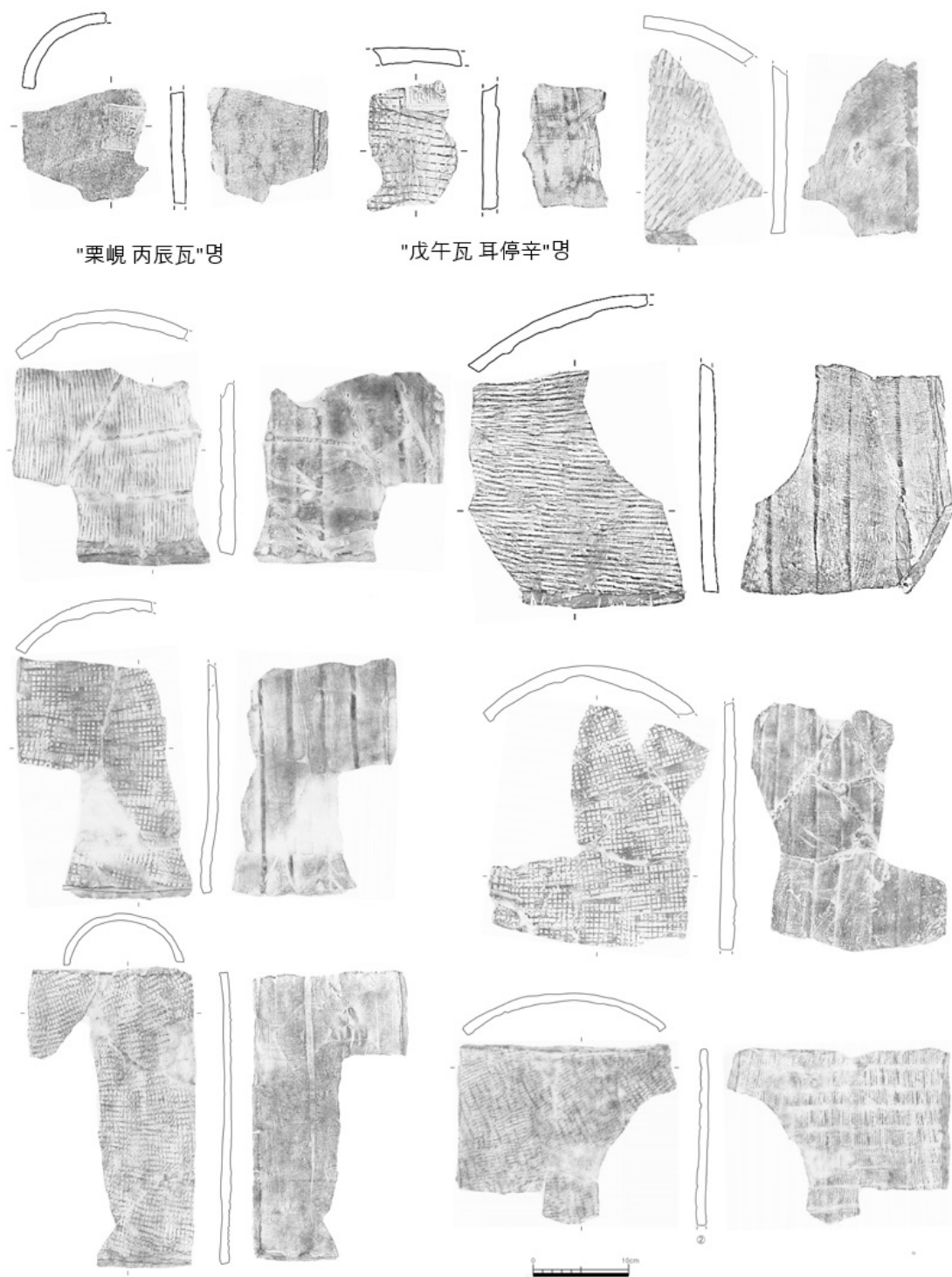
백령산성의 치의 경우도 국내성의 서남 각루와 유사한 구조를 보여준다. 국내성 서남 각루는 돌출부의 길이가 1~3m 정도로 짧고 길이가 4~7배 정도로 긴 성벽과 평행한 세장방형의 구조물이다. 기존 치성으로 통칭하였는데 앞으로는 각루라는 개념이 보다 적합할 듯하다. 이러한 회절부 치는 부여 북나성 다구간 치와 동나성 제2문지 옆 치 등의 사례가 있다. 백령산성과 관련되는 몇 사례만 든 것이다.

본고 후미의 삽도 26)에서 보듯이, 고구려 중앙의 국내성과 환도산성의 축성술이 이후 지방의 거점성 및 백제와 신라지역에도 확산되고 있다. 즉 4세기 국내성, 5세기 환도산성의 중앙 축성 양식이 지방 거점성을 건설하는데 원형모델이 되었으며 이는 축성법이나 각종 시설물의 구조에 그대로 반영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이 백령성에서도 간취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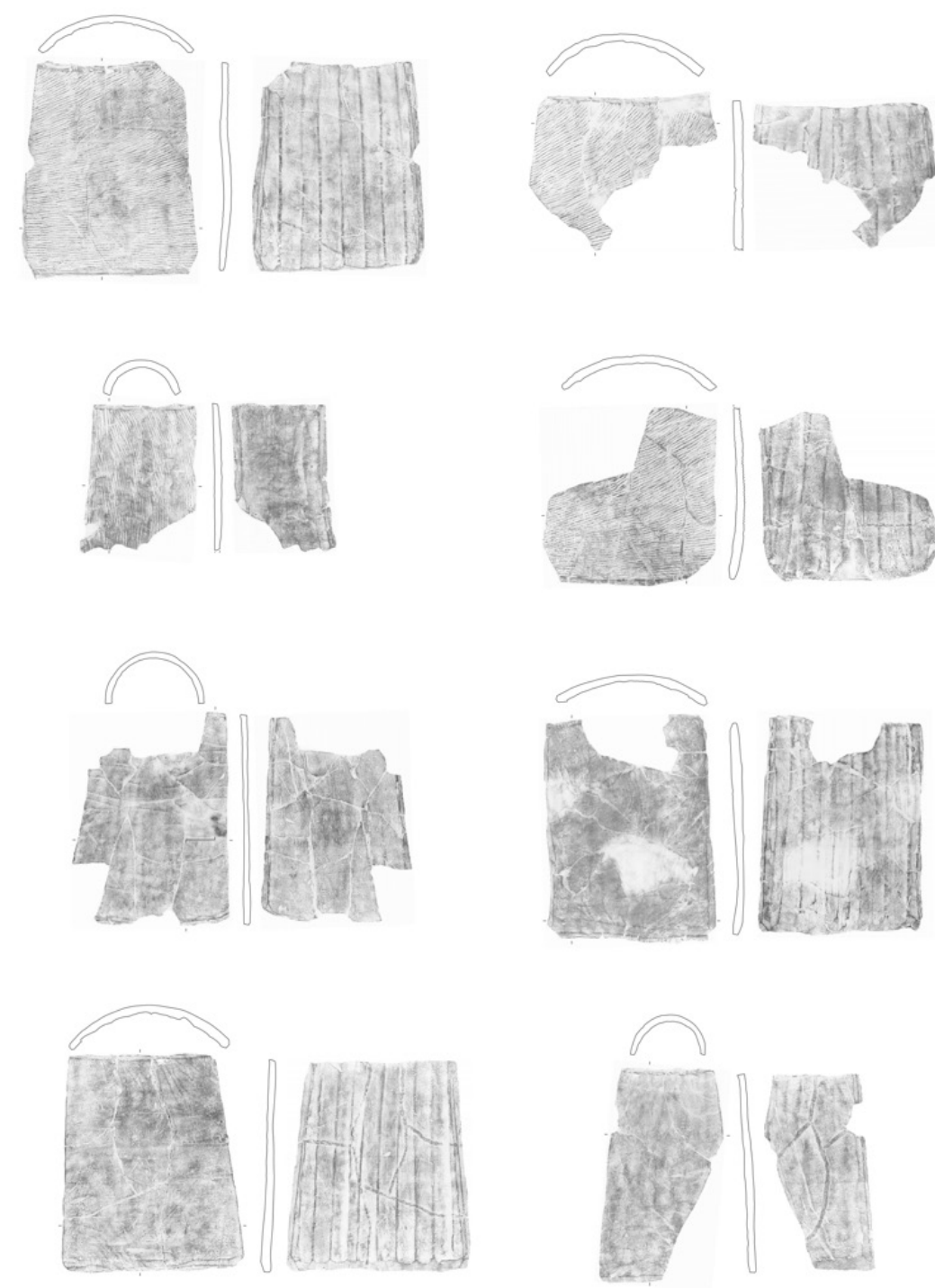


【삽도 18】남문지 출토 기와 및 토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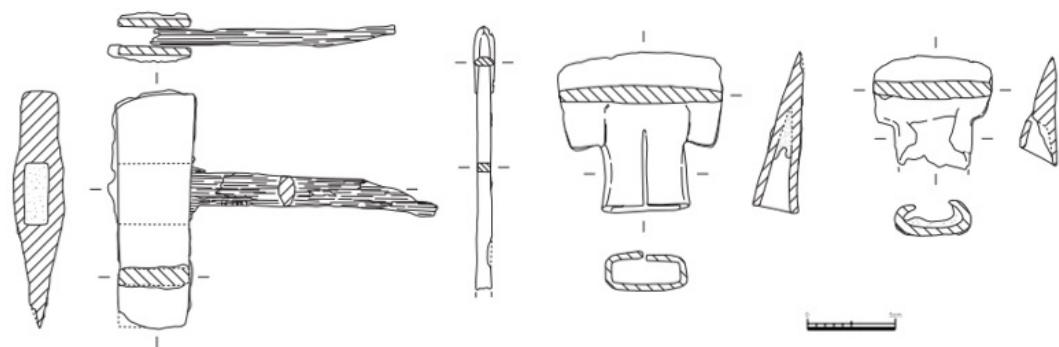


【삽도 19】목곽시설 출토 기와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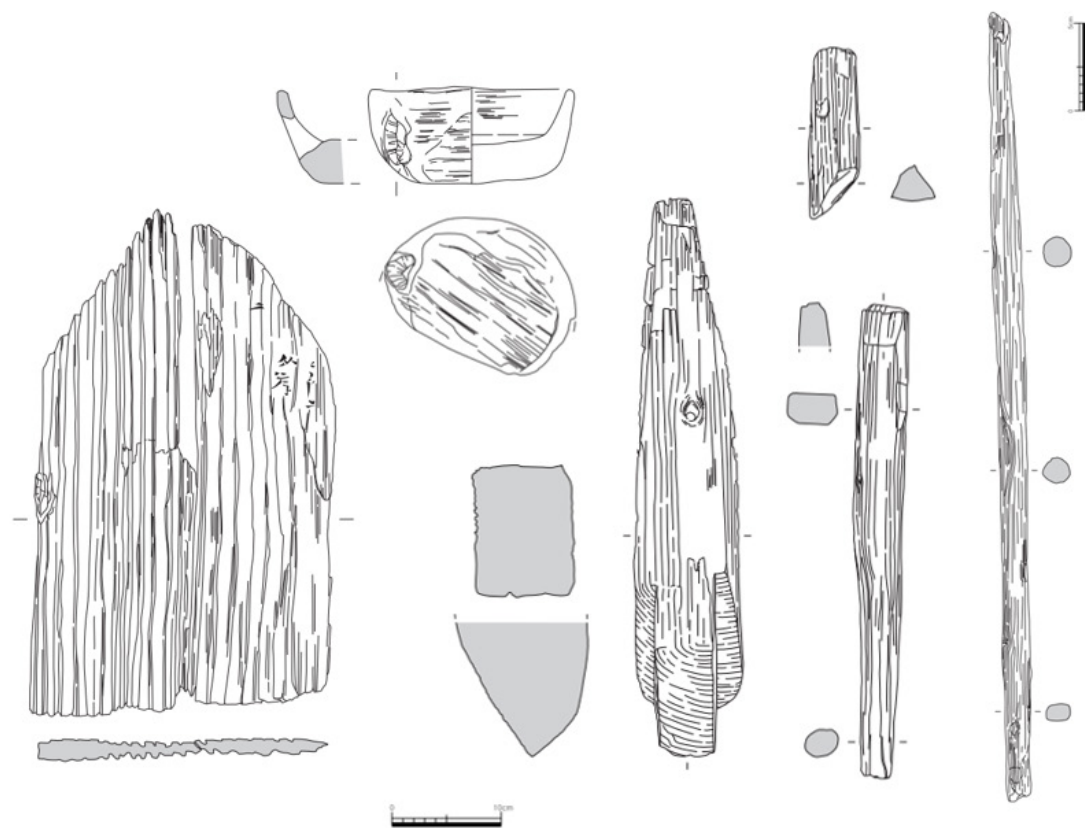


【삽도 20】목곽시설 출토 기와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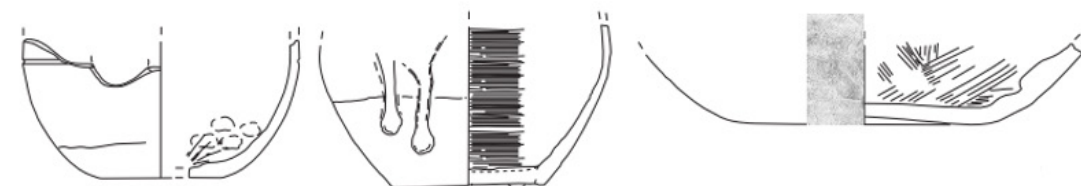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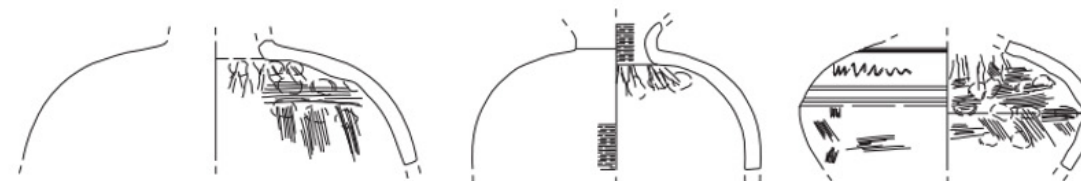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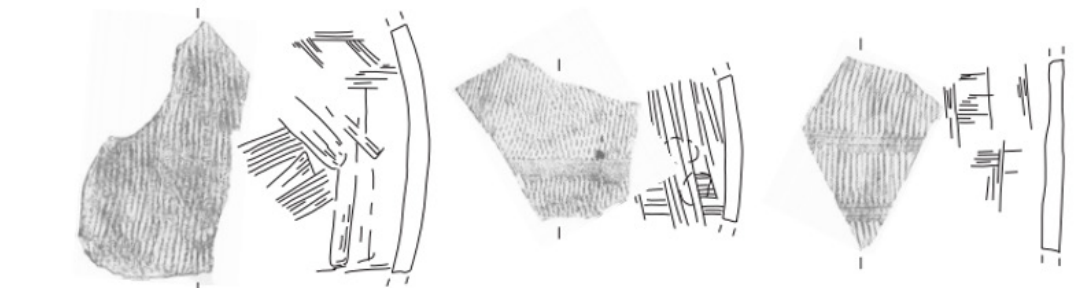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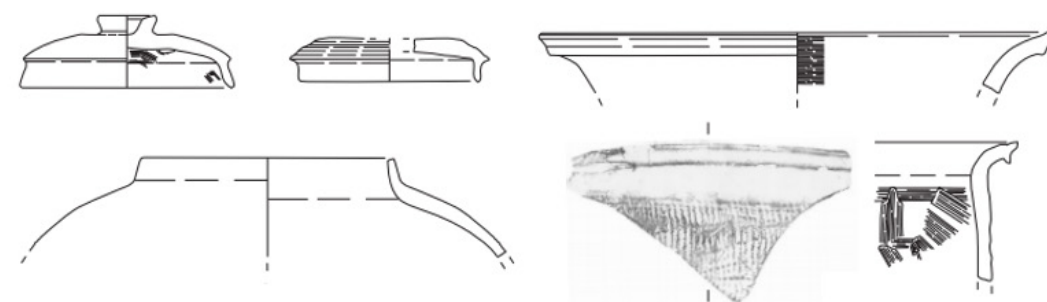


철기류



목기류

【삽도 21】 목곽시설 출토 철기 및 목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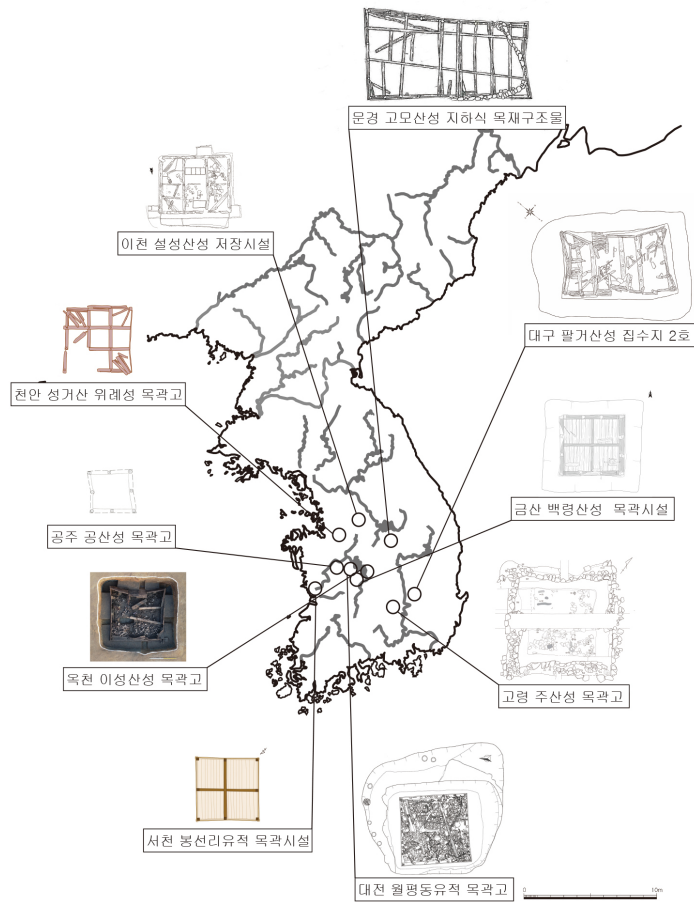


【삽도 22】 복문지 출토 토기류



[표 1] 6~7세기 목곽시설 현황

	유적명	유구명	규모(m)	평면	벽제	바닥	출토유물
1	금산 백령성	목곽시설	4.8×4.5×2.1	방형	목재	목재	토기편, 기와편, 목재유물, 할석
2	대전 월평동유적	목곽고	5.2×5.21×2	방형	목재	목재	목제사다리, 토기편, 할석
3	서천 봉선리유적	목곽시설	5×4.7×3.4	방형	목재	목재	토기편, 씨앗, 동물뼈
4	천안 위례성	목곽고	5.5×5.3×0.8	방형	목재	목재+점토	토기류, 목재유물
5	공주 공산성	목곽고	3.2×3.5×2.6	방형	목재	점토	목기, 씨앗
6	이천 설성산성	저장시설	5.1×4.1×0.8	방형	목재?	목재+점토	토기편, 할석
7	옥천 이성산성	목곽고	4.3×4.4×3	방형	목재	점토	토기편, 씨앗, 동물뼈
8	고령 주산성	목곽고	8×8.5×3.5	방형	목재+석재	목재?+점토	토기편, 기와편, 철기편
9	문경 고모산성	지하식 목재 구조물	12.3×6.9×4.5	장방형	목재	목재+점토	토기편, 목기, 씨앗, 동물뼈
10	대구 팔거산성	집수지 2호	8.5×4.9×3.6	장방형	목재+석재	목재+점토	토기편, 목간, 목재유물



【삽도 23】 6~7세기 목곽시설 분포도

III. 백령성의 문화유산적 가치

다음으로 이 장에서는 백령성이 가지는 문화유산적 가치를 한국고대 성곽 발달사의 한 획기 제공, 성곽 발전단계의 실증적 사례 그리고 한국고대 축성술의 교류관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고대 성곽 발달사의 한 획기 제공

금산 백령성은 둘레 207m 정도의 소규모 군사요새로 산봉형 테피식 산성으로 분류된다. 백제 사비기에 축성 및 운영, 폐기된 제한된 시간적 범위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는 중앙이 아닌 변경의 석축산성이라는 특성과 함께 문자자료인 명문기와를 통해 6세기말 혹은 7세기 중반으로 그 축성 및 운영시점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산성의 분류 방식은 두 가지로 통용된다. 하나는 정약용이 『民堡議』에서 언급한 蒜峯形, 紗帽峰形, 馬鞍峰形, 栲栳峰形 등의 4유형 분류이다. 또 하나는 세키노 타다시(關野貞)가 『朝鮮の建築と藝術』<sup>33)</sup> 에서 테피식(山頂式), 包谷式, 그리고 테피식과 포곡식을 결합한 複合式의 3유형 분류이다. 이러한 분류법은 모두 산성이 축조된 지형을 기반으로 나누었는데 역시 그 기본은 토성벽이나 석성벽이 지형의 어느 부위를 어떻게 통과하였는지를 관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들 분류법은 한국고대 축성사의 발전단계를 그대로 내포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분류법으로 통용이 가능하다. 한국 성곽사하면 선사시대부터 말한다. 신석기시대 종말기부터 청동기시대를 거치면서 고지성 취락이 형성되었으며 여기에는 목책, 환호, 토루 등의 방어시설물이 마을 외곽을 둘러치게 된다. 그 후 역사시대로 들어서면서 고현처나 요충지에 성을 축조하게 되는데 그 첫 단계가 산봉형, 그 다음이 사모봉형과 마안봉형으로 발전하면서 고로봉형에 이르러 완성된 형태의 거점 산성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를 좀더 단순하게 나누는 것이 테피식, 포곡식인데 앞서 언급한 산봉형과 사모봉형은 테피식, 마안봉형과 고로봉형은 포곡식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현재 통용되는 테피식, 포곡식 등의 세키노 분류법보다는 정약용의 분류법이 양성지가 말한 ‘산성의 나라’에는 보다 정확하고 전통적인 분류방식이라고

33) 關野貞, 1941, 『朝鮮の建築と藝術』, 岩波書店.



할수 있겠다.<sup>34)</sup>

이와 맞물려 축성 재료 또한 나무, 흙, 돌, 벽돌 등으로 순차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만 축성 지역의 자연적인 환경에 따라 재료 공급은 가변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다면 한국고대 성의 원형은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이다. 『三國志』에 보면 삼한의 성이나 부여의 성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높은 곳의 소규모의 방어시설이라는 점만을 읽어낼 수 있지 그외 정보는 알기 어려운 형편이다. 하지만 문헌사료에 기록된 성곽의 조영원리와 그간의 고고자료를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추정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고대 성은 산봉형 테피식의 소규모 요새들을 원형으로 점차 능선과 계곡부를 포함하는 축성술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통시적인 발전단계와 더불어 축조 재료와 축성 지역, 중앙과 지방, 주성과 보조성 등 그 기능과 용도까지 考究한다면 한국고대 축성사의 계보적인 변천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할수 있지 않을까 한다.

백령성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백제 사비기에 해당하는 6세기 전반에서 7세기 중반의 신라나 고구려의 축성술은 어떠하였는지가 궁금하다. 객관적인 비교가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는 통념상 5세기 후반 보은 삼년산성, 문경 고모산성, 영월 정양산성 등을 신라 성곽의 대표유적으로 말한다. 그 구조적 특징은 높이 10~20m 가량의 거대 석축산성, 기단보축, 현문식 성문, 반원형 곡성, 성벽 통과식 수구 등이다. 그리고 6~7세기의 대표유적으로 충주 남산성, 단양 적성, 양주 대모산성 등을 한반도 중남부지역의 고대 석축산성으로 꼽고있다.<sup>35)</sup> 물론 모두 古新羅로 편년하면서 5~7m 내외의 석축성벽, 기단보축, 낮아진 현문식 성문 등을 특징으로 삼는다. 통일 이후는 산성의 규모가 대형화된 석축산성으로 변모하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필자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다. 그것이 성곽 전공자로서의 기초 지식이었고 한국 고대사를 바라보는 기본 시각이었다. 또 이를 통해 동료 전공자들과 공감대도 형성되었다. 하지만 발굴 사례가 증가하면서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그간 한강유역과 임진강유역의 가장 큰 논쟁은 백제는 토성, 신라는 석성이라는 등식이다. 그리고 신라의 경우 5세기 후반부터 보은에 거대 석축산성을 축조하기 시작하면서 6~7세기

34) 하지만 테피식, 포곡식 등 일상화된 개념어를 우리 용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인 병용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

35) 文化財研究所·翰林大學校博物館, 1990, 『楊州大母山城 發掘報告書』, 52~53쪽.

에는 전국적인 확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은 삼년산성 남벽 판축구간,<sup>36)</sup> 단양 적성 북벽 구간 토축 구간<sup>37)</sup> 등이 보고되면서 문경 고모산성, 충주 장미산성 등에 대한 재검토한 결과도 모두 동일한 양상들로 밝혀지게 되었다.<sup>38)</sup> 고고학은 신자료의 증가로 인해 언제든 새로운 의견과 견해를 제기할 수 있다. 그것이 각론이면 수정 보완하면 된다. 하지만 총론은 다르다. 통사는 다르다. 그것은 한국 역사학계와 고고학계의 위상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5세기 후반 신라 석축산성 축성설은 폐기해야 마땅하다. 신라 왕경인 경주에도 명활산성작성비는 551년, 남산신성비는 591년을 지시하고 있다. 명활산성은 기존에 토축성벽을 사용하다가 석축성벽을 쌓으면서 그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요즘의 건축실명제와 같이 구간별로 성내에 立碑하였던 것이다. 그만큼 석축성벽을 높이 쌓는 작업 자체가 고도화된 토목기술을 요구하게 된다. 특히 계곡을 포함하는 구간<sup>39)</sup>은 더 없이 발전된 축성술을 보유한 사회 단계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테피식이 건축이면 포곡식은 토목에 비유된다. 그리고 경주 명활성의 북문과 곡성, 기단보축 등을 모두 5세기 후반의 특징으로 규정한다.<sup>40)</sup> 이것은 『三國史記』 기사에 현재의 삼년산성을 맞춘 결과이다. 그리고 성밖에 삼년산성 고분군, 대야리 고분군 등이 6세기대이니 현재의 삼년산성은 『三國史記』 기록과 부합된다고 믿어왔다. 이는 단순 비교와 기계적 대입의 결과로 순환논리에 빠진 위험한 발상이다. 지극히 고고학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백령성의 경우는 백제 사비기에만 사용되었다. 만약 동시기 고분군이 주변에 분포한다면 동시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것은 특별한 사례다. 일반적으로 연용성이 강한 성곽은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지속적으로 그 공간을 사용하게 된다. 선사시대도 마찬가지다. 요점과 요로를 장악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어떤 집단, 어떤 국가든지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시기별로 축성 목적이 무엇인지, 입지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지형에 따른 적합한 축조 부위는 어디인지, 축조 재료와 방법 등 제반 축성술은 어떻게 적용할지 등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성곽 개

36) 中原文化財研究院, 2008, 『報恩 三年山城-2006年度 內側 城壁 發掘調査 報告書』, 31~39쪽.

37) 한성문화재연구원, 2017, 『단양 적성 북문일원 보수공사 서벽구간 시굴조사 보고서』.

38) 백종오, 2019, 「6세기 중반 신라 丹陽 赤城의 景觀」 『先史와 古代』 61. 이러한 발전단계는 부여 부소산성의 축성술과 문자자료의 변화과정속에서 좀더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백종오, 2023b, 「扶餘 扶蘇山城의 築城法과 文字資料의 編年的 位置」 『고고학』 22-1.)

39) 권순강 외, 2011, 「석축 산성의 계곡부 체성과 못(池)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76.

백종오, 2020, 「한국고대 산성의 집수시설과 용도」, 『木簡과 文字』 25.

40) 최근에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엽이라고 그 시기목을 넓혀서 제시하기도 한다.



설서에는 성곽의 축조목적과 분류방법이 다종다양하게 설명되어 있다. 본고의 키워드는 多種多様, 迂餘曲折 등의 사자성어로 정리될 수 있다.

## 2. 한국고대 성곽의 발전단계의 실증적 사례

한국사의 시대구분(periodization in history, division of history)은 선사시대, 고조선, 삼한, 삼국, 남북국, 후삼국,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으로 나누어진다. 시간의 원근에 따라서는 고대(ancient times), 중세(medieval age), 근세(early modern period) 또는 근대(modern period)로도 분류된다. 또 사회발전단계에 따라 원시사회, 고대사회, 중세사회, 근대사회 등으로도 구분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시대구분에서 한국 고대사는 삼국, 고대사회를 중심으로 설정되었는데 그 물질유산을 가장 잘 보여주는 유적이 성곽과 고분이다. 이 두 유적은 國 또는 國家의 표징이며 권력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또 지하와 지상을 모두 사용하면서 조성된 陸築構造物(ground-building structure)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성곽은 연속적 사용성이 담보되는 연결성의 면적인 공간역을 보여주는데 비해 고분은 일회성 또는 단속적 사용성을 가진 점적인 공간역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성곽은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꾸준히 수·개축을 진행하지만 고분은 조성한 당대에 한하여 보수되는 경우가 많다. 중국 길림성 집안시에 소재한 광개토왕비에는 광개토왕 이전의 고구려 역대 왕들의 능을 수호하기 위해 守墓制를 개편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다. 또 법령 및 수묘인 제도에 할애하는 점에서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이렇듯 고대 국가에서 무덤 조영과 성곽 축조는 그 국가의 발전단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공기념물(public monument)에 해당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즉 그 사회 발전의 척도가 된다는 것이다. 삼국시대를 강의할 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순으로 말한다. 이니셜(initial, drop cap)로는 ‘KBSk’로 곧잘 표현한다. 국가 발전 단계를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최근 고구려는 Goguryeo로 K아닌 G로 표기한다.<sup>41)</sup> 우리가 고구려를 생각할 때 ‘거대한 적석총, 웅장한 석축산성’을 연상케 된다. 예컨대, 집안지역의 태왕릉·천추총·서대묘·장군총·환도산성, 환인지역의 오녀산성과 고검지산성, 심양 석대자산성, 등탑 백암성, 봉성 봉황산

41) 세계유산 중 고구려유적은 북한의 “高句麗 古墳群(Complex of Goguryeo Tombs, 2020.9.20.)”과 중국의 “고대 고구려 왕국의 수도와 무덤군(Capital Cities and Tombs of the Ancient Koguryo Kingdom. 2004.7.1.)”이 등재되었는데 고구려의 영문명이 다르게 표기된다.

성, 평양성과 대성산성 등이다. 그 시기는 주로 도성을 중심으로 유적을 구분하였다. 첫 수도인 혼강유역의 환인지역, 두번째 수도인 압록강 중류역의 집안지역, 세번째 수도인 대동강유역의 평양지역으로 시기를 나눈 결과, 초기의 흘본성(졸본성, B.C.37~A.D.3), 중기의 국내성(3~427), 후기의 평양성(427~668)의 세 시기로 유적과 유물이 편입되어도 무리가 없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중국이 동북공정 추진과 함께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발굴조사를 추진하면서 많은 고고 자료가 축적되었다. 환인 오녀산성의 발굴조사 보고서<sup>42)</sup>에서는 오녀산성 4기의 유구·유물을 4세기 말~5세기 초로 보았다. 하지만 이들 유물 중 당식 철제 등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현존 체성부의 축성술도 6세기 이후로 보는 견해<sup>43)</sup>가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다. 이외 심양 석대자산성<sup>44)</sup>을 위시해서 환인 고검지산성,<sup>45)</sup> 등탑 연주성,<sup>46)</sup> 서풍 성자산산성,<sup>47)</sup> 봉성 봉황산성,<sup>48)</sup> 집안 패왕조산성,<sup>49)</sup> 통화 자안산성<sup>50)</sup> 등 각지의 고구려 산성이 활발하게 조사

42)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五女山城』, 文物出版社.

43) 양시은, 2014, 「오녀산성의 성격과 활용 연대 연구」 『韓國考古學報』115.

44) 李曉鍾·劉長江·佺俊岩, 1993, 「瀋陽石臺子高句麗山城試掘報告」, 『遼海文物學刊』1: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瀋陽市文物考古工作隊, 1998, 「遼寧瀋陽市石臺子高句麗山城第一次發掘間報」, 『考古』10; 2001, 「遼寧瀋陽市石臺子高句麗山城第二次發掘簡報」, 『考古』2001-3, 2001: 瀋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07a, 「瀋陽市石臺子高句麗山城2002年Ⅲ區發掘簡報」, 『北方文物』3; 2007b, 「瀋陽石臺子山城2004年Ⅲ區發掘簡報」, 『瀋陽考古文集』1, 科學出版社; 2007c, 「瀋陽石臺子山城西門址的補充發掘」, 『瀋陽考古文集』1, 科學出版社; 2007d, 「瀋陽石臺子山城2006年Ⅲ區發掘簡報」, 『瀋陽考古文集』1, 科學出版社, 2007: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瀋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10, 「瀋陽市石臺子高句麗山城蓄水設施遺址」, 『考古』12; 2012, 『瀋陽石臺子山城』, 文物出版社.

45) 本溪博物館·桓仁縣文物局, 2001, 「遼寧桓仁縣高嶺地高句麗山城調查」 『東北史地』1: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博物館·桓仁縣文物局, 2009, 「桓仁縣高嶺地山城」 『中國考古學年鑑』, 文物出版社: 梁志龍·王俊輝, 2011, 「遼寧省桓仁縣高嶺地高句麗山城調查」 『東北史地』1: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2, 「2008-2009年遼寧桓仁縣高嶺地高句麗山城發掘簡報」 『東北史地』3: 遼寧省文物考古研究院·本溪市博物館·桓仁縣文物局, 2022, 「遼寧桓仁縣三座高句麗山城及北溝關隘遺址調查報告」 『北方文物』4.

46) 蘇鵬力, 2011, 「燈塔市燕州城城址」 『中國考古學年鑑』, 文物出版社.

47) 周向永, 2009, 「西豐城子山城始建年代再考」, 『東北史地』2; 2011, 「西豐城子山, 鐵嶺催陣堡兩山城中戍卒營地的相關問題」, 『東北史地』1.

48) 崔玉寬, 1994, 「鳳凰山山城調查簡報」, 『遼海文物學刊』2: 李龍彬, 2007, 「遼寧丹東鳳凰山山城首次發掘取得重大收穫」, 『中國文物報』3: 李龍彬·司偉偉, 2008, 「鳳城市高句麗鳳凰山山城」, 『中國考古學年鑑』, 文物出版社.

49) 王春燕·鄭霞, 2008, 「霸王朝山城的調查與研究」 『東北史地』3: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16, 「集安市霸王朝高句麗山城」 『中國考古學年鑑』, 文物出版社: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17, 「集安市霸王朝高句麗山城」 『中國考古學年鑑』, 文物出版社: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18, 「集安市霸王朝山城」 『中國考古學年鑑』, 文物出版社: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21, 「吉林集安市霸王朝山城2015~2016年發掘簡報」 『考古』11.

50) 通化市文物保護研究所, 2010, 「吉林省通化市自安山城調查報告」, 『北方文物』3; 徐坤·聶志勇·張迪, 2012, 「再論吉林省通化自安山城的年代」, 『博物館研究』2.



되었다. 이들 거점성들의 석축성벽 역시 6세기 이후로 편년되는 실정이다.<sup>51)</sup>

따라서 중국내 고구려 산성들의 발굴조사 성과들을 종합하면서 한반도내 고대 산성들의 비교 및 검토 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남한학계의 신라 거대 석축산성의 편년안은 70년대 말의 고고자료 부재 속에서 결정되었다. 『三國史記』의 기사를 최종적인 육축구조물에 도식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온당한 학문적 자세라고 볼 수 없다. 앞으로 남한지역 신라 석축산성의 시기 구분은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1,500년 전의 석축산성은 편년 설정의 기준이 되기 보다는 그 역사적 층위를 성벽속에서 차분히 따져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베네틱트 리처드 오고먼 앤더슨(Benedict Richard O’Gorman Anderson, 1936~2015)이 정리한 民族의 개념이 떠오른다.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다.

이와 달리, 금산 백령성은 백제 사비기에만 한정된 시간적 범위를 가진다. 산봉형 테뫼식으로 산성의 발전단계를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가 된다. 규모도 207m의 소규모이지만 현문식 구조의 성문과 세장방형의 치성, 겹벽 구조의 성벽, 편축식과 협축식을 혼용한 체성부 등 특징적인 축성술이 돋보인다. 또한 성내 회곽도, 정상부의 목곽시설, 수혈유구, 부뚜막 등의 유구와 기와류, 토기류, 철기류 등의 출토유물 등은 당시 백제군의 전투 방식과 병영 생활의 사회상을 구현하는데 더없이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들 유구와 유물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유물들이 ‘丙辰瓦 栗峴口[峴,<sup>52)</sup> 縣]<sup>53)</sup>, ‘丁巳瓦 耳淳辛’, ‘耳淳辛戊午瓦’, ‘上 [部]’, “上水瓦作五十九 (一) 夫瓦九十五作(人)那魯城移文” 등의 문자자료이다. 이중 ‘丙辰’, ‘丁巳’, ‘戊午’ 등 간지명 인명과 의 연대는 ㉔ 성왕 14년(536)·15년(537)·16년(538), ㉕ 위덕왕 43년(596)·44년(597)·45년(598)과 ㉖ 의자왕 16년(656)·17년(657)·18년(658)의 세 시기로 대별되고 있다.<sup>54)</sup>

요컨대 삼국시대 석축산성의 계보는 고구려, 백제, 신라 순으로 국가발전단계와 연동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축성술 역시 토축성 → 토축외면축석성 → 석축성의 계보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sup>55)</sup> 백령성의 경우 한국고대 성곽 발전단계의 실증적 사례로

51) 백종오, 2017b, 앞의 글; 2023a, 「고구려 성곽의 편년 설정을 위한 예비적 검토」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의 현황과 역사적 성격』, 동북아역사재단, 143~148쪽.

52) 이병호, 2013, 앞의 글, 73쪽.

53) 이 부분을 등호 표시로 보면서 ‘峴’의 음가를 차자해서 ‘縣’을 표기한 것으로 보았다.(손환일, 2009, 앞의 글, 137쪽.)

54) 필자의 편년안은 추후 문헌 검토와 유구 및 유물 분석, 사례 비교 등을 살펴본 후 별고를 통해 구체화할 생각이다.

55) 백종오, 2019, 앞의 글; 2022a, 「沃川 己城山城의 城內 施設物 檢討와 築城史的 意味」 『韓國史學報』87; 2023c, 「세종 李城의 고고학 성과를 통한 문화재적 가치 제고」 『고조선단군학』50; 2023d, 「중원문화권 관방유적 조사·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先史와 古代』71.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는데 이는 한반도내 소규모 성 가운데 가장 완벽한 석축구조체를 실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축성土築城 → 토축외면축석성土築外面築石城 → 석축성石築城  
(토축외면축석양식土築外面築石樣式, 토성외면축석양식土城外面築石樣式)

### 3. 한국고대 축성술과 교류 관계 증명

#### 1) 한국고대 關城의 최초 발굴 사례

백령성은 그 명칭에서도 보듯이 고갯길을 통할하는 역할을 수행한 성이다. 고대로 부터 성곽의 입지는 하천과 지천의 합류지점인 합수머리와 산맥이나 지맥의 주요 감제지점인 고갯길에 축성되었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도로개설보다는 하천변의 하천로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이를 연결하는 고개를 개척해 사용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고개는 한자로 嶺, 峴, 峙, 站 등으로 표기되었으며 한글로는 재로 읽혀진다. 재는 “길을 통해 넘나들 수 있는 높은 고개”라는 뜻이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阿達羅尼師今때 개척된 계립령(156), 죽령(158) 등이 가장 이른 기록으로 나온다. 하지만 2세기 중반에 신라가 소백산맥을 넘어 중원지방으로 진출했는지는 고고 자료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재고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同書의 고구려 온달전에는 “계립현, 죽령 이서의 땅을 회복하지 않고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기사를 통해 당시 고구려와 신라는 소백산맥의 죽령과 계립령을 경계 삼는 국계의 식이 있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풀이할 수 있다. 이는 충주 고구려비(잣고개와 노은고개), 황초령비, 마운령비 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계립령의 경우, 고대로부터 고려 때까지 경북 문경시 문경을 관음리에서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를 넘는 하늘재를 이용하다가, 조선시대에는 문경시 문경을 각서리에서 괴산 원풍면 주진리로 연결되는 새재 즉 조령으로 그 기능이 옮겨가게 된다. 현재 문경새재의 관문은 조선 숙종대 수·개축된 제1관문인 主屹關(草谷城, 1890년 중수), 제2관문인 鳥谷關(中城, 1708년 증축), 제3관문인 鳥嶺關(鳥嶺山城) 등 3관문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조선시대에는 고갯길에



관방시설을 설치하였는데 그 원류는 삼국시대부터 기인하였다고 할수 있다. 예컨대, 죽령에는 죽령산성, 계림령에는 한훤령산성(대원령산성), 팔랑치에는 팔령산성(합미산성) 등이 있다.

백령성의 백령은 명칭 자체가 잣고개나 잣곡, 잣재의 한자식 借字表記이다. 여기서 잣은 잣나무(栢) 또는 잣·잣·작(城)의 두 가지 의미가 중의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용인 석성산성과 합미산성 사이의 고개길은 栢岬인데 이때는 잣나무 백자를 쓰고 있다. 광주 무진고성에도 잣고개(성치, 적현, 척곡) 위에 잣나무가 많다고 『한국지명총람』에 기록되어 있다. 이외 ‘성 아래 고개’인 잣고개는 충주 장미산성, 진천 문안산성, 남양주 퇴피산성 등에 남아 있다.<sup>56)</sup> 이렇듯 백령성과 잣고개의 중의적인 의미는 고갯길을 감제하는 관문 또는 관성의 기능을 내포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관문은 『표준국어대사전』에 “국경이나 요새 따위를 드나들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과 “국경이나 요새의 성문”으로 정의 되어있다.<sup>57)</sup> 또 『위키백과』에는 “성의 관문은 바깥을 오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통로라서 이를 영역의 상징물로 사용한다”라고 정리하였다.

이러한 정의와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갯길을 감제하는 잣고개에 위치한 백령성은 관성의 기능을 담당한 초기적 형태의 소규모 군사요새로서 고고학적 발굴조사를 거친 최초의 사례라고 판단된다. 그 시기도 백제 사비기로 압축된다는 점에서 동시기 다른 유적들의 입지와 구조, 기능을 추정하는데 전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 길림성 집안지역의 망파령관애, 관마장관애, 칠개정자관애, 경주 관문성 등과 좋은 비교 사례가 된다. 이중 관문성은 신기리산성과 장성이 결합된 형태로 백제의 백령성과 같은 산성과 고구려의 차단성 같은 관문을 그대로 결합시킨 완성된 형태의 전형으로 여겨진다. 즉 국경이나 내륙 요충의 고갯길을 산성과 관애가 하나의 완성된 구조체를 형성하였으며 그 원류는 금산 백령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백령성은 소규모의 보루급 군사요새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고려시대의 戍, 조선시대의 堡나 墩臺 등으로 통시적인 변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 고갯길의 감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차단성 형태의 관문과 결합하면서 산성+관애라는 방어체계의 원형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통일신라시대의 경주 관문성, 조선시대의 문경 고모산성과 진남루(석현성), 조령관문 등으로 계승 발전될 수 있는 하나의 동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56) 한글학회, 1988, 『한국지명총람13(전남편1)』.

57) 국립국어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사비도성-은진(동방성)모촌리산성(산직리산성, 황산성)-용계산성-탄현봉수-탄현산성-백령성-계진리산성:進仍乙郡(금강상류)-천내리산성-비봉산성(조천성)-옥천(관산성)과 영동방면

## 2) 백제 사비기 석축산성의 특징과 축성술 교류 규명

백령성이 소재한 충남의 금산을 포함한 인접지역인 옥천, 영동, 대전, 논산 등과 전북의 무주, 진안, 장수, 완주 등은 그간 문화유산의 조사 및 연구에 있어 사각지대였다. 각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경계지역이 공교롭게도 삼국시대의 접경지역이기도 했다. 우리는 흔히 임진강과 한강유역을 표현할 때 ‘三國의 角逐場’이라고 말한다. 고대국가들이 서로 이기려고 다투고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금강 상류에 또 하나의 각축장이 있었다. 소규모 군사요새들이 산세를 따라 열진으로 포진하며 서로 간에 유기적인 방어체계를 형성한 점이 특징적이다.<sup>58)</sup> 한강유역의 아차산보루군, 양주분지의 불곡산보루군과 천보산보루군 등이 대표적이다.

금강 상류역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의 각축장으로 소규모 군사요새들이 밀집되었다. 옥천을 중심으로 인접한 대전, 영동, 금산 등이 하나의 거대한 고로봉형의 형세로 작동하였으며 그 남서쪽 포인트를 백령성이 통할하였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큰 의미가 있다. 이들 지역은 소규모의 요새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다 보니 대규모의 거대 석축산성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보은 삼년산성, 대전 계족산성, 문의 양성산성 정도이다. 그리고 『三國史記』에 의하면, 신라 자비마립간 13년(470)에 삼년산성을 초축하였고 소지마립간 8년(486)에 굴산성과 함께

58)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2024년 백령성 및 금산군 일대 관방유적 기초조사를 진행한 결과, 신규 유적인 화림리산성과 매방골산성 등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호경, 2024) 특히 고지형 분석을 통해 의심지형 7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신규 2개소 이외에 기보고된 3개소가 중복 확인되었다. 이는 문화재청 GIS와의 오차 범위로 인해서 발생한 차이였다. 이처럼 새로운 조사방법론을 적용해 의심지형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현지조사를 거쳐 유적의 여부를 파악하는 작업은 향후 광역단위 지표조사시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매방골산성은 복수면 곡남리 산28-4번지에 위치하며 둘레는 317m로 계속되었다. 이산성은 기존의 곡남리산성, 초남산성과 동서능선을 따라 등간격으로 배치된 점이 주목된다. 기존 보루군의 배치 양상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추후 더 많은 유적들이 확인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화림리산성은 금성면 화림리 534-13번지에 해당하며 둘레는 197m 정도이다. 이들 두 유적 역시 소규모의 요새들이다. 금강 상류 일대에 밀집된 보루급의 성들로써 지역적인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전북가야를 이야기할 때 봉수와 야철지, 고분 등을 대표적으로 들고 있다. 이중 봉수의 경우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고원의 산악지대에 입지한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금강상류 일대에 위치한 보루급 성들과도 어느정도 맥락적인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추후 논고를 통해 견해를 밝혀보고자 한다.



삼년성을 수축하였다고 기록되었다. 2006년 삼년산성 남벽 내측에서 판축토성이 확인된 바와 같이 동시기에 수축된 굴산성(옥천 이성산성) 역시 판축토성이고 일부 구간에서만 토축외면축 석양식이 노출된 바 있다.

금강 상류역에는 많은 고대 성곽들이 밀집 분포하는데 대부분 소규모 요새이고 거대 석축산성의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난다. 이는 시기 구분의 오인에서 비롯된 것이고 삼국이 각축을 벌일 때는 소규모 군사요새가 대세였으며 축조방법은 토축성이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양 행주산성의 산봉형 테피식 석축성, 김포 문수산성의 산봉형 테피식 석축성 등의 최근 사례들을 볼 때 6~7세기부터 일부 테피식의 소규모 석축산성의 축조는 신라도 가능하였다고 생각된다.

554년 관산성 전투의 현장은 어디일까? 오랜 학계의 숙제다. 어딘지 모른다. 분명 대규모 군사충돌이었으면 삼년산성처럼 거대한 석축산성이었을텐데 말이다. 이는 시각 교정의 문제다. 5세기 후반의 삼년산성에 焦點을 맞추다 보니 볼록렌즈진, 오목렌즈진 사물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였다. 그저 문경 고모산성, 영월 정양산성, 대전 계족산성 등만을 거론하며 찬란한 신라문화를 찬양하게 된다. 그러나 신라가 아닌 통일신라였던 것이다. 관산성은 옥천 서산성으로 잠정하는 것이 최근 학술대회의 결과이다.<sup>59)</sup> 좀 더 다양한 시각의 접근법과 교정이 요구된다. 이것은 한국고대 축성사 측면에서 볼 때도 백제에서만 사용되었고 그중에서도 사비기에 집중된 백령성은 백제 성곽의 원형을 추찰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된다.

다음으로 금산 백령성의 석축성벽과 현문식 성문, 치성 등의 축성사적 계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이다. 그 의문을 풀기 위해 백령성 출토유물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이중 백제 기와와는 차별화된 몇 가지 속성이 관찰되었다.

첫째는 적색 니질의 격자문 암키와이다. 전형적인 고구려 기와의 양식적, 기술적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한반도 최남단에서 발견된 고구려 기와가 된다. 이전까지는 한강유역의 흥련봉1보루, 아차산성, 가락동 5호분 출토품이 전부였다. 모두 한강변을 벗어나지 못하는 지역적 한계가 뚜렷했다. 둘째는 백제 기와류에 고구려 기와의 속성이 깊게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이와 달리 전형적인 고구려 암키와가 백령성에서 출토된 점은 매우 시사성이 강하다고 하겠다. 문양구성도 격자문, 횡선문 등이 우세한데 횡선문의 경우 남한지역에서는 임진강유역의 호로그루 출토품이 대표적이다. 내면의 폭이 좁은 모골흔, 양측단의 귀접이 등은 온전한 고구려 기와의 속성으로 대표된다. 전체 수량중 한점만 검출되었으며 나머지는 그와 유사하게 만든 기와들이다. 바로 전

59)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23, 『관산성 전투와 옥천 서산성의 조사연구 및 향후과제 발표집』.

범 혹은 샘플을 가지고 고구려 장인이 현지에서 기술지도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기와란 샘플을 보면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공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사 사례로 세종 이성의 기와류도 적색 연질의 횡선문과 귀접이 등의 속성도 관찰되기 때문에 좋은 비교 자료가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구려 기와는 백령성의 석축성벽과 현문식 성문, 치성 등의 축성술의 원류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유물로서 파악이 가능하다. 석축성벽은 집안지역의 환도산성이나 패왕조산성과 유사하고 현문식 성문은 통화 자안산성 3호문지, 봉성 봉황산성, 위패산성 등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세장장형의 치성은 국내성 각루의 사례와 유사하다. 이처럼 유구와 유물에서 뚜렷한 고구려의 축성술과 기와가 출토되었다는 점은 백령성의 기술적 원류와 교류관계를 파악하는 핵심적 증거로서 남한 유일의 고구려계 백제 성으로서의 역사고고학적 가치도 부각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백령성의 석축성벽과 성내 시설물 그리고 출토유물들은 고대 축성사의 올바른 편년 설정과 함께 고구려와의 기술적 교류 및 영향관계를 실증하는 희소한 사례라는 점에서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는 매우 지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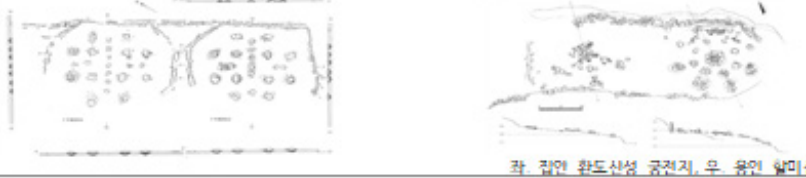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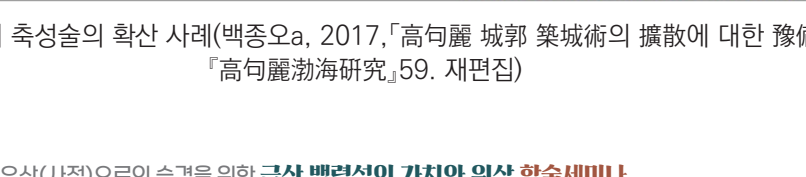


【삽도 24】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완간 책자



【삽도 25】 좌. 집안 광개토대왕릉비 앞에서 / 우. 통화 자안산성 현문식 구조 3호 문지 앞에서



백령성	고구려	 <p>좌, 집안 환도산성, 궁전지, 무, 율안 남당산성</p>
	원	 <p>좌부터 심양 석대산성, 천주 부모산성, 거제 회왕성, 남해 대국산성</p>
수구	고구려	 <p>좌, 집안 국내성, 무, 심양 석대산성</p>
	백령성	 <p>좌, 집안 환도산성, 무, 통화 자안산성</p>
백령성	고구려	 <p>좌부터 통화 자안산성, 금산 벽랑산성, 보은 삼년산성, 문경 고묘산성</p>
	백령성	 <p>좌부터 집안 국내성, 환인 고검지산성, 심양 석대산성, 금산 벽랑산성, 인천 계양산성</p>
백령성	고구려	 <p>좌부터 집안 국내성, 금산 벽랑산성, 하남 아성산성</p>
	백령성	 <p>좌부터 집안 국내성, 금산 벽랑산성, 하남 아성산성</p>

【삽도 26】 고구려 축성술의 확산 사례(백종오a, 2017, 「高句麗 城郭 築城術의 擴散에 대한 豫備的 檢討」 『高句麗渤海研究』59. 재편집)

## IV. 맺는말

지금까지 백령성의 축성술과 그 문화유산적 가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결과, 백령성의 구조적 특징과 출토유물은 고구려의 영향이 그대로 반영된 당시 최첨단 군사요새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장에서는 금번 발표문을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사항들을 몇 가지 제시하면서 맺는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백령성의 평면도 문제이다. 2003년의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시굴조사와 발굴조사 등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그런데 다른 성곽들과의 평면형태를 비교해 보려니, 뚜렷한 평면도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과연 그럴까? 하면서 사적지정보고서까지 살펴보았는데 과연 그렇다. 물론 현재 평면도를 가지고 사용할 수는 있지만 ‘성벽붕괴구간’이라고 동벽과 서벽구간에 쓰지 말고 실선이나 점선으로 성벽 라인을 표시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한다. 현 평면도를 가지고는 다른 유적과의 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적 지정시 문화재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이 별도로 표시되는데 이를 위해 정확한 측량도가 있어야 필지별 지적도에도 엮을 수 있다. 조속히 시정될 필요가 있다. 이때 산성 전체에 대한 종합단면도도 덧붙여진다면 유적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백령성의 주변유적 현황 문제이다. 백령성의 소재지는 “충남 금산군 남이면 역평리와 건천리 경계의 성재산(해발 430m)”으로 정리된다. 이곳은 1963년까지 전라북도에 편입되었다가 그 이후 충청남도 행정구역으로 재편되었다. 그만큼 충남보다는 전북이 인문지리적 환경에서 유사하며 이로 인해 생활권도 그곳이 편리하였던 것이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무진장’과 유사한 고원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무진장은 무안, 진안, 장수를 말한다. 백령성은 완주나 진안 지역과 행정구역의 경계를 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금산뿐만이 아니라 완주나 무진장의 성곽과 고분, 주거지, 생산유적 등의 정확한 파악은 필수적이다. 그래야만이 올바른 유적의 기능과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주변유적으로는 진안 와정토성과 월계리와요지, 완주 탄현 산성과 탄현봉수 그리고 용계산성, 무주 봉화산봉수 등이 있다.<sup>60)</sup>

셋째, 백령성과 교통로의 문제이다. 『三國史記』에 따르면 501년 가림성을 축조하고 탄현에

60) 군산대학교 박물관, 2003, 『전북동부지역 가야문화유산』: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2021, 『전북 동부지역 삼국시대 관방유적 분포현황 조사보고서』.



목책을 세웠다. 백제의 충신인 성충은 의자왕에게 간할 때 침현 방비를 당부했고 신라의 김유신은 660년 7월에 백제 공격로로 탄현을 이용하였다. 여기서 탄현은 백령성 주변으로 비정되는 중요한 요충이다. 고대의 교통로는 고갯길과 하천로로 압축된다. 고갯길은 ‘재’나 ‘峴’, ‘嶺’, ‘峙’ 등의 어미로 표기되며 이곳의 통할을 위해 고대로 부터 많은 성곽이 축조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천로 역시 본류로 합류되는 지천망을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으며 산지가 많은 한반도의 경우 도로개설 보다는 하천로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백령성과 관련된 각종 보고서나 자료들을 보면, 금산 읍내나 백령성부터 서쪽의 사비도성, 북서쪽의 웅진성까지의 교통로는 추정 경로까지 제시되었지만, 그외 인접한 경상도, 전라도에서는 어떠한 경로와 교통로를 이용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무한 형편이다. 앞서 언급한 주변 유적 현황과 연계된 문제점이다. 속히 보완되길 희망한다.

- 餘墨 -

금산 백령성의 현문식 구조 성문인 남문지와 북문지의 문도부에는 목탄흔, 소결흔 등 화재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었다. 최전방 요새의 최후 장면이 그려진다. 백제의 사비도성과 웅진성으로 진격할 수 있는 결정 지이자, 변곡점을 신라군은 간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라군은 막막했을 것이다. 이는 백령성의 견고한 성벽과 함께 누다락 형태의 성문을 돌파해야만이 백령성을 공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라군은 남문보다는 잣고개와 연결된 능선상의 북문 공격에 집중했을 것이다. 이곳이 능선을 따라 외부로부터의 진입이 용이한 지점이 된다. 북문 다음이 남문 순으로 점령당한 후 불태워진 증거가 발굴시 노출된 문도부의 화재 흔적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국립국어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백종오·김병희·신영문, 2004, 『韓國城郭研究論著總攬』, 서경문화사.

서정석, 2003, 『百濟의 城郭』, 학연문화사.

심정보, 2009, 『백제 산성의 이해』, 주류성.

차용걸, 2016, 『한국 축성사 연구』, 진인진.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1989, 『韓國의 城郭과 烽燧-中』.

한글학회, 1988, 『한국지명총람13(전남편1)』.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6, 『양주 태봉산보루 I』.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7, 『양주 태봉산보루 II』.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8, 『양주 태봉산보루 III·IV』.

국강고고학연구소, 2017, 『沃川 己城山城(1차) 긴급발굴조사 보고서』.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2021, 『전북 동부지역 삼국시대 관방유적 분포현황 조사보고서』.

군산대학교 박물관, 2003, 『전북동부지역 가야문화유산』.

금산군, 2012, 『금산 백령성 종합정비 기본계획』.

錦山郡誌編纂委員會, 1987, 『錦山郡誌』.

錦山郡誌編纂委員會, 2011, 『錦山郡誌3, 전통이 살아있는 터전』.

錦山郡廳, 1982, 『錦山山河』.

기호문화재연구원, 2021, 『양주 대모산성 발굴조사-8·9차 발굴조사보고서 합본』.

기호문화재연구원, 2022, 『양주 대모산성 발굴조사-10차 발굴조사 보고서』.

기호문화재연구원, 2022, 『양주 대모산성(사적 제526호) 12차 발굴(시굴)조사 약보고서』.

기호문화재연구원, 2023, 『양주 대모산성 발굴조사-11차 발굴조사 보고서』.

기호문화재연구원, 2023, 『양주 대모산성(사적 제526호) 13차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文化財研究所·翰林大學校博物館, 1990, 『楊州大母山城 發掘報告書』.

보은군, 1979, 『보은 삼년산성-기초조사보고서-』.

중원문화재연구원, 2006, 『보은 삼년산성-2004년도 발굴조사 보고서-』.



중원문화재연구원, 2008a, 『보은 삼년산성-2006년도 내측 성벽 발굴조사 보고서-』.

중원문화재연구원, 2008b, 『보은 삼년산성-동문지 2차 발굴조사 보고서-』.

중원문화재연구원, 2009, 『보은 삼년산성-남문지 내측·서남 곡성 발굴조사 보고서-』.

중원문화재연구원, 2015, 『沃川 山桂里 屈山城(已城山城) 精密地表調査 報告書』.

충북대학교박물관, 1982, 『삼년산성-추정연못터 및 수구지발굴조사-』.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1, 『삼년산성-기본 자료 및 종합 보존·정비계획 안-』.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5, 『보은 삼년산성-2003년도 발굴조사 보고서-』.

충청남도, 1991, 『文化遺蹟總覽(城廓·官衙篇)』.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그리운 것들은 땅속에 있다』.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21, 「금산 백령성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요청 자료보고서」.

忠淸南道歷史文化院, 2004, 『錦山 栢嶺山城 地表·試掘調査 報告書』.

忠淸南道歷史文化院, 2007, 『錦山 栢嶺山城 1·2次發掘調査 報告書』.

忠淸南道歷史文化院, 2022, 『금산 백령산성Ⅱ』.

忠淸南道歷史文化院, 2004, 『백제시대 금산과 백령산성의 조사성과』.

忠淸南道歷史文化院, 2021, 『금산 백령성의 현황과 과제』.

충청북도, 2008, 『삼년산성』.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23, 『관산성 전투와 옥천 서산성의 조사연구 및 향후과제 발표집』.

충청북도·보은군, 1980, 『삼년산성 서문지 조사개보-1980년도』.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22, 「옥천 이성산성 2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韓南大學校 中央博物館, 2003, 『文化遺蹟分布地圖 錦山郡』.

翰林大學校 博物館, 2002, 『양주 대모산성-동문지·서문지-』.

한성문화재연구원, 2017, 『단양 적성 북문일원 보수공사 서벽구간 시굴조사 보고서』.

화서문화재연구원, 2020, 『양주 독바위보루Ⅰ』.

화서문화재연구원, 2021, 『양주 독바위보루Ⅱ』.

화서문화재연구원, 2022, 『양주 독바위보루Ⅲ』; 2023, 『양주 독바위보루Ⅳ』.

화서문화재연구원, 2022, 「양주 독바위 보루 유적(5차)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화서문화재연구원, 2023, 「양주 독바위 보루 유적(6차)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강종원, 2004, 「錦山 栢嶺山城 出土 銘文瓦 檢討」『百濟研究』39.

강종원, 2009, 「扶餘 東南里와 錦山 栢嶺 山城 出土 文字資料」『木簡과 文字』3.

강종원, 2021, 「명문와(銘文瓦)를 통해 본 백령산성」『충청학과 충청 문화』30-1.

강종원·최병화, 2007, 「錦山 栢嶺山城 出土 銘文瓦의 性格」『그리운 것들은 땅속에 있다』, 국립부여박물관·충청남도역사문화원.

강기원, 2024, 「양주 독바위 보루의 축성과 운영」『先史와 古代』74.

권순강 외, 2011, 「석축 산성의 계곡부 체성과 못(池)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76.

김병희, 2021, 「백제 사비도읍기 금산 백령산성의 위상」『충청학과 충청문화』30-1.

김수태, 2022, 「사비시대 백제의 자연촌」『木簡과 文字』29.

김세종, 2017, 「호남지방 고대 석축산성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논문.

金榮官, 2010, 「660년 신라와 백제의 국경선에 대한 고찰」『新羅史學報』20.

김영관, 2024, 「관산성 전투와 백제연합군의 편성」『新羅史學報』60.

김용, 2024, 「양주 대모산성의 조사성과와 변천양상」『先史와 古代』74.

김인숙, 2023, 「금산 백령산성의 지형분석과 가시권 분석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논문.

김재홍, 2019, 「토목과 건축」『통일신라 고고학개론』, 진인진.

김진웅, 2024, 「양주지역 고구려 관방유적의 조사성과와 과제-태봉산보루를 중심으로」『先史와 古代』74.

김호준, 2013, 「미호천 중상류의 백제토성 현황과 특징」『백제학보』10

김호준, 2018, 「漢城期 百濟 石築山城에 대한 再論議」『문화사학』60.

문동석, 2010, 「2000년대 백제의 신발견 문자자료와 연구동향」『韓國古代史研究』.

朴昶炫, 2022, 「금산 백령산성 출토 목곽고의 과학적 분석-제작기법 및 연대측정(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전통문화대 석사논문.

박현숙, 2010, 「5~6세기 삼국의 접경에 대한 역사지리적 접근」『한국고대사연구』58.

백영종, 2009, 「소백산성 북부일원의 신라산성 이해」『중원문화재연구』3.

백영종, 2023, 「세종 이성의 조사현황과 성과검토」『고조선단군학』50.

백영종, 2023, 「금강·낙동강 상류 관방유적 조사·연구 현황과 과제」『先史와 古代』71.

白種伍, 1999, 「京畿北部地域 高句麗城郭의 分布와 性格」『京畿道博物館年報』3.

白種伍, 2005, 「最近 發見 京畿地域 高句麗遺蹟」『北方史論叢』7.

白種伍, 2006, 「南韓地域 高句麗 關防體系-臨津江流域을 중심으로-」『先史와 古代』26.



白種伍, 2017a, 「高句麗 城郭 築城術의 擴散에 대한 豫備의 檢討」『高句麗渤海研究』59.

白種伍, 2017b, 「中國內 高句麗山城의 發掘 現況과 主要 遺構·遺物의 檢討 - 2005年~2016年 發掘調査를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53.

白種伍, 2019, 「6세기 중반 신라 丹陽 赤城의 景觀」『先史와 古代』61.

白種伍, 2020, 「한국고대 산성의 집수시설과 용도」『木簡과 文字』25.

白種伍, 2021, 「백제 성곽과 금산 백령성의 위상을 읽고」『금산 백령성 현황과 과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白種伍, 2022a, 「沃川 己城山城의 城內 施設物 檢討와 築城史的 意味」『韓國史學報』87.

白種伍, 2022b, 「臨津江·漢灘江流域 古代 關防體系와 河川路」『지방사와 지방문화』25-2.

白種伍, 2023a, 「고구려 성곽의 편년 설정을 위한 예비적 검토」『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의 현황과 역사적 성격』, 동북아역사재단.

白種伍, 2023b, 「扶餘 扶蘇山城의 築城法과 文字資料의 編年的 位置」『고고학』22-1.

白種伍, 2023c, 「세종 李城의 고고학 성과를 통한 문화재적 가치 제고」『고조선단군학』50.

白種伍, 2023d, 「중원문화권 관방유적 조사·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先史와 古代』71.

白種伍, 2024, 「한국고대 성곽문화의 결절지, 양주」『先史와 古代』74.

백종오·신영문, 2005, 『高句麗遺蹟의 寶庫 京畿道』, 京畿道博物館.

성정용, 2023, 「삼국시대 옥천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관산성[古尸山城]」『중원문화연구』31.

성정용·박찬호, 2019, 「청주 부모산성 저수조의 성격」『백제학보』30.

손환일, 2009, 「百濟 栢嶺山城 출토 명문기와와 木簡의 서체」『口訣研究』22.

沈光注, 2005, 「高句麗와 百濟의 城郭文化」『高句麗研究』20.

심정보, 1999, 「고구려 산성과 백제 산성과의 비교검토」『고구려연구』8.

심정보, 2000, 「대전 계족산성의 고고학적 검토」『고고역사학지』16.

심정보, 2001, 「백제 석축산성의 축조기법과 성격에 대하여」『한국상고사학보』35.

심정보, 2020, 「한국 성곽의 전통과 특징」『2020 오산 독산성 학술심포지엄』백산학회.

양시은, 2014, 「오녀산성의 성격과 활용 연대 연구」『韓國考古學報』115.

양시은, 2001, 안성도기동산성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중원문화연구 29.

이병호, 2013, 「금산 백령산성 출토 문자기와의 명문에 대하여」『百濟文化』49.

이재철, 2014, 「錦山 栢嶺山城 遺蹟 出土 文字 資料와 懸案」『木簡과 文字』13.

이종수, 2015, 「부여 성곽의 고구려 연용에 대하여」『先史와 古代』43.

이종수, 2022, 「천안의 문화자원과 활용방안 연구」『충청학과 충청문화』32.

장창은, 2017, 「6세기 중·후반 신라·백제의 각축과 국경선 변천-금산·대전지역을 중심으로」『韓國史學報』67.

전혁기, 2017, 「古代 城郭 集水施設의 性格과 變遷」, 한신대 석사논문.

전혁기, 2023, 「한·일 고대성곽의 지수시설 비교연구」『白山學報』126.

정해준, 2000, 「예산지역 백제산성의 특징」『역사와 역사교육』5.

정호섭, 2023, 「나당연합군의 백제 침공과 고구려의 대응」『先史와 古代』72.

정호섭, 2023, 「2000년대 이후 고구려사 연구경향과 과제」『동아시아 고구려사 교류의 성과와 전망』, 고구려 발해학회.

조원창, 2022, 「일명 당김석(引石)의 발굴 사례와 형식 분류」『한국건축역사학회 2022년 춘계학술발표대회』.

차용걸, 2021, 「옥천지역 산성의 조사 성과와 향후과제」『옥천산성 학술대회』, 옥천향토사연구회.

車勇杰·趙順欽, 2008, 「管山城 關聯遺蹟의 現狀과 保存方案」『中原文化論叢』12.

최병화, 2005, 「錦山地域 百濟山城에 관한 研究」『百濟文化』33.

최병화, 2007, 「錦山 栢嶺山城의 構造와 性格」『湖西考古學』17.

최병화, 2015, 「百濟 石築山城의 城門構造와 變遷過程」『아외고고학』23.

최병화, 2021, 「발굴조사를 통해 본 백령성의 구조와 기능」『충청학과 충청문화』30.

최병화, 2022, 「백제 사비기 지방도시의 성곽(성벽) 축조기술 연구」『백제왕도핵심유적』, 문화재청.

황보경, 2016, 「삼국시대 木柵에 대한 고찰」『白山學報』106.

황보경, 2021, 「3~6세기 삼국의 정세와 도기동산성」『東洋學』83.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16, 「集安市霸王朝高句麗山城」『中國考古學年鑑』, 文物出版社.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17, 「集安市霸王朝高句麗山城」『中國考古學年鑑』, 文物出版社.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18, 「集安市霸王朝山城」『中國考古學年鑑』, 文物出版社

本溪博物館·桓仁縣文物局, 2001, 「遼寧桓仁縣高儉地高句麗山城調查」『東北史地』1.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五女山城』, 文物出版社.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2, 「2008-2009年遼寧桓仁縣高儉地高句麗山城發掘簡報」『東北史地』3.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博物館·桓仁縣文物局, 2009, 「桓仁縣高儉地山城」『中國考古學年鑑』, 文物出版社.



遼寧省文物考古研究院·本溪市博物館·桓仁縣文物局, 2022, 「遼寧桓仁縣三座高句麗山城及北溝關隘遺址調查報告」『北方文物』4.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瀋陽市文物考古工作隊, 1998, 「遼寧瀋陽市石臺子高句麗山城第一次發掘間報」, 『考古』10.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瀋陽市文物考古工作隊, 2001, 「遼寧瀋陽市石臺子高句麗山城第二次發掘簡報」, 『考古』2001-3.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瀋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10, 「瀋陽市石臺子高句麗山城蓄水設施遺址」, 『考古』12.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瀋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12, 『瀋陽石臺子山城』, 文物出版社.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21, 「吉林集安市霸王朝山城2015~2016年發掘簡報」『考古』11.

瀋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07a, 「瀋陽市石臺子高句麗山城2002年Ⅲ區發掘簡報」, 『北方文物』3.

瀋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07b, 「瀋陽石臺子山城2004年Ⅲ區發掘簡報」, 『瀋陽考古文集』1, 科學出版社.

瀋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07c, 「瀋陽石臺子山城西門址的補充發掘」, 『瀋陽考古文集』1, 科學出版社.

瀋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07d, 「瀋陽石臺子山城2006年Ⅲ區發掘簡報」, 『瀋陽考古文集』1, 科學出版社.

通化市文物保護研究所, 2010, 「吉林省通化市自安山城調查報告」, 『北方文物』3.

蘇鵬力, 2011, 「燈塔市燕州城城址」『中國考古學年鑒』, 文物出版社.

徐坤·聂勇·張迪, 2012, 「再論吉林省通化自安山城的年代」, 『博物館研究』2.

王春燕·鄭霞, 2008, 「霸王朝山城的調查與研究」『東北史地』3.

梁志龍·王俊輝, 2011, 「遼寧省桓仁县高俭地高句丽山城调查」『東北史地』1.

李龍彬, 2007, 「遼寧丹東鳳凰山山城首次發掘取得重大收穫」, 『中國文物報』3.

李龍彬·司偉偉, 2008, 「鳳城市高句麗鳳凰山山城」, 『中國考古學年鑒』, 文物出版社.

李曉鍾·劉長江·佺俊岩, 1993, 「瀋陽石臺子高句麗山城試掘報告」, 『遼海文物學刊』1.

周向永, 2009, 「西豐城子山城始建年代再考」, 『東北史地』2.

周向永, 2011, 「西豐城子山,鐵嶺催陣堡兩山城中戍卒營地的相關問題」, 『東北史地』1.

崔玉寬, 1994, 「鳳凰山山城調查簡報」, 『遼海文物學刊』2.

關野貞, 1941, 『朝鮮の建築と藝術』, 岩波書店.

# “금산 백령성의 축성술과 문화유산적 가치”에 대한 토론문

이 종 수 (단국대학교)

본 발표문은 금산 백령성의 축성술과 문화유산적 가치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한국 성곽 연구의 최고 전문가로서 시각을 백령성에만 집중시키지 않고 그 주변과 넓게는 만주 지역의 고구려 산성까지 확장하여 다양한 비교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조사 발굴된 자료를 모두 인용하여 최신의 연구 경향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수준 높은 발표문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산 백령성은 발표자가 강조한 바와 같이 한반도 내 소규모 산성 가운데 가장 완벽한 석축 구조체를 실현한 삼국시대 최첨단 방어 시설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백령성이 금산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서 보호되고 활용되는데 이 발표문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쉽게도 토론자는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심도 있는 토론에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발표문을 읽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5~6세기 삼국시대 성곽 축성양식이 기존 학계에서는 백제=토축, 고구려=토심석축, 신라=석축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백제+고구려+신라=토축 중심이라는 견해가 새롭게 대두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학문 경향의 변화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에 대한 보완 설명 부탁드립니다.



---

2. 발표자께서는 토축에서 석축으로 넘어가는 산성축성사의 터닝포인트를 6세기 중반으로 잡고 계십니다. 이 시기에 소규모 보루나 성들이 축조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성들의 축성법이 토축외면축석 기법 혹은 석축 기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시기 토축 단계에서의 소규모 보루나 성들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3. 본문 제2장 2절 유구와 유물에 대한 검토에서 기와와 출토 유물에 대한 도면, 그리고 목곽시설 현황에 대해 표와 그림으로 잘 정리하셨는데, 본문 내용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백제 중부와 신라 북방 지역의 목곽 시설을 꼼꼼하게 정리하셨는데, 백령성의 목곽시설이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이 글에서 발표자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한 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세기 후반 신라 석축산성 축성설은 폐기해야 마땅하다’. 토론자의 입장에서 발표자의 주장은 매우 합리적이고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 기존 학계의 견해는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발표자의 보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고의 키워드를 ‘다종다양, 우여곡절’로 표현하셨습니다. 다종다양은 이해하겠는데, 우여곡절은 무엇 때문에 사용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5. 발표자께서는 백령성의 의미를 ‘한반도내 소규모 성 가운데 가장 완벽한 석축구조체를 실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시고 ‘그 기술적 원천을 고구려에서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와 유사한 사례의 성곽으로는 어디를 들 수 있을까요?



